
SOFTWARE FOR PEOPLE, FOR WORLD

innovationacademy.kr

2020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백서

INNOVATION ACADEMY WHITEPAPER

Contents

발간사	003
-----	-----

백서 요약	004
-------	-----

제1장 설립

이노베이션 아카데미(IA)

1. 정부단계	007
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추진단	015
3. 학장 선임	030
4. 이사회	033
5. 조직구성	035
6. 개소식	037
7. 공간 소개	040

제2장 운영

혁신교육을 위한 환경

1. 환경 준비	045
2. 기관운영	055

제3장 사업

세 가지 사업

1. 42서울	059
2. Project-X	122
3. 개발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125

제4장 홍보

3무(교수, 교재, 학비)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1. IA 홍보전략	137
2. IA 입학홍보 전략	137
3. 재단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홍보	141
4. 분야별 홍보전략	141
5. 홈페이지	149

부록

코로나19 대응

외부대응	151
------	-----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백서 URL모음	162
--------------------	-----

발 간 사



우리가 백서를 만드는 이유는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쓰이고 있는지를 밝히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른 조직에서 하고자 할 때, 그들에게 관점을 제공하고, 매뉴얼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에 이런 노력과 자원이 들었음을 내부적으로 체화하고,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 밖에 알리고자 합니다. 이 백서가 앞으로 우리와 같은 일을 할 누군가가 읽었을 때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길 희망합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 **이 민 석**

백서 요약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재단은 국가적 소프트웨어 개발자 부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주도로 설립이 추진되었다. 이 백서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한 재단 설립 과정과 혁신 교육시스템 도입 과정, 그리고 1년 가까운 교육 운영 경험과 새로운 교육시스템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또는 다른 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들에게 우리 재단이 걸어왔던 길을 보여줌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백서를 제작하게 되었다.

백서는 총 네 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에는 재단의 설립 추진배경과 추진 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정부가 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첫째,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아키텍트급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필요성, 둘째,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성, 셋째,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 단기 성과주의 폐해 단절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지속적 지원방식 필요성 등 세 가지 때문이다.

재단 설립은 대학, 기업, 정부, 공공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간 10명과 공공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설립 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추진했다. 추진단은 재단 운영규정과 학사운영 기준, 재단 운영 방향과 핵심정책, 학장 및 교육생 선발 기준안을 마련했다. 재단의 조직을 학장을 중심으로 1국 1부 5팀 1단으로 구성했다. 학장 공모결과, 국민대학교 이민석 교수가 3년간 재단을 이끌 초대 학장으로 선발됐다.

제2장에는 혁신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즉 재단의 교육환경 조성 과정을 정리했다. 서버 인프라는 혁신교육 시스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재단이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매해야 할 장비는 학생용 컴퓨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총 500여 대에 달했다. 재단의 장비 구매는 공개입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 구매한 장비는 2차리에 걸쳐 2019년 12월 최종 납품됐다. 교육시스템 구축은 에콜42에서 파견된 인프라팀 3명과 재단 소속 7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시스템 구축팀이 중심이 되어 10일 만에 완료했다.

재단은 교육공간 및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서울시 강남구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혁신교육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했다. 건물 리모델링의 핵심 콘셉트는 재단의 교육목적인 5C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공간이다.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에 들어간 후, 6개월여 만인 2019년 12월 19일 개소식을 하루 앞두고 최종 마무리됐다. 이후 2020년 9월에는 소프트웨어 인재의 추가 양성을 위해 서울시 서초동에 두 번째 캠퍼스인 '세컨드 플래닛(2nd Planet)'을 개소하였다.

제3장에는 재단의 3대 핵심 사업을 자세히 설명했다. 재단은 교육생 모집을 약 한 달여 앞둔 2019년 10월 11일부터 교육생 모집 전국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강남과 강북 각 1회), 광주, 부산, 대전, 제주 등에서 총 6회에 걸친 모집설명회를 개최했다. 오프라인 참석이 어려운 지원자들을 위해선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설명회도 열었다. 재단은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42서울 온라인 테스트에 지원하려는 예비교육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 및 선발 과정을 안내하는 가이드 영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단은 집중교육(La Piscine)을 앞둔 1기 예비교육생을 4개 그룹(1그룹 100여 명)으로 나누어 총 4회에 걸쳐 2박 3일 일정의 창의캠프를 열었다. 창의캠프 목적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기존의 교육시스템에 익숙한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 학습자로 거듭나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었다. 또한 1기 1차와 2차 본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교육생들의 열띤 호응을 끌어냈다.

재단은 교육생들이 소프트웨어 산업 트렌드를 알고, 현장의 경험을 들을 수 있도록 총 15회에 걸친 테크세미나를 개최했다. 테크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지 않아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동적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계획과 달리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되면서 교육생들의 교육 분위기 쇄신을 위해 2020년 상반기에 '소인수분해 프로그램'과 42Day 이벤트인 '프로그램42', '42마리텔', '42 e-sports'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했다.

재단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Project-X'를 기획하고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업계, 학계와 상생 협력방안을 찾기 위해 업계 관계자를 초청하여 'Project-X'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중이다. 또한 재단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심의 기술인재에 특화된 HR 활동에 대한 매뉴얼, 『개발자 채용 길라잡이』을 제작하고 있다. 예비 개발자인 교육생들의 현장 문제 해결 경험 확대와 기업들의 'Developer Relation' 활동 강화 지원을 위해 국내 주요 IT기업과 상생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제4장에는 재단의 홍보전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단의 홍보목표는 첫째, '교육생 모집'이고, 둘째, '재단의 역할과 위상' 확립이다. 재단은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핵심 타깃인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체계를 구축하여 홍보 매체와 콘텐츠를 일관성 있게 관리했다. 2019년 8월 재단 설립 이후, 약 3개월간 보도자료 배포, 대중교통 광고, 신문광고, 페이스북 채널 연계 홍보, 버스광고, 인플루언서 홍보 등을 진행했다. 특히 42서울 교육생 모집을 위해 2019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집중적인 홍보를 진행한 결과 1만1,118명의 예비교육생이 지원했으며, 재단 홈페이지 도달은 170여만 회에 달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언론 커뮤니케이션', '재단 투어 프로그램과 포럼운영', '매체별 특성에 맞는 다각화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뉴스레터', '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 분야별 재단의 홍보전략도 수립했다.

부록에는 교육생 중심의 재단 코로나19 대응을 상세히 담았다.

제1장 설립

이노베이션 아카데미(IA)

1. 정부단계
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추진단
3. 학장 선임
4. 이사회
5. 조직구성
6. 개소식
7. 공간 소개

제1장 설립 이노베이션 아카데미(IA)

1. 정부단계

1) 추진배경

○ 세 가지 배경

2018년 당시, 정부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하고자 하는 배경은 크게 세가지였다.

첫째,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아키텍트급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필요성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서는 세계수준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이 필요했다. 아키텍트급 인재란 최적의 소프트웨어 개발 전략 수립 및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관계를 설계 및 구현하는 리더급 엔지니어를 말한다. 이미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혁신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교육모델을 제시하고 운영 중에 있다. 미국은 '미네르바 스쿨'을 2011년에, 프랑스는 '에콜42'를 2013년에, 중국은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을 2010년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둘째,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성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획일적 교육시스템 등으로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국내 인재 경쟁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주요 분야에서 선진국에 뒤쳐진 상황이다. 2017년 국가인재 경쟁력지수 순위는 홍콩 12위, 싱가포르 13위, 일본 31위에 비해 한국은 39위에 그치고 있다. 미국과 비교하면 인공지능은 2.3년, 사물인터넷(IoT)은 1.2년,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1.8년, 3D프린팅은 2.6년의 격차가 나고 있다. (2017년)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학지원 사업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새신을 유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존 교육방식으로 평범한 소프트웨어 인력만 배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88.4%가 초중급 인력이고 고급 개발자(아키텍트급)는 4%에 불과하다. (2017년)

셋째, 단기 성과주의 폐해 단절을 위해 정부주도의 지속적 지원 방식 필요성이다. 최근 들어 민간 분야에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성과 위주의 교육운영으로 교육 프로그램은 축소되거나 소멸되는 상황이다. 2016년 NHN NEXT의 1기 및 2기 신입생은 90명이었지만 3기 신입생은 12명으로 80% 이상 감소했다. 삼성소프트웨어멤버십은 아예 정기 공채를 폐지했다. 세계 최고의 아키텍트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정부주도 방식의 교육이 필요했다.

○ 국내 주요 소프트웨어 교육 현황

그동안 민간이나 공공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 및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소프트웨어 전공교육 강화와 융합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학부생 중심 소프트웨어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총 40개 대학('15년 8개, '16년 6개, '17년 6개, '18년 10개, '19년 10개)을 선정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연간 약 20억 원을 소프트웨어 전공, 융합전공, 전교생 소프트웨어 교육에 지원받는다.

둘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제도다. 2010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들의 집중 멘토링 및 심화교육을 통해 소프트웨어 고급인력 양성에 연간 75억 원을 지원했다. 졸업생 107명이 설립한 창업기업(105개社)의 총고용인원은 643명으로 평균 고용인원은 6명이다. 일반 대학생 창업기업 평균 고용인원 1.6명보다 3.7배 높게 나타났다. 매년 1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6개월간 교육시켜 2019년까지 총 1,00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셋째, 정보통신기술(ICT)멘토링 제도다. 2004년부터 추진된 ICT·소프트웨어 실무형 인재양성 사업으로 대학생 대상으로 실무중심의 프로젝트 멘토링 교육과정이다. 정부는 연간 57억 원을 지원해 참여 학생들의 취업률은 최근 4년('13~'16년)간 80%이상을 유지했다. 2016년도 전체 취업률 64.4%(취업통계연보, 교육부)보다 17%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간기업인 네이버(☞)가 NEXT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NHN NEXT이다. 2013년 네이버(☞)가 2년제 소프트웨어학교로 산업현장형 학습을 통해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교육은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모바일, 게임, 게임서버 프로그래밍 등 소프트웨어 기술과 인문학 과정을 결합한 융합형 교육과정이다. 전원 무상교육으로 운영했다. 2013년 7월 1차 모집에서 676명 지원자 중 61명을 선발해 경쟁률은 10대 1을 기록했다. 연간 100억 원을 투입하는 막대한 투자와 획기적 교육방식 등으로 추진되었으나, 2년 후 폐지되고 말았다. 현재는 커넥트재단으로 이름을 바꾸어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등 전국민 기초 소프트웨어 소양교육과 부트 캠프 형태의 소프트웨어 실무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삼성의 소프트웨어 인재육성이다. 1991년부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재능과 열정을 지닌 인재 육성을 통해 28년간 총 6,146명을 교육시키고 그 중 4,255명을 채용했다. 2018년부터 'SAFFY'라는 이름으로 재편하여 2022년까지 5년간 그간의 소프트웨어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준비생 1만 명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4개 거점 지역(서울, 대전, 광주, 구미)에 교육장을 마련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12월 1,000명을 시작으로 교육 인원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며, 교육생에게 매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비를 지급하고 성적우수자는 삼성전자 해외연구소 실습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 장점 및 시사점 >

잘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년대부터 정부사업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인력의 양적성장에 기여 ● 2000년대 중반부터 고도의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을 위해 집중적인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확보 노력(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ICT멘토링 등) ● NHN NEXT는 민간 최초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으로(비학위, 2년제), 매년 100억원 지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은 필수적이거나 최고급 소프트웨어 인재 확보 미흡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분야 세계적 수준의 아키텍트급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필요 ●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장기적인 비전과 지속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만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매우 어려운 과제임 ● 자신의 미래를 맡긴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다 확고한 교육철학과 내실 있는 교육 시스템 준비 필요

○ 해외 주요 혁신 교육 현황

해외의 혁신 교육 사례는 크게 프랑스의 에꼴42와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을 들 수 있다.

첫째, 에꼴42는 프랑스 이동통신사 프리모바일 자비에 니엘 회장이 2013년 설립한 IT 혁신학교로 창의적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을 지향하는 가장 세계적인 교육기관이다. 연간 약 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자비에 니엘 회장은 1967년 설립된 프리모바일 창업자이자 프랑스 IT업체인 일리아드의 설립자이자 르 몽드지의 공동소유주이다.

에꼴42의 입학 자격요건은 성적, 졸업장, 인종, 경력 불문이다. 단, 나이만 만 18~30세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선발절차는 온라인 논리검사(logic test, 2시간)와 기억력 테스트(4분)를 통과한 후, 라 피쥬(La Piscine)이라는 4주간 집중교육 과정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선발인원은 매년 1,000명으로 경쟁률은 50대 1에 달한다.

에꼴42의 특징은 '교수', '교재', '학비'가 없는 3무(無) 학교라는 점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학생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곳이다. 교육과정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프로젝트(프로그래밍 과제)를 학생 스스로 3년간 수행하는 데, 기본 공통과정 후 학생의 관심분야와 실력을 고려해서 학생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학생은 인턴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가난한 학생들도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도록 학비 및 기타 행정서비스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지만 학생에 대한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취업률은 개교 이후 100%를 자랑하고 있다. 에꼴42의 42라는 숫자는 영국 소설가 더글러스 애덤스의 SF 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 삶과 우주를 밝혀주는 궁극적인 숫자가 42라고 제시한 것에서 따왔다.

둘째, 미네르바 스쿨은 스타트업처럼 투자를 받아 민간에서 설립된 대학으로 자체 캠퍼스 없이 세계 7개국을 돌아다니며 인터넷 라이브 강의를 통해 학습하는 시스템이다.

입학 자격 요건은 성적, 졸업장, 인종, 경력 불문은 물론이고 나이 제한도 없다. 응시지원서에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외에 어떠한 시험점수도 기재할 수 없다. 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SAT 성적이나 자기소개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자체 입학시험(예: '만약 인간의 기대수명이 30세라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주고 짧은 시간 안에 서술하라)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2017년 봄학기에는 210명을 선발했는데 경쟁률은 97.1대1을 나타냈다.

< 해외 소프트웨어 교육 장점 및 시사점 >

<p>잘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인력의 필요성을 빠르게 인식하고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된 교육 철학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지속 지원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고급인재 양성 시급 ●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 커리큘럼을 넘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을 설립 및 운영하여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고급인력 조기 확보

미네르바 스쿨이 온라인 라이브 강의를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미국), 서울(대한민국)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런던(영국), 베를린(독일), 하이데라바드(인도), 타이페이(대만)이다. 교육과정은 4년제로 예술·인문학, 계산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경영 등 5개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1년차에는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효과적인 소통능력, 협업능력 등을 배양하고 2년차에는 교수의 조언을 통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한다. 복수전공도 가능하다. 3년차에는 캡스톤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미네르바 이후 전문적인 삶을 준비한다. 4년차에는

캡스톤 프로젝트 완성 및 결과물을 교수진, 동료 학생 외부 사람들에게 발표한다.

교육방법은 온라인 라이브 강의(강의 당 약 20명 이하의 학생으로 구성)를 통해 교수와 학생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질문과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식이다. 비용은 연간 약 3,000만 원 정도이다. (2017~2018학년도 기준)

○ 혁신적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설립의 기대효과

혁신적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설립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 현 교육시스템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교육기관'이 설립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면 최고급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특히 국내 모든 산업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이전보다 큰 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설립돼 운영되어야 한다. 미흡한 국내 소프트웨어 기술 인프라 및 환경을 극복하고 혁신적 소프트웨어 핵심인재를 양성하려면 교육기관 설립 및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다.

또한 해외의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학습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적용, 국내 소프트웨어 인재의 실무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시행으로 인한 국내 시장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다.

둘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이다.

인터넷과 온라인 지식 자원이 넘치는 환경에서, 강의 중심 교육은 디지털 네이티브 학생들의 학습 방법에 적합치 않다. 그들에게 맞는 새롭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방법 개발을 위한 실험과 그 결과에 대한 보급 기대감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민간 기관, 대학, 고용노동부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민간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소프트웨어 인력이 필요한 바, 양성되는 인력의 수준과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다. 따라서 수준별 인력을 규모에 따라 양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여 정부의 인력 양성 사업, 민간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모델 개발이 아직 시장 초기인 민간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기관과의 협력으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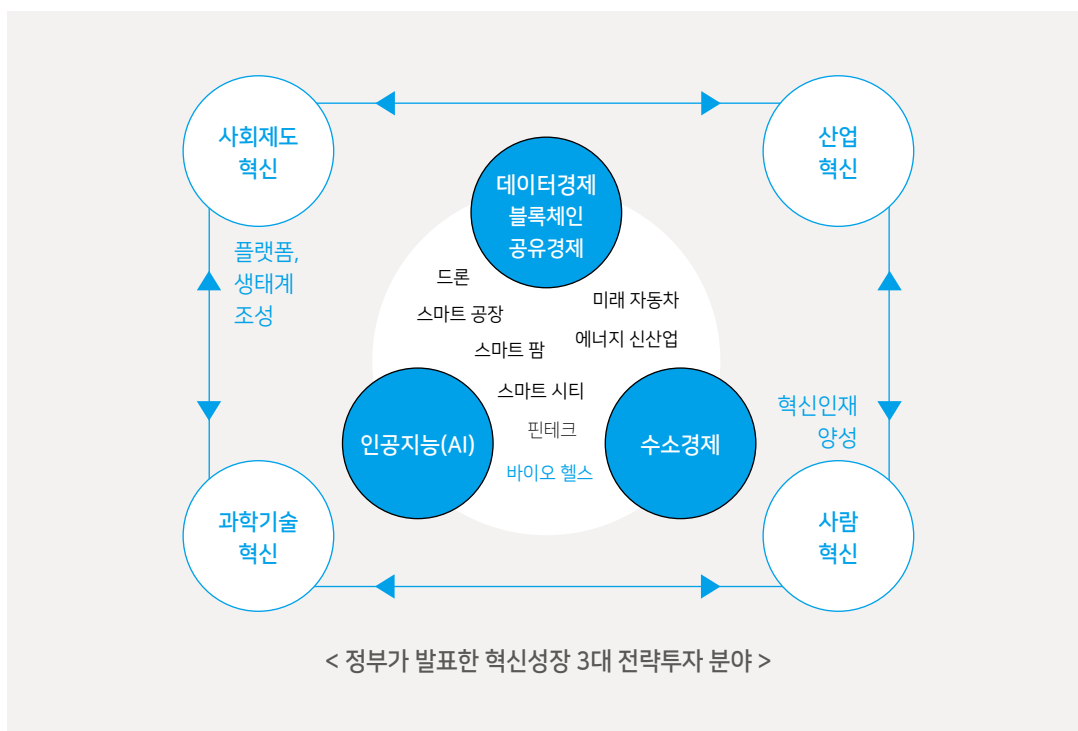
셋째,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도전적인 교육과정 개발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강의, 실습, 멘토링 수준의 교육방식을 넘어 누구도 도전해 보지 못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시스템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다. 기업과의 프로젝트(Project Based Learning) 및 교수 없이 학생들끼리 서로 배우고(Peer to Peer) 새로운 것을 만드는 혁신교육 과정 등의 획기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전 산업을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태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다. 국내 기업들은 테크-HR(Tech-HR)과 DevRel(Developer Relations) 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태계의 일원으로 존재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인력 채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이들 기업을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력 생태계에 편입시키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 또한 잠재력 있는 개발자들과 소통 및 기술적인 활동 장려, 개발 방법론 정립 등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기업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중견 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역량, 소프트웨어 생태계 일원으로서 존재감을 갖게 할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다섯째,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창업지원 추진이다. 글로벌 대학과 기업이 공동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창업기업 배출에 대한 기대 효과이다. 글로벌 대학과 ICT기업 등이 공동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 및 프로젝트 관련 기술 등의 학습으로 창업기업을 배출하고, 365일 24시간 개방된 공간에서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창업기업을 배출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외 창업 지원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의 협력과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배출 추진도 가능하다.

2) 추진 과정

정부는 2018년 8월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을, 공통분야로는 혁신인재 양성을 선정했다. 혁신인재 양성 사업은 미래 성장 유망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 1만명 육성+혁신적 인재양성 시스템 마련이라고 명시했으며,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는 1만명 혁신인재 양성(2019년 2,000명)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적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 교육 프로그램 도입 사업으로 정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프로젝트 기반 자율적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의 '프로젝트 기반 자율적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 교육 프로그램'은 현 교육시스템과 별도 트랙의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전공,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교육모델로 프랑스의 에콜42 등을 벤치마킹하여 설립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비학위과정으로 정부가 설립(가칭:이노베이션 아카데미)하고 해외 유명 교육기관, 연구 기관·기업 등과 협력 아래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명시했다. 실제 운영 방법으로 초기에는 공모를 통해 민간 주관기관을 선정해 진행하고, 향후 비영리재단 법인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전략투자 방안에서는 2018년 하반기에 관련 부처, 대기업 및 벤처기업, 민간 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인재양성기관 설립 세부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기관(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을 통해서 정부는 소프트웨어 역량 기반의 미래형 창업인재 등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최고급 인재양성 추진(해외 우수인력 국내유치도 적극 추진) 계획을 명확하게 했다.

정부가 발표한 혁신인재 1만명
신규 양성 관련 보도 기사



2018년 8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국,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인재양성단, 이화여대 고건 교수, 국민대 이민석 교수 등이 조찬모임을 갖고, '최신 소프트웨어 분야를 대상으로 2년제 비정규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모임을 가졌다.

2018년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추진 사업을 '예산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의결했다. 2018년 9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주재로 핵심인재 양성 TF 1차 회의가 있었으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 핵심인재 양성 TF 1차 회의 중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관련 사항 >

교육 방향	<p>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고, 교육의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핵심 역량을 갖춘 고급 인재 육성에 집중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고급 인재(개발자)이므로, 교육의 목표를 고급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둘 필요 ●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기초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제해결 능력과 소통 및 협업 능력이 있는 인재 양성 필요 ● 교육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단기성과에 집착해서는 안 됨 ● 단순히 창의 및 혁신으로는 부족하며,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들은 기존 사업들과 차별성이 명확해야 하며, 민간 주도로 운영 필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p>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업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역량수준만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화된 교육은 곤란하며, 수준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 혁신성장의 핵심은 창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창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 및 스타트업이 기획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필요 ● 우수 기업 CEO, CTO 초빙 강연 등을 통해 교육생들에 대한 동기부여 필요

2018년 9월 11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 전략을 발표하고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 도입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가칭)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2019, 연 500명) 추진'을 발표했다.

2018년 9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인재 양성 TF 소분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가칭)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 참석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책국 노경원 국장, 최준호 과장, 남영준 사무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인재양성단 홍승표 단장, 인재기획팀 신준우 팀장, 기반인력팀 민승현 팀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명준 소장, 코드스쿼드 김정 대표, ABC Tech 김익환 대표, 멋쟁이사자처럼 이두희 대표, 국민대 이민석 교수 등이다. 이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은 새로운 교육기관의 ▲인재상 ▲교육기관 위치 및 설립 ▲학생선발 방법 ▲교육과정(교육 콘텐츠 등) ▲강사(수준, 선발 등) ▲정규교육 외 프로젝트 ▲산·학 글로벌 협력 ▲사무국 운영(운영진 등) 등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 주제에 맞추어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설립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안들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있었다. 특히 이날 회의 시작 때, 발표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추진 초기 일정(안)은 다음과 같았다.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추진 초기 일정(안) >

2018년 9월 중	혁신인재 양성 TF 소분과(이노베이션 아카데미) 2차 회의
2018년 10월까지	2019년 예산으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혁신 프로그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예산 350억 원 편성 (정보통신진흥기금)
2018년 12월까지	2019년 교육과정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기획 보고서, 연간 교육 일정 등 마련
2019년 상반기	교육센터 입지선정 및 인프라 구축
2019년 하반기	교육 시행

2018년 11월 14일,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그 계획 안에 실습프로젝트 중심의 소프트웨어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명시했다.

2018년 11월 27일,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분부는 '혁신학교(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나아갈 방향'이란 혁신성장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의 좌장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명준 소장, 발제는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이민석 교수, 토론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소프트웨어 정책국장, (민간 개발자 교육기관) 코드스쿼드 김정 대표, (개발자 서치펌) eBrain 노상범 대표, 한글과컴퓨터 양양성 부사장, KT 인재경영실 고윤전 상무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의 절대적 부족,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정책과 민간의 노력, 그리고 정부 주도로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 예산, 실적 이슈 등 여러 한계와 극복해야 할 문제들에 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참여자들의 시각이 자유롭게 토론되었다.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분부는

2018년 11월 27일 '혁신학교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의 혁신성장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론회 모습과 행사 안내홈페이지



2018년 1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9월 6일 발족한 '혁신인재 양성·로드맵 검토를 위한 민·관 합동 TF' 회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주재로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TF단장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산하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업 및 협회 관계자, 학계관계자 등 25여명이 참석했다. 이 회의의 목적은 혁신인재 양성 로드맵(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세부방안, 인공지능(AI)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운영 세부방안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이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까지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1,950명, 인공지능(AI)대학원 1,740명, 혁신성장청년인재 7,000명 양성과 함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2,500명 인력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12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4차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을 발표하고, 계획안에 프랑스 에콜42를 벤치마킹한 혁신적 비학위 교육기관 설립을 명시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학계,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한 '혁신인재 양성 TF' 회의가 2019년 2월까지 수차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거버넌스 체계 및 운영모델 등 주요 결정사항이 논의됐고 2019년 3월부터는 (가칭)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추진단이 결성돼 실질적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작업이 추진됐다.

2019년 2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영민 장관)와 서울시(박원순 시장)는 서울 강남구 개포디지털 혁신파크에 혁신적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개발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겸한 협약식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이에 대한 해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와 정부, 기업인이 함께 만드는 이 아카데미는 '혁신인재'의 요람이 될 것"이라며 "이곳에서 배출된 인재가 대한민국 전역에서 기업의 혁신,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도전을 지속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업무 협약으로 개포디지털혁신파크의 새롭관과 마루관 두 건물은 2019년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최초의 교육공간이 되었다.

2019년 4월 10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비학위 과정의 혁신적 소프트웨어 교육기관((가칭)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을 명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영민 장관)와 서울시(박원순 시장)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보도한 신문기사

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추진단

1) 설립추진단의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성공적 설립 및 안정적 운영체계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2019년 3월 6일 발족을 겸한 첫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추진단 구성은 대학·기업·정부·공공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중심으로 15명 내외로 하고, 초기 단장은 민간위원 중 1인을 호선하되, 추후 학장 선정 시 학장이 단장을 맡도록 했다. 설립추진단 운영기간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후 이사회 운영 전까지로 한정했다.

< 설립추진단 역할 >

- 학장 서치 커미티 운영
- 학장 및 멘토단 선발기준(안) 마련 및 선발 시행
- 교육생 선발기준(안) 마련 및 선발 시행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입지 선정 및 시설·설비 구축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규정 및 학사운영 기준 마련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방향 및 주요정책 검토/결정
- 재단법인 설립(안) 검토
- 사업 홍보전략 검토 및 해외 협력·홍보
- 기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설립추진단 위원은 민간 13명과 공공 5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고, 추진단장은 첫번째 설립추진단 회의에서 연세대학교 이봉규 교수가 호선으로 선임됐다.

< 설립추진단 위원 명단 >

구분	소속	직위	성명	경력
민 간	연세대학교	교수	이봉규	(사)한국인터넷정보학회 회장 / 한성대학교 정보공학과 교수
	서강대학교	교수	김용진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심의위원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학용	서울시 혁신성장위원 / LG유플러스 부장
	아주대학교	교수	윤대균	삼성전자 부사장 / NHN 테크놀로지 서비스 대표
	인하대학교	교수	권장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장 / 동명대학교 교수
	모두의연구소	소장	김승일	LG전자 책임연구원
	인큐브랜드	대표이사	김인겸	서울시브랜드위원회 위원
	케이티(KT)	상무	고윤전	KT인재경영실 / KT경제경영연구소 센터장
	코드스쿼드	대표이사	김 정	오로라플래닛 대표이사 / NHN 넥스트 교수
	테크프론티어	대표	한상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CS 위원 / 세종대학교 교수

구분	소속	직위	성명	경력
F0 F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관
	기획재정부	혁신창업팀장	손웅기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	진인사컴퍼니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서울특별시 경제기획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석제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설립추진단이 구성된 시점까지 논의됐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목적은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위해 국내외 잠재력 있는 인재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한 세계 수준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이다. 프랑스 '에콜42' 등 세계적 IT혁신 학교를 벤치마킹한 혁신적 비학위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을 통해 글로벌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이 사업의 핵심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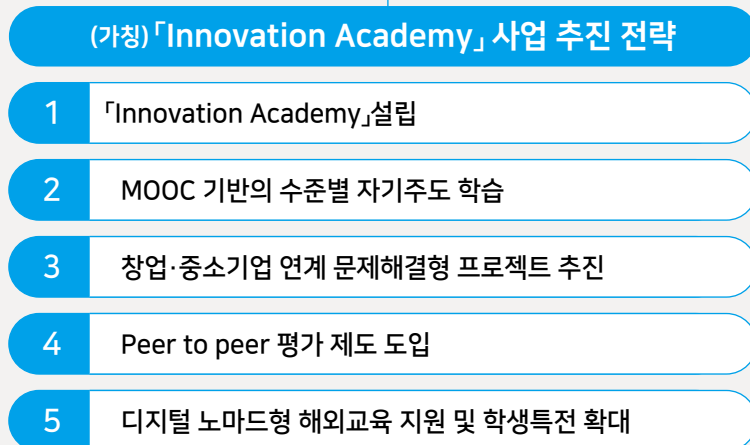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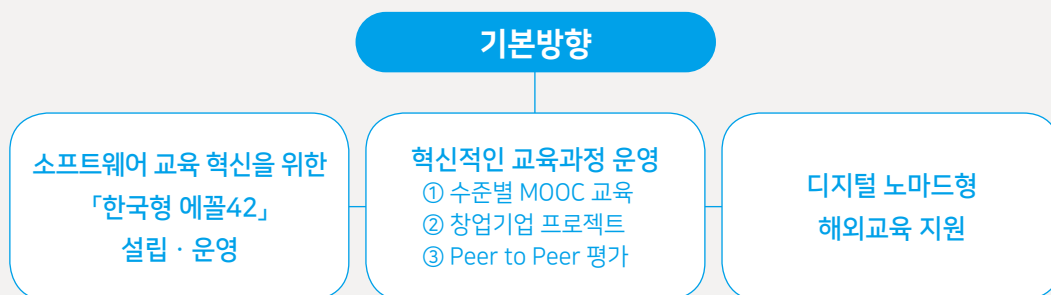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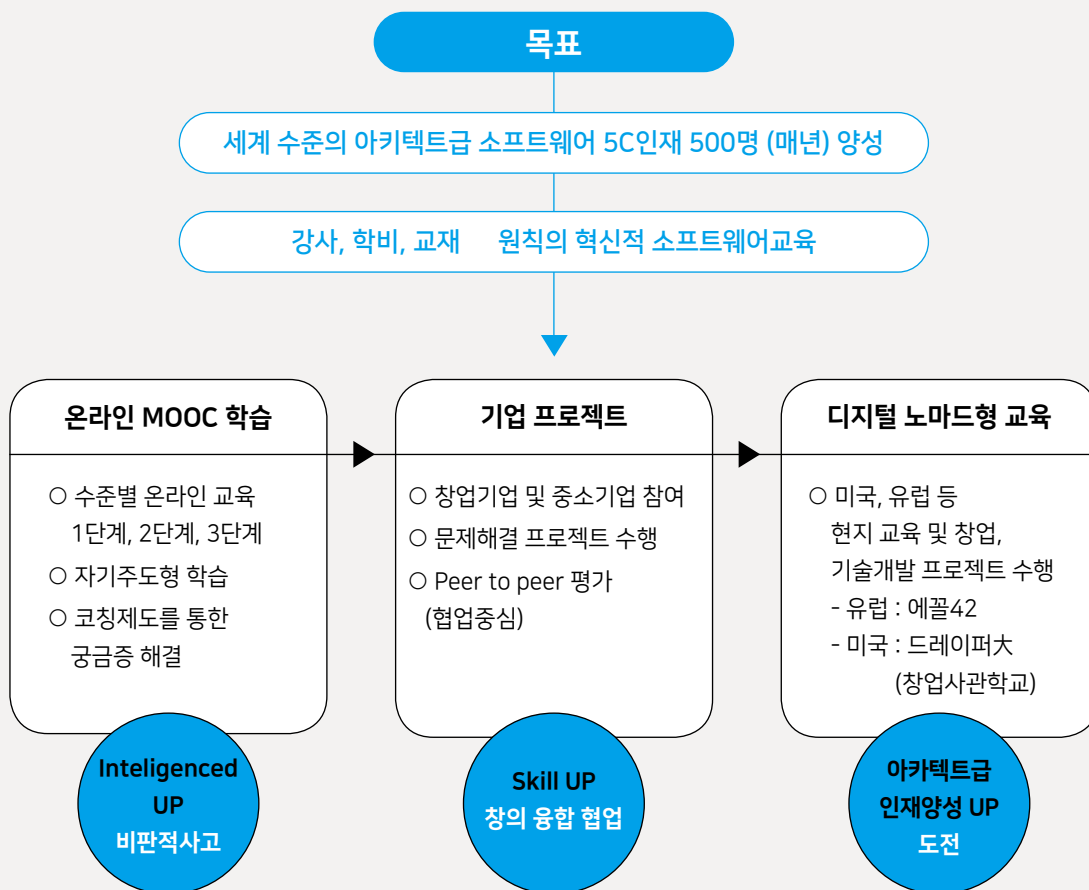
둘째, 사업내용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아키텍트급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수준별 자기주도 학습기반 기업협력 프로젝트와 온라인 교육으로 구성된 2년의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한다. 교육대상은 만 18세 ~ 만 39세를 대상으로 선발하되, 성적·학력·경력·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2019년 하반기까지 250명을 선발한다. 교육과정은 2년 비학위 과정으로 자기진로 학습방식을 기반으로 코딩 기술 및 프로젝트 기반의 포괄적 응용 기술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 간 업무협약 체결(2019년 2월 12일)을 통해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후 활용하며, 추후 교육시설을 신축한다.

셋째, 기대효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아키텍트급 소프트웨어 고급인재 2,500명을 향후 5년 간 양성함으로써 국가 혁신성장 견인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특히 강사, 학비, 커리큘럼이 없는 3무(無) 교육, 수준별 자기주도학습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소프트웨어 교육 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한다.

넷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2019년 11월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추진 일정(안) >

2019년 3월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추진단 구성·운영
2019년 3월~9월	교육 공간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2019년 4월~7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 및 멘토단 선정
2019년 9월~10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연수생 모집 및 선발
2019년 11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 및 운영





설립추진단 Kick off 회의



2) 설립추진단의 운영

2019년 3월 6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추진단은 첫 회의에서 추진단장으로 연세대학교 이봉규 교수를 호선으로 선임했다. 이어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계획,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브랜드 네이밍 및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기관장 공모 관련 등을 논의했다. 당일 주요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립추진단은 추진단 역할과 관련하여 세가지를 논의했다. 첫째, 교육기관장 서치커미티는 교육기관장 공모 진행 시 후보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을 후보군으로 추천하기 위해 운영한다. 둘째, 멘토단은 자기주도 학습기반 기업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기업 등에서 비상근 멘토를 초청하여 운영하되 이사진과 별도로 직원 개념으로 운영한다. 셋째, 추진단은 비영리 재단 설립 시 해산하고 이사회가 구성된다.

설립추진단 운영은 일의 양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총괄 그룹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그룹 ▲액티비티 및 공간 설계 그룹 ▲학장 추천 그룹 등 소그룹 방식이 제안됐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브랜드 네이밍 선정은 중요하지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자문 이외에 공식적인 프로젝트나 공모전 등을 통한 시행이 제안됐다. 이슈화를 위한 공모전은 슬로건 공모가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브랜드는 개개인이 다른 선호도를 가지므로 의미부여가 중요하다. 평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의미부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마이너스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브랜드 네이밍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다. 교육기관의 장이 결정된 후 브랜드 선정이 필요하므로 학교 브랜드는 학교 교육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 밖에도 'I2C Seoul' (Idea to Code), 접근하기 쉬운 브랜드 제안(예 : '다음대학', '비욘드대학', '대학보다 나은 대학', '마음이 있는 소프트웨어 대학' 등) 등의 새로운 네이밍 제안도 있었다.

교육기관장 공모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기관장 공모는 비영리법인 재단을 설립하면서 동시에 공모하자는 의견과 기관장을 먼저 선임하여 기관장의 철학이 설립 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관장 공모는 비영리법인 추진일정과 동시에 진행 (4~5월 예정)하되 설립추진단은 일종의 법인 설립의 발기인이므로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기관장은 달리 선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명칭도 교육기관장이라는 용어 대신 학장이라는 용어가 혼선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외국인을 학장으로 뽑자는 의견도 제기돼, 외국인도 가능하다면 개방해서 뽑는 것으로 추진하고, 현재는 내국인 학장을 뽑는 것을 우선해 준비하되 정해진 바는 없고, 설립추진단에서 추후 조정하기로 논의했다. 외국인 학장은 외국인 학생들의 적응 및 글로벌형 교육기관으로서 필요하나 조직차원에서 글로벌 기준 적용과 외국어 시스템 도입 등 다방면의 고민 및 준비사항이 필요하고, 초기 기관 설립 및 대정부 역할 등을 위해서 국내 포스트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외국인과 내국인 등 더블 포스트 방식도 고려됐지만 초빙 순서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보통의 경우는 서치 커미티가 우수한 후보를 추천하므로 설립추진단에서 유능한 분을 많이 추천해 풀(Pool)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특히 파격적인 대우로 우수한 인력을 초빙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밖에 논의된 의견으로 ▲교육 프로그램 ▲부처협력 ▲홍보 ▲기업협력 ▲조직구성 ▲공간문제 등이 있었다. 교육방식이 교육에서 학습으로 변경되면서, 교육 프로그램 도입은 시스템을 통해 레벨이 올라가는 형태의 '에콜42'와 'SV01' 등의 라이선스 교육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병무청 및 법무부와 협의하여 국내 교육생의 병역연기, 해외 교육생의 해외비자 발급 문제 등의 부처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학생 모집과 기업 취업 등을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므로 홍보 전략 등을 다음 회의 안건에 상정하기로 했다. 기관의 성공은 1회 졸업생에 달렸으므로 하반기 1기 신입생 채용을 위한 빠른 홍보가 필요한 만큼 창의적인 홍보전략과 현실적인 타임 스케줄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중소 및 창업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유능한 개발자를 비상근 멘토로 활용하여 기업협력 프로젝트 진행 및 채용까지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논의했고, 추진단 차원에서도 기업들과 협력관계 구축에 일정한 역할을 하기로 했다. 조직구성과 관련해선 비영리 법인 사무국 구성 및 교육직과 행정직 등 직원 채용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시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부지활용을 위해, 해당 부지의 2019년 계획을 보류해 둔 상태였다. 시설은 수요일에 정확히 맞추기보다는 여유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고, 혁신적인 공간을 만들지, 우선 일정에 맞추지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체육관 부지에 공간 신축을 위한 레이아웃 준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019년 3월 20일, 수시 회의에서는 전체 추진 일정 (마일스톤)과 주요 업무별 검토를 통해 실질적 추진 절차를 협의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2020년 11월 1일 개소를 목표로 일정을 수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소분과를 운영하기로 했다. 개소 일정을 맞추기 위해선, 장시간 준비가 필요한 자체 교육시스템 개발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외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되, 해외 프로그램의 경우 내재화, 유지보수 가능여부, 국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수준 등을 고려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가기로 했다. 해외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들여와 교육을 시작하고, 신기술 교육, 기업가 정신 등 추가 필요한 교육은 병행해서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기됐다.

에콜42 라이선스 도입 검토결과, 구축비는 초기 라이선스 비용은 10만 유로(1.4억 원), 이후 연간 라이선스 비용은 5억 원으로 교육생 1인당 연간 500유로(약 67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필요한 교과목, 신기술, 기업가 정신 등 분야 추가는 가능하지만 계약 해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 라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립추진단 모두 교육 목표와 교육내용 전반에 대한 공감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위해 기획보고서 등 참고자료를 공유하기로 하고 인재상, 학교 비전, 수료 시점에 기대되는 교육생의 역량 등을 설정한 후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학장 선발과 사무국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법인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재단 홍보를 위해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BI) 확정이 필요하며, 슬로건 공모는 일정을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2020년 6월~7월) 재단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가 확정되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향후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우수한 교육생을 선발하기 위해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생 지원은 시청각, 신체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설립 추진과정에서 검토한 내용을 백서 형식의 책자로 발행하는 것을 논의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검토를 위해 소분과 업무 추진 리스트를 작성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설립추진단은 효과적인 설립 추진을 위해 교육분과, 국내외 협력분과, 인프라구축 분과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각 소분과는 추진단 위원들이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참여하고, 중복 참여는 물론 다른 분과 회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법인설립분과는 필요시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 설립추진단 소분과 구성 현황 >

소속	성명 (직위생략)
교육 분과	권장우, 김용진, 윤대균, 김정, 김승일, 김학용, 고윤전, 장영승
국내외 협력 분과	김학용, 고윤전, 한상기, 김인겸, 장영승, 김용진, 윤대균
인프라구축 분과	권장우, 김정, 김승일, 김인겸

소분과 운영은 오프라인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소분과회의 결과를 온라인 등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각 분과별 필요에 따라 플랫폼 등도 활용하기로 했다.

소분과 중 교육분과의 업무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추구하는 인재상, 교육 목표, 교육 철학,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도입, 교육과정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 업무를 정의했다.

○ 교육생

- 선발대상 및 기준의 명확화 (나이, 재직자 참여제한 등과 초급·중급·고급 등 어느 수준의 교육생을 선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
- 선발 프로세스(인적성검사, 서류전형, 코딩테스트, 심층면접 등)
- 선발된 교육생의 수준별 교육운영 방안 도출
- 교육생 관리 및 운영규정 (교육생 의무, 학교 내 최소규칙, 제재사항 등)
- 외국인 교육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교육생 교육지도 및 상담지원
- 교육생 지원내용 (IT기기 지원, 교육지원금, 기타 자문 등)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과정

- 교육과정 운영 시 검토 사항(중도탈락, 단계별 수료 등)
- 교육과정 중 교육생 평가방법 (peer to peer)
-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공간, 소프트웨어, 장비, 시설 등 검토사항
- 국내외 혁신교육프로그램 도입 시 검토사항(계약 시 고려사항, 운영형태 등)
- 글로벌 해외교육 프로그램 발굴
-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발굴
- 창업 등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발굴

○ 멘토

- 멘토의 역할, 구분(상임/비상임), 기준, 선발과정, 수당 및 처우
- 멘토 운영지침 제정
- 멘토 영입을 위한 노력과 방법

○ 학사관리

- 학사관리 및 운영 등 전반에 대한 사무국 역할 및 기준
- 교육생 및 멘토 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활용)
- 교육생 및 멘토 지원 프로그램 (지원제도 마련)
- 교육과정 운영 관리 (프로젝트 재료비 등 교육 기자재 관리 지원 포함)

○ 학장 선발

- 학장 선발 기준
- 학장의 역할 및 권한, 의무사항
- 학장의 역량평가 방법

2020년 4월 3일, 교육분과에서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5C(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hallenge, Convergence, Collaboration) 인재상 및 교육 목표를 정하고 혁신교육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5C 인재상

인재상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소프트웨어 5C 인재 양성	
인재 역량	Creativity(창의성)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각의 틀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의적 인재
	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	세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춘 인재
	Challenge (도전정신)	세상의 지식에 탐구심과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도전하는 인재
	Convergence(융합역량)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융합형 통섭인재
	Collaboration(공감과 협업)	경청과 공감을 매개로 글로벌 소통 능력을 가지고 서로 협업하는 인재

○ 교육목표

- 전 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수준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수료생보다 상향된 인재양성 교육목표로 설정.
(세부적인 단계별 기대역량은 교육프로그램 설계내용에 따라 차후 수립)
- 상·하반기 각각 250명으로 연간 500명 정도 인재 양성

○ 혁신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설계 검토

- 점진적인 독립모델로 가되, 해외 소프트웨어 혁신교육 모델은 충분한 장단점 비교분석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결정 (예: 42 모델은 라이선스 도입국 방문도 검토)
- 해외 프로그램의 경우 문화나 기업생태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내 기업생태계와 연계된 커뮤니티 구성도 중요
- 2년차 프로그램은 교육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트랙 마련(예: 기업 교육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한 취업트랙, 창업트랙, 전문개발자 트랙 등)
- 교육생 수준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고려

○ 교육생 선발

- 선발 대상: 나이 불문으로 추진하여 동등한 기회 제공
- 선발 인원: 공정성만을 강조하지 않으며, 뽑을 만한 인재가 없으면 일부러 채우지 말고 다음 기수에 좀 더 뽑는 방식으로 진행
- 캠프형 전형: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진행방식에 대한 아이디어 수렴 추진(예: 전국 주요도시에서 다발적 진행으로 선발하여 참여율 향상 및 홍보효과)
- 졸업 조건: 성과추적조사 의무화, 졸업 후 자발적 기부프로그램 도입 등 검토

2019년 5월 8일, 설립추진단은 4차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 리모델링 기본구상 결과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이동 동선 고려 필요(휠체어 이용 편의성 제공)
- 미디어파사드는 유지관리의 어려움 및 비용대비 효과가 적을 수 있어 자연 친화적인 입면 디자인 또는 그래픽 디자인 등으로 대체방안 검토 필요
- 실습을 위한 소규모 테스트룸(예: 3D 프린팅 등) 필요(디지털혁신파크 내 디지털 시민랩을 함께 활용 예정)
- 운영사무실, 휴게공간, 멘토 사무실 등 위치 조정 검토(운영사무실 1층 → 5층 등)

○ 비영리 재단법인 정관(안)

- 임직원의 겸직활동 관련 규정 논의

(1안)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 영리활동 제한	(2안) 포괄적으로 학장의 승인을 얻어 활동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적인 목적이거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제한되며, 간헐적인 활동은 가능함 ● 국가기관이 아니기에 국가공무원 준용 등 용어 사용은 재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 문구를 넣을 경우 활동에 제약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임직원은 풀타임 근무이기 때문에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활동 제한이 필요할 수도있음

- 혁신적 기관을 준비하는 만큼 채용 형태 또한 각 이코노미(Gig Economy) 시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채용 고려 필요(유튜버 활동 가능여부 등)
- 변호사 의견: 정관에서는 폭넓게 명시하고, 내부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 제안

○ 학장 선발 원칙 검토

- 전문성과 공정성을 만족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예시① 서류심사는 블라인드로 전문성 강조하되 상피제 완화, 면접심사는 상피제 강화
- 예시② 면접 심사는 속기사 대동하여 녹음 및 녹취하여 공정성 확인
- 예시③ 심사위원과 지원자 모두가 상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
- 설립추진단 위원 중 지원자가 발생할 경우, 설립추진단 위원의 선발전형 참여 배제는 충분히 검토해 보았으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취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학장을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립추진단 위원이 일부 포함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요청
-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더 많은 관심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및 위원별 활발한 홍보활동 요청

○ 홍보 계획

- 홍보 기획과 실행을 분리할 수 있으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며, 동시 진행 시 정확한 성과평가기준(KPI) 제공 필요
- 컨셉트 홈페이지 우선 제작 필요

2019년 5월 22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시설 리모델링 추진현황 검토를 위한 인프라분과 2차 회의가 아래와 같은 의제로 진행됐다.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시설 리모델링 추진현황 보고

- 리모델링 기본구상 최종 결과발표

○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추진 방법, 향후 추진일정 등 검토

2019년 6월 26일, 설립추진단은 마지막 5차회의를 갖고 2019년 7월 2일, 재단 창립 총회 준비를 위한 재단설립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안을 확정했다.

○ 재단 설립 신청 서류

- 설립 취지서
- 법인 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 기본재산
- 설립절차
- 사업계획서
- 기타 재단 규정 등

3) 재단 설립과 창립총회

2019년 7월 2일, 재단법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창립 발기인 총회가 열렸다. 이날 창립 발기인 총회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음과 같이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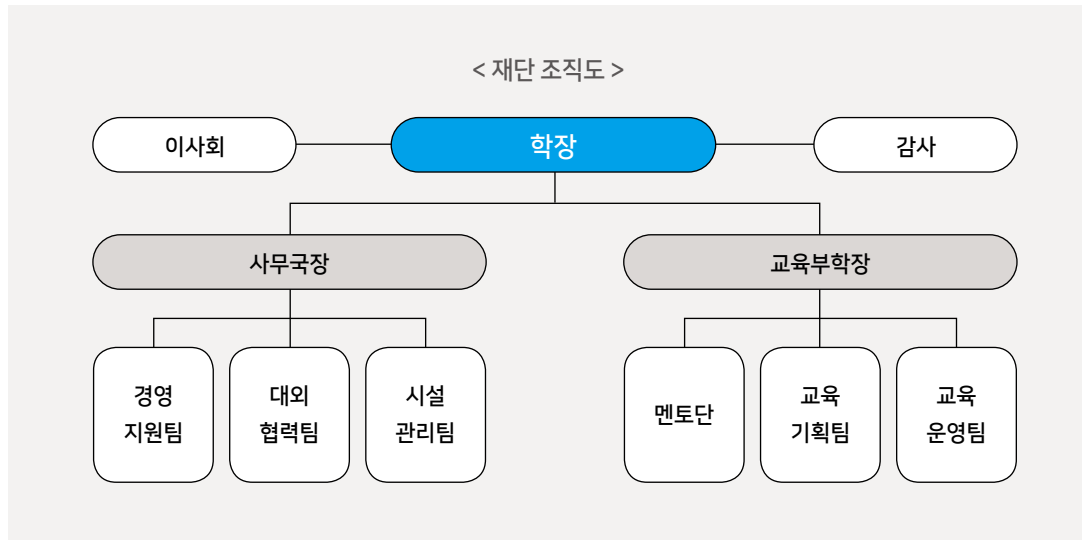
○ 재단 설립 취지서 내용

- 사업 추진 배경: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으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프로젝트 및 자기주도 학습 등 혁신적 방법을 통한 최고급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시급성을 인지하여,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한다.
- 사업 추진경과: 2018년 8월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상정 안건(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으로 추진, 2018년 8월 국무회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수행한다.
- 법인 설립근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 전문인력의 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0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익재단 법인으로서 (재)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한다.¹⁾
- 법인의 사업내용: (재)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정부에서 위탁 받아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지원 ▲우수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의 국제적 협력 촉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 법인의 조직 : (재)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경영지원팀, 대외협력팀, 시설관리팀, 멘토단, 교육기획팀, 교육운영팀을 구성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및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 및 운영한다.
- 법인의 운영재원 : (재)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 등으로 조달한다.
- 기대효과: (재)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국내외 잠재력 있는 인재를 대상으로 혁신적 및 능동적 자기 주도학습 교육을 통한 세계 수준의 소프트웨어 핵심인재를 양성하여, 혁신 성장 선도 사업 분야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한다.

¹⁾공익법인으로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법인의 목적 및 사업 범위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아 추진 연기

○ 법인의 조직

창립 정관에 정의된 법인의 조직은 1국, 1부, 5팀 1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립 정관에 정의된 임직원 정수는 총 40명이다.

< 재단 임직원 정수 및 업무내용 >

구 분		인원	업무내용
학 장		1	●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 처리
교육부학장		1	●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
사무국장		1	● 직원 관리 및 재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
멘토단		10	● 교육생 교육지도 및 커리큘럼 개발 등
경영 지원팀	팀장	1	● 재단의 경영, 운영, 회계 등 관련 제반 업무
	직원	4	
시설 관리팀	팀장	1	● 재단의 시설관리, 정보서비스 등 관련 업무
	직원	4	
교육 기획팀	팀장	1	● 교육 계획,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 관련업무 ● 교육생 선발계획, 해외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업무
	직원	5	
교육 운영팀	팀장	1	● 학생선발 및 멘토선발 등 운영 관련 업무 ● 교육프로그램운영, 학생지원, 학사관리 등 관련 제반 업무
	직원	5	
대외 협력팀	팀장	1	● 교육프로그램 홍보 및 대외협력(기업협력 등) 관련 업무
	직원	4	
합계		40	

○ 일정과 연도별 사업 예산

향후일정(안)은 ▲2019년 8월 : (재)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무국 구성 및 운영 ▲2019년 9월 ~ 10월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2019년 11월 ~ : 교육기관 개소, 교육생 발대식 및 교육실시 등이다. 연도별 예산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도별 예산 및 사업내용(안) >

구분	1차년도(2019년)	2차년도(2020년)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1기 교육생 선발 및 교육(52.9억)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시설 관리, 전산장비 구입 등 교육 인프라 구축(44.8억)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재단법인 운영(33.3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2기, 3기 교육생 선발 및 1기~3기 교육(130.9억)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시설 관리, 전산장비 구입 등 교육 인프라 구축(51억)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재단법인 운영(66.3억)
소요예산	정부 131억 원	정부 248.2억 원

2019년 7월 23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허가번호 제2019-10-0025호)를 받았다. 법인설립 허가증에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지원, 우수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의 국제적 협력 촉진,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 라고 재단 설립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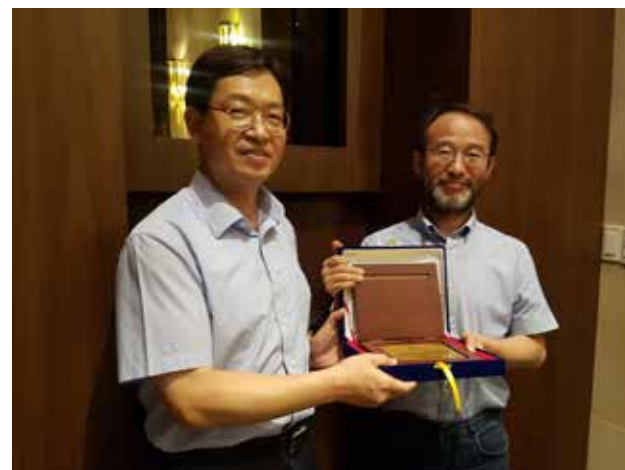
< 재단 창립정관 구성 및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총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 재단은「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11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및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범위<ul style="list-style-type: none">1.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지원2. 우수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의 국제적 협력 촉진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4.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 재단은 과기정통부장관 승인을 얻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임원 및 직원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의 정수 : 이사장 1인, 학장 1인, 이사 12인 이내(이사장, 학장 포함), 감사 1인※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는 2인이어야하나, 주무관청의 승인 시 변경가능한 사항으로 사전 협의 진행 예정● 임원의 선임 :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 과기정통부장관 승인<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연직 이사 : 학장, 기획재정부의 담당국장, 과기정통부의 담당국장, 서울특별시의 담당국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이사장 : 이사장은 이사 중에 선출● 임원의 임기 : 이사 2년(연임가능), 학장 3년(1년 단위 연임가능)● 임원의 신분보장 : 법령, 정관 의결 위반, 재단에 손실 초래,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임되지 않음
	학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장은 재단을 대표함, 선임절차 및 방법은 이사회에서 의결● 공개모집,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과기정통부장관 승인● 학장 해임관련 : 학장은 재단 자체 및 종합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재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학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장관 승인 필요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겸직제한 : 재단 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종사 제한됨. 단,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학장, 학장의 허가를 받은 직원은 겸직 허용. 영리 목적의 업무범위는 별도 규정 제정 예정● 파견지원 :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이사항은 없으나, 공익법인법에 따라 문구 명시● 이사회 소집 7일 전까지 목적, 개최일시, 장소 통지 의무● 서면결의 불가● 회의록 작성 시 의장, 출석이사 2인 이상, 감사 서명 또는 기명날인
재산 및 회계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재산의 관리, 운영재원 등 명시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분: 목적사업 회계, 수익사업 회계● 수익사업 회계: 기업회계방식 처리● 정부 회계연도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제출, 잉여금 처리, 회계감사
보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의 변경, 재단 해산 및 공고 방법
부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일, 사업연도, 사업계획, 경과조치 등● 설립당시의 임원임명<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 : 초대 이사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 이사가 동시에 만료되지 않도록 임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분리- 학장 : 초대 학장은 과기정통부 장관 임명

(재)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창립 정관은 ▲ 제1장 총칙: 법인 명칭, 설립목적, 소재지 및 사업 범위 ▲제2장 임원 및 직원: 임원의 선임·임기·직무 및 직원 관련 사항 ▲제3장 이사회: 이사회 기능·구성 및 회의 관련 사항 ▲제4장 재산 및 회계: 재산구분, 회계원칙, 예·결산 등 ▲제5장 보칙: 정관의 변경, 재단 해산 및 공고 방법 등 ▲부칙: 정관 시행일, 경과조치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추진단 해단식

2019년 8월 28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추진단은 공식적인 해단식을 거행했다. 해단식에는 이봉규 교수, 김승일 소장, 김인겸 대표, 김정 대표, 김학용 교수, 윤대균 교수, 장영승 대표, 이민석 학장, 서울시 김태희 국장, 김용진 교수 등 설립추진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신준우 단장, 민승현 팀장 등이 참석했다.



추진단 해단식



3. 학장 선임

1) 설립추진단의 최초 논의 내용

설립추진단이 학장 선임과 관련하여 최초로 논의한 내용은 ▲학장 공모 운영 방안 ▲학장 임기 및 역할 ▲모집방법 및 선발 기준 ▲채용 조건 ▲선임절차 등 총 5가지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장 공모 운영 방안

초대 학장 선임절차 및 방법은 설립추진단에서 의결하여 정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향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설립추진단 민간위원 중 학장 출마 희망자가 있을 경우, 당사자를 제외한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모집 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학장 임기 및 역할

학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가능) 학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하고, 그 직무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대표하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모집방법 및 선발 기준

학장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모집공고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추진단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시, 모집공고는 임원추천위원회 명의로 하고 학장모집과 관련한 사무처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혁신인재팀에서 담당한다.

○채용조건

교육생의 인재상처럼 학장의 인재상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초대학장의 연봉 등 처우는 설립추진단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관용차 등 불필요한 혜택을 제외하고, 인센티브 포함된 연봉으로 상한액을 검토한다. 연봉협상을 위해 지원서에 희망연봉을 기재하도록 한다. (연봉 예시: 현 연봉의 1.5배 / 최대 2.5억 등) 학장은 비영리재단법인 설립과 동시에 임명을 추진한다.

○선임절차

선임절차와 관련해서는 ▲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위원회 개최 ▲면접전형위원회 개최 ▲신원조회 ▲임명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2) 학장 초빙 공고

학장 초빙공고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고지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9년 4월 30일 등록되었다.

○공모직위 및 임기

- 공모직위: (가칭)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1명)
- 임기: 임명일로부터 3년(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채용형태 및 처우

- 소속: 설립 예정인 비영리 재단법인 소속(비영리 재단법인은 2019년 6월 중 설립 예정)
- 보수수준: 연봉은 별도 협상에 따라 지급(지원서에 희망연봉 기재)
- 주 근무지: 서울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 세부 직무내용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대표로서 활동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운영 전략 수립 및 중장기 방향 제시
- 미래 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 교육 방법의 설계 및 운영
- 국내외 기업, 기관, 커뮤니티 등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다른 구성원과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활용

○ 응모 자격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인재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리더십과 실천력을 갖춘 분 (전문성, 리더십)
- 소프트웨어 혁신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교육관과 인재상을 제시할 수 있는 분 (혁신성, 교육철학)
- 소프트웨어 분야의 최신 기술, 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 활발하게 소통 가능한 분 (소통능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제1항 각호에 해당 없는 분
- 그 외 성별, 국적, 학력 및 경력 사항에 대한 지원 자격 제한 없음

○ 제출서류

- 지원서, 이력서,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 직무수행 계획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발전 및 운영방안에 대한 소견 포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확장 초빙 공고

3) 학장 선발 심사 과정 및 선발

2019년 6월 8일, 학장 선발 심사를 위한 서류전형위원회가 열렸다. 서류전형위원회는 서류전형 결과, 5명의 면접전형 대상자를 선정했다. 2019년 6월 14일, 면접전형을 실시했으며, 면접전형은 후보자 발표 15분, 질의응답 30분 내외로 진행했다. 면접전형위원회는 면접전형 결과, 최종 3인의 지원자를 학장 후보 추천 대상으로 선정했다.

2019년 6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인의 후보자 중 국민대학교 이민석 교수를 초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으로 최종 선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7월 23일 재단법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허가를 한 뒤, 2019년 7월 25일 국민대학교 이민석 교수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3년이다.

국민대학교 이민석 교수는 2019년 7월 31일자로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교수직을 휴직하고, 2019년 8월 1일 재단법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2019년 8월 9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창립 이사회에서 보고 및 의결 안건으로 '학장 경영계약서'를 의결했다. 이민석 학장은 2019년 12월 21 개소식과 함께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리모델링한 현재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소개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 선정 결과



학장 집무실에서 이민석 학장



2019년 9월 16일, 첫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직원들이 첫 출근 후 이민석 학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 이사회

1) 이사회 역할 및 구성

재단 이사회는 재단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재단의 학장을 포함하여 정부 유관부처(당연직)와 학계, 산업계, 연구계를 대표하는 12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되었다.

2) 창립총회

2019년 8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룸에서 이사 12인과 감사 1인 등 모든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의 창립총회가 열렸다. 창립총회에서는 이사회 이사장 선출과 재단의 주요 규정 및 사무국 직원 선발계획을 확정하여 재단 운영의 기초적 발판을 다지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창립 이사진 명단 >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임기
재단법인 (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	이민석	당연직
학계 (3)	목포대학교	명예교수	고석규	2년
	연세대학교	교수	이봉규	2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안상현	1년
산업계 (3)	비트컴퓨터	회장	조현정	2년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전무	이미란	2년
	삼성 상생협력아카데미	그룹장	조남채	1년
연구소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김명준	1년
감사 (1)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 부회장 (퇴직)	나봉하	2년
당연직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노경원	당연직
	기획재정부	국장	성일홍	당연직
	서울특별시	국장	김태희	당연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석제범	당연직

창립 이사회



3) 제2회 이사회

제2회 이사회는 임시 이사회로 설립 초기인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창립총회 개최 한 달여 후인 2019년 9월 20일, 서울 밴타고 서비스트 오피스에서 열렸다. 제2회 이사회에서는 사무국 직원 채용결과 및 학장 경영 성과 계획서 보고와 교육프로그램 기획(안) 및 멘토 운영(안) 등 재단 사업운영에 있어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재단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침과 학습 철학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였고, 멘토단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외에도 감사의 직무에 대해 조금 더 구체화하여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재단의 설립연도인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사업목표 및 시스템 구축 등 핵심 사업내용에 대해 논의하여 재단 사업 운영의 큰 틀을 마련했다.

4) 제3회 이사회

제3회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로 2019년 11월 21일, 서울 밴타고 서비스트 오피스에서 개최됐다. 제3회 이사회에서는 정기이사회에서 다루는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였고, 제2차 사무국 직원 채용결과와 멘토 선발계획 보고가 있었다. 특히 2020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의 방향성, 브랜딩 홍보에 대한 이사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외에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식 계획과 2019년도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른 일부 사업비 이월을 함께 논의했다.

5) 제4회 이사회

제4회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로 2020년 2월 21일, 재단 내 새롭관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제4회 이사회에서는 정부 유관부처의 정기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이사진 구성의 변경에 대한 보고와 신임이사 선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3차 및 4차 직원 추가 채용결과와 42서울 프로그램의 1기 1차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사진들이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및 추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해 검토하기로 논의했다.

6) 제5회 이사회

제5회 이사회는 임시 이사회로 2020년 6월 30일, 재단 내 새롭관 지하 1층 오픈스튜디오에서 개최되었다. 2020년도에 진행된 제1~3차(사무국장, 멘토, 일반직) 채용결과 보고와 비상근 멘토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의 멘토단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42서울 교육인원 증가에 따라 임시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서초센터(2nd Planet) 설계 및 공사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추진하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인 프로젝트-X(Project-X)의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창립 이사진 중 3인의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선임하고 이사 정족수를 기존 12인에서 14인으로 확대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추가로 제4회 이사회에서 보고한 비상임이사 1인의 사임에 따른 신임이사 선임을 원안 의결했고,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 복무규정의 정비를 위한 개정(안)에 대한 이사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안 의결했다. 다만, 직제규정의 경우 교육기관이라는 재단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논의를 더 거친 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기타 사항으로는 42서울의 2020년도 상반기 운영실적과 재단의 중장기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5. 조직구성

1) 구성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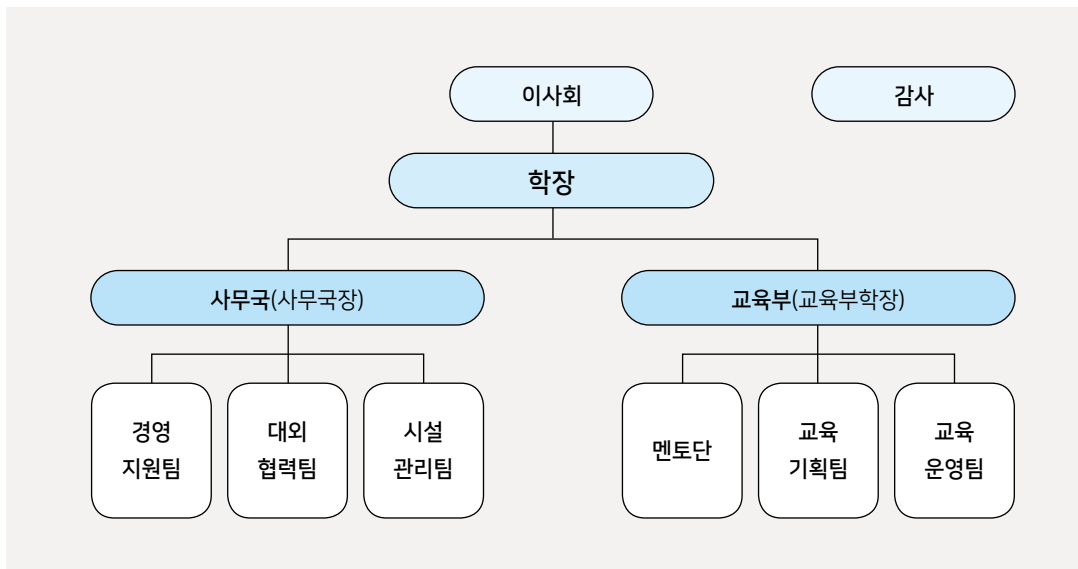
재단의 조직구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재단 설립을 위해 구성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추진단' 첫 회의에서 시작됐다. 2019년 3월 6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추진단은 첫 회의를 열고 사무국 구성과 직원채용 안건을 논의했다.

2019년 6월 26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추진단은 5차 회의에서 재단의 조직구성 및 상근 임직원 정수를 최종 논의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으로 국민대학교 이민석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2019년 7월 2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추진단은 재단 창립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재단의 조직을 학장을 중심으로 1국 1부 5팀 1단으로 구성을 확정 의결했다. 2019년 8월 9일, 재단은 당연직 이사 5명, 비상임이사 7명, 감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단 업무를 시작했다.

재단의 임직원 정원은 총 40명이다. 2019년에 4차례 공개모집을 통해 19명을 채용하여 부서별 업무 배정을 하였고, 2020년에도 4차례의 공개모집을 통해 추가인력을 보강했다. 2020년 10월 현재, 재단은 학장을 포함한 23명의 정원 내 인력과 7명의 정원 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정원 40명의 57.5% 수준이다.

재단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2) 사무국 주요 업무

- 비영리 재단법인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정관에 따른 모든 업무의 수행
- 법인으로서 정체성 유지에 필요한 업무, 법인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 법인 예결산 총괄, 감사 지원 업무, 정관에 규정된 하부 규정 및 규칙 제·개정,

- 정부 유관부처를 포함한 국내외 외부 기관과의 협력
- 인적자원 확보 및 직원 운영
- 각종 계약 절차의 확보 및 수행
- 교육생 교육공간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
- 교육 기자재 구입 및 관리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비전과 미션 및 로드맵, 소프트웨어개발자 생태계 변화 예측에 따른 장/단기 언론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주요 사업 보도자료 작성 및 기획 콘텐츠 기사 작성
- 미디어 및 파트너사와의 제휴 프로젝트(PPL, 협찬 등) 기획 및 진행
- 캠페인 전략 수립과 기획, 실행 및 분석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
- 오프라인 홍보물(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소개서, 브랜드 상품) 기획 및 제작

3) 교육부 주요 업무

- 모두에게 열린 학습 역량 중심의 선발 과정
- 협업 기반의 'Peer to Peer' 평가 및 역량증진 시스템
-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시스템
- 소프트웨어개발자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 투명한 운영과 공개를 통한 교육시스템 확산

교육부의 핵심업무는 혁신성장 선도 분야의 국내외 인재를 대상으로 혁신적 및 능동적인 자기 주도 학습 교육을 통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과 교육시스템 확산이다. 2021년도에는 교육생들에 대한 더욱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양질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내부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인재양성의 능력을 더욱 향상할 예정이다.

6. 개소식

1) NEW WAY X NEW DAY

2019년 12월 20일, 서울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열림관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개소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개소식이 열렸다.

개소식은 이민석 학장을 비롯하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 주한 프랑스대사, 석제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등 정부기관 및 산업체 관계자와 42서울 교육생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재단법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이 코딩 스튜디오와 오픈 스튜디오 등 공간 투어를 하면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공식적으로 처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NEW WAY X NEW DAY'라는 슬로건 아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식 본 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후 이민석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의 환영사, 비전 스피치와 함께 참여자 모두가 함께한 오프닝 퍼포먼스로 마무리했다.

2) 오프닝 퍼포먼스(YOUR NEW WAY)

오프닝 퍼포먼스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힘찬 시작과 함께 교육생의 새로운 미래, 길이 열린다는 뜻으로 'YOUR NEW WAY'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했다. 무대 스크린에 웹 페이지로 접속 가능한 QR코드를 송출하면, 참석자들이 카운트 다운에 맞춰 동시에 버튼을 터치하여 파이널 영상을 함께 재생했다. 파이널 영상은 개소식 전, 모든 참석자에게 전달받은 프로필 사진들이 하나의 화면에 구성되도록 제작하여 개소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과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를 더했다.

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현판식
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오프닝 퍼포먼스(YOUR NEW WAY)



3. 환영사 중인 이민석 학장
4.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열림관에서 진행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식





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식 축하 포토월
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식 축하 푸드 트럭

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식 교육생 간담회에서 교육생을 격려하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4.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식 교육생 간담회 단체 사진

3) 교육생 대상 이벤트(포토월, 푸드트럭)

교육생들은 개소식 후, 운동장에 마련된 푸드트럭에서 음료 및 간식을 먹은 후 자유롭게 교육 공간을 투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에 마련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식 축하 포토월 인증샷, 본 행사 현장 사진, 공간 사진 등을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물 증정 이벤트도 가졌다.

4) 교육생 간담회

개소식을 마친 뒤,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마루관 1층 카페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공주 대통령정책실 과학기술보좌관, 석제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이민석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 멘토 등이 교육생 10여 명과 함께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식에 참석한 예비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교육생들로부터 소프트웨어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생 간담회는 사회자를 두지 않고 질의응답 형식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기존 교육에서 받지 못했던 새로운 교육에 대한 기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바라는 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된 동기나 포부 등 솔직한 의견을 이야기했다.

5) 개소식 홍보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비전을 선포하고 공간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인 만큼 사전, 현장, 사후로 나누어 홍보를 진행하였다.

○ 사전 홍보

초대장 발송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교육 분야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개소식 초대장을 발송하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 일정과 행사 개요를 전달했다.

언론사 초청 : 언론사를 대상으로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 취재 요청을 의뢰했다.

소셜미디어 팔로워 초대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공식 소셜미디어에서 개소식에 참여하고 싶은 팔로워 초대 이벤트를 통해 홍보를 진행했으며, 참여자 200여 명 중 50명을 초대하였다.

○ 현장 홍보

현장스케치 소셜미디어 업로드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공식 소셜미디어에 개소식 및 공간 사진, 비전 선포 메시지와 현장스케치 사진 등을 업로드하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켰다.

언론사 취재 지원 : 언론사가 개소식 및 교육 공간 취재와 인터뷰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취재를 지원하고, 기자 대기 장소 및 현장에서 기사를 송고할 수 있도록 사무용 탁자와 무선공유기인 예그 등이 갖춰진 기자실을 마련하여 현장 취재를 지원했다.

○ 사후 홍보

보도자료 배포 : 2019년 12월 23일 조간으로 개소식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 25개 언론사에서 개소식을 보도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식 개최
언론 보도(2019.12.20. 연합뉴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
언론 보도(2019.12.20. IT조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식 초대장

7. 공간 소개



1) 교육 공간 개요

재단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디지털혁신파크(약 5,000평 규모) 내 새롭관 5개 층 및 마루관 5개 층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교육공간으로 2019년 12월 20일 개소했다.

새롭관 건물은 교육생 전용공간으로 24시간 365일 개방하여, 교육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온전히 집중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마루관 건물 2, 3층에는 직원 사무 공간을, 4, 5층에는 교육생 남녀 휴게실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42서울 교육인원 증가로 인해 임시 교육 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2020년 9월부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임시 교육 공간을 마련했다. 재단은 임시 교육 공간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두 번째 행성이라는 의미를 담은 '세컨드 플래닛'으로 명명하고, 42서울 3기 1차부터 1개월 집중교육(La Piscine)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2) 교육 공간

(1)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오픈 스튜디오(새롬관 1층)



새롬관 1층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으로 열린 공간에서 교육생들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테크 세미나, 기업협력 프로젝트 특강, 교육생 자치활동, 해커톤 등 교육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오픈 라운지(새롬관 1층)



새롬관에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 교육생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방문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다. 당초에는 'Welcome Space, Meetup'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학습 공간 수요가 늘어나 추가 테이블을 설치, 교육생들이 노트북을 지참하여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코딩 스튜디오(새롬관 2층, 4층, 5층)



새롬관 3개 층에는 교육생들이 42서울의 학습관리 시스템(LMS)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학습을 할 수 있는 코딩 스튜디오 공간을 마련했다. 1개 층마다 컴퓨터 143대를 설치해 코딩 스튜디오로 활용하는 새롬관 3개(2층, 4~5층) 층에는 총 429대의 컴퓨터가 설치돼 있다.

코딩 스튜디오 내에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 중에 동료와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회의 테이블을 설치하였다. 또한 층별로 정수기와 개별 텀블러 보관대, 사물함 등이 비치된 오아시스 존이 마련되어있다.

유튜브 스튜디오(새롬관 1층, 2층)



유튜브 스튜디오는 교육생들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특히 영상, 방송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42서울 교육생들이 만든 방송 동아리 '42 CODEC'에게 스튜디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육생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커뮤니티, 교육기관 등에 공간과 장비 사용을 지원하여 관련 분야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회의실(새롭관 1층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자료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들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학습에 참여하여, 학습한 내용을 동료나 커뮤니티와 소통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총 3개의 회의실이 마련되어있다. 회의실 명칭은 한국의 4대 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장 큰 대회의실은 경복궁, 소회의실은 각각 덕수궁과 창경궁으로 이름 지었다. 대회의실 경복궁은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어 교육생과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과의 회의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의실 옆에 위치한 자료실은 교육생과 직원들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도서들을 비치하여 대여하거나 자료실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현재는 42서울 교육생들이 만든 독서 동아리 '42 집현전' 교육생들이 자체적으로 도서대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및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옥상 정원(새롭관, 마루관 옥상)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옥상 정원은 잘 가꾼 미니 정원과 작은 휴게 공간으로 구성되어있다. 옥상 정원에서는 분당선 지하철 개포동역 옆으로 뻗은 양재천과 개포서근린공원의 전경을 관람할 수 있어 온종일 모니터 앞에서 학습하는 교육생들에게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할 예정 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에 따라 2020년에는 옥상 정원을 개방하지 않았다. 추후 활용이 가능할 때부터 교육생들에게 공간을 개방할 예정이다.

멘토 라운지(새롭관 3층)

멘토 라운지는 교육생이 원할 때 언제든지 멘토에게 찾아와 소통하고 학습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약 10명의 인원이 회의할 수 있는 큰 테이블과 작은 테이블을 설치해 교육생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멘토 사무실(새롭관 3층)

멘토는 교육생과 산업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생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내용이 현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직접적인 조언과 상담하는 역할을 한다. 재단은 멘토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만의 소프트웨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멘토 사무실 공간을 만들었다.

직원 사무공간, 휴게실(마루관2~5층)

그 외 마루관 2~3층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직원 사무 공간이 있고, 4~5층에는 각각 남녀 샤워부스와 간이침대가 설치된 휴게 공간이 있다. 다만 옥상 정원과 같이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에 따라 휴게 공간을 개방하지 않았다.

(2) 세컨드 플래닛

클러스터



세컨드 플래닛은 개포동 교육 시설 증축 완료 전까지 교육 인원 증가에 따라 42서울 1개월 집중교육(La Piscine) 공간 확보 목적으로 구성된 임시 교육 공간이다. 따라서 대부분 컴퓨터가 설치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42서울 교육생이 온라인 테스트 통과 후 처음으로 방문하는 곳인 만큼 컴퓨터가 설치된 학습 공간을 전 세계 42캠퍼스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명칭인 클러스터로 이름을 지었다.

기타 공간(회의 테이블, 사무 공간, 휴게 공간 등)



동료 학습이 특징인 42서울 교육 철학에 따라 클러스터 자투리 공간에 교육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회의용 테이블을 비치한 학습 공간을 마련했다. 그 외에 직원들을 위한 사무 공간과 간이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다.

제2장 운영

혁신교육을 위한 환경

1.환경 준비

2.기관운영

제2장 운영_ 혁신교육을 위한 환경

1. 환경준비(개포/서초)

1) 서버 구축

서버 인프라는 에꼴42 교육시스템의 핵심요소 중 하나다. 가르치는 교수가 없는 에꼴42 교육의 특성상, 교육생은 교육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데, 서버 인프라는 교육시스템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빼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재단은 2019년 10월 1일 에꼴42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후, 에꼴42는 교육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드웨어 장비 관련 정보를 보내왔다. 재단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춰 장비 구매에 들어갔다. 연간 1,000명의 교육생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구매해야 할 장비의 수량은 총 500여대에 달했다.

재단이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매해야 할 장비는 클라이언트 PC 454대, 서버 10여대, 네트워크 장비 40여대 등이었다. 또한 에꼴42의 교육시스템에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된 최적화 장비들로 인해 소요기간은 구매 발주에 들어간 시점부터 최소 7~8주 정도가 필요했다.

재단의 모든 장비구매는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됐다.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조직에 걸맞게 업무추진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구매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후 계약자 선정까지는 최소 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장비 수급에 필요한 7~8주를 고려하면, 장비구매는 결국 공고일부터 약 10주의 기간이 필요한 셈이었다. 여기에 통신시설 공사와 재단 사무실 개소식, 에꼴42의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문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2019년 9월 사무국이 구성된 것을 고려하면, 이 모든 일정을 소화하기에 굉장히 빠듯하게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재단 사무국 구성을 시작으로 3개월여 만인 2019년 12월 하드웨어 장비 구축을 완료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재단 직원들의 긴급대처로 차질없이 계획대로 장비 구축을 완료했다.

< 교육시설 학습플랫폼 서버 구축 입찰 공고문 >

입찰명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시설 학습플랫폼(LMS) 서버 구축
추정금액	일금 삼억사천일백만원(341,000,000원, VAT 포함)
처리물량	[붙임1] 구매사양서 참조
입찰방법	전자입찰(일반, 총액, 적격심사)
입찰공고(긴급)	2019년 10월 28일(월) ~ 2019년 11월 4일(월) 16:00까지
개시일시 / 장소	2019년 11월 4일(금) 17:00 / 재단 사무국 계약담당당자 PC
납품기간	2019년 12월 13일(금) 까지 *지정장소는 리모델링 공사 진행예정으로,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납품장소	지정장소(개포디지털혁신파크 새롭관, 마루관 내)

재단은 에콜42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 국내 실정에 맞는 장비와 가격조사 등의 시장조사를 마친 후 2019년 10월 28일 입찰공고를 냈다. 11월 4일 개찰을 통해 최저가낙찰 업체를 선정했다. 납품 기일인 11월 12일~ 13일에 일부 품목이 납품됐으나 해외제조 및 배송, 통관절차 등으로 인해 일부 품목은 납품 기일보다 2주일이 늦은 12월 27일에 납품이 완료됐다.

2020년 1월, 재단은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에콜42에서 파견된 인프라팀 3명과 재단 소속 직원 3명, 인턴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시스템 구축팀을 발족했다. 특히 그중 인턴4명은 각각 '에콜42'와 '42실리콘밸리' 교육생 출신으로 에콜42의 교육시스템을 이해하고 사용해 본 경험자들이었다. 10명의 구축 팀원은 각각 네트워크 및 서버 셋업, 클러스터 컴퓨터 설치, 보안정책 설정, 설치내용 기록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시스템 구축팀은 수시로 교육시스템 설치와 관련한 회의를 가졌다. 특히 에콜42 인프라팀은 교육공간을 둘러보며 장비의 상태와 구성을 일일이 점검하고 확인했다. 재단이 구입한 장비는 에콜42에서 제시한 규격의 장비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따라 구입할 수 없는 장비들은 다른 제품으로 대체했다. 대체된 장비에 대한 설정은 외부 엔지니어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했다.

에콜42 인프라팀이 국내에 머무는 기간은 10일이었다. 그 10일 동안 클러스터에 설치되어 있는 아이맥 429대와 서버 5대, 클러스터와 사무실, 서버실과 통신실 간의 네트워크 장비들의 설정을 완료해야 했다. 장비설정은 에콜42의 설계에 따라 진행되었다. 재단은 보안정책과 실제 교육시스템 운영계획에 따른 네트워크 구성 등을 결정했다.

인프라 구축기간 동안 재단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교육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배우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었다. 5개의 학습 서버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클러스터에 설치된 컴퓨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프랑스 에콜42에 설치된 서버와는 어떻게 통신하는지 등등 교육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것을 총망라했다.

에콜42 인프라팀과 함께



에꼴42의 교육시스템은 끊임없이 변화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효율적인 교육시스템 운영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과 실험이 에꼴42의 핵심가치이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42서울에 설치된 서버구성 가운데 일부는 에꼴42에서도 처음 사용하는 장비들이었다. 이제 막 신설된 재단 입장에서는 에꼴42도 사용해 보지 않은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었다. 그럼에도 재단은 에꼴42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에 동의했기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과감히 결정했다.

10일간 진행된 시스템 설치가 모두 끝났다. 그리고 2020년 1월 20일, 재단은 약 300명의 교육생과 함께 첫번째 집중교육(La Piscine)을 시작했다. 에꼴42 인프라팀 3명 중 2명은 프랑스로 돌아가고 1명은 42서울의 운영지원을 위해 1주일 더 머물렀다.

첫번째 집중교육(La Piscine)이 시작되고 처음 며칠 동안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직원들의 빠른 대처로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첫번째 시험 날,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서버 중 1대에서 메모리 누수 현상이 일어나 시험 도중에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 교육생들은 모두 하나같이 어리둥절하며 난감한 표정들이었다. 교육생 자신의 실수에 의한 오류인지 아니면 시스템 장애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시스템 운영 담당자들이 긴급히 응급조치에 나서 서버 장애 문제를 해결했다. 재단은 교육생들에게 서버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험시간을 재조정하고 시험을 정상적으로 마쳤다.

재단은 이와 같은 서버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조사했다. 문제의 원인은 새롭게 도입한 분산 소스 버전 관리시스템인 GIT서버의 오픈소스 솔루션에 있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솔루션을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첫번째 집중교육(La Piscine)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새로운 솔루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임시방편으로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시스템 운영 인력을 3교대로 24시간 풀가동했다. 그렇게 4주간의 집중교육(La Piscine)을 무사히 마친 후, 안정적인 새로운 솔루션으로 교체했다. 재단의 새로운 도전과 실험정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11개국 16개 42 캠퍼스에서도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맥



2) 건물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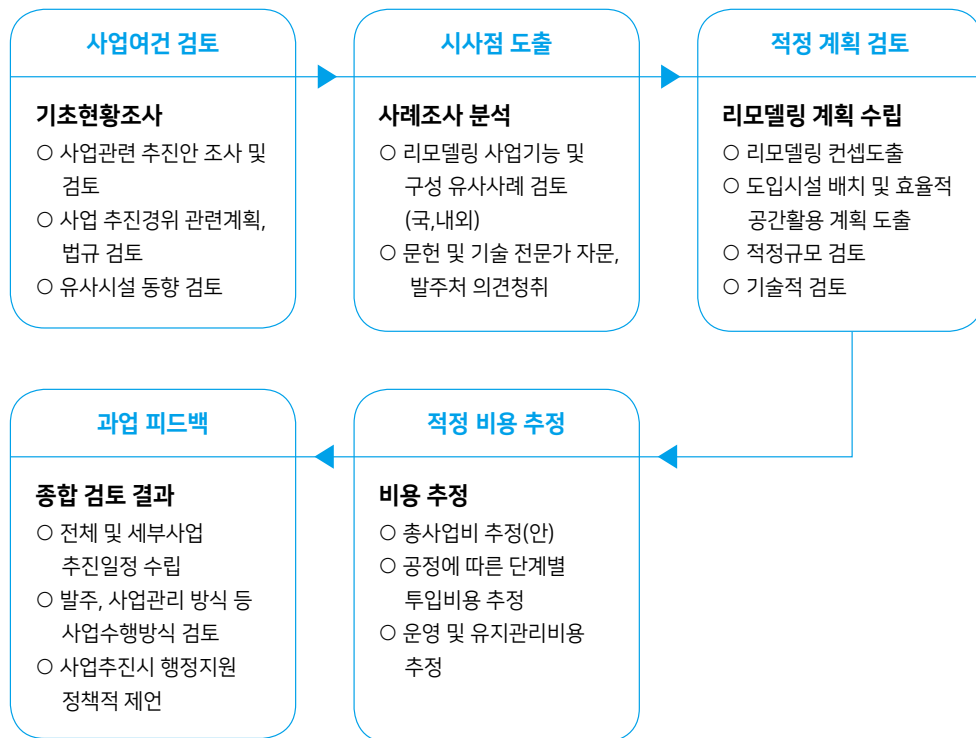
(1) 기본구상

재단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교육공간 및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연간 500여명의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재단에 5년간 무상으로 제공했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연면적 824평의 새롭관 5층, 연면적 238평의 마루관 5층 두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 구분은 교육생들의 학습공간과 직원들의 업무공간으로 되어 있다.

과거 외국인학교 건물로 사용되었던 새롭관과 마루관은 각각 1980년과 1988년에 준공된 후, 2016년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 건물 외관은 전형적인 학교 건물 형식이지만 내부는 입주업체 용도에 따라 꾸며져 있어 재단의 용도에 맞도록 내부 리모델링이 필요했다.

2019년 3월, 재단의 교육목적과 취지에 맞는 공간 조성을 위해 건물 리모델링 구상을 시작했다. 당시는 재단설립 전이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추진단' 주도아래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혁신인재팀이 행정업무를 담당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혁신인재팀은 추진단의 기본구상을 구체화시켜 줄 전문업체 선정을 위해 공공입찰을 진행했다. 공공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는 ▲기초현황 조사 ▲사례조사 분석 ▲리모델링 계획 수립 ▲비용 추정 ▲종합 검토 결과 등 5단계에 거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 과업의 수행절차 >



건물 리모델링의 핵심 콘셉트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목적인 ▲창의성(Creativity)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도전정신(Challenge) ▲융합역량(Convergence) ▲공감과 협업(Collaboration) 등 5C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공간이다.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각자의 무한한 창의력을 뿜어내기 위한 발판공간(창의성)

▲치열한 고민으로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르는 집중공간(비판적 사고) ▲각자의 도전정신으로 창조하는 공간(도전정신) ▲다양한 분야를 습득하는 공간(융합역량) ▲협업하며 서로 상생하는 공간(공감과 협업)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속적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인재들의 창의, 융합, 협업의 장이라는 콘셉트로 혁신적 교육방법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구체화시켜 갔다.

< 인재양성에 맞춘 공간 컨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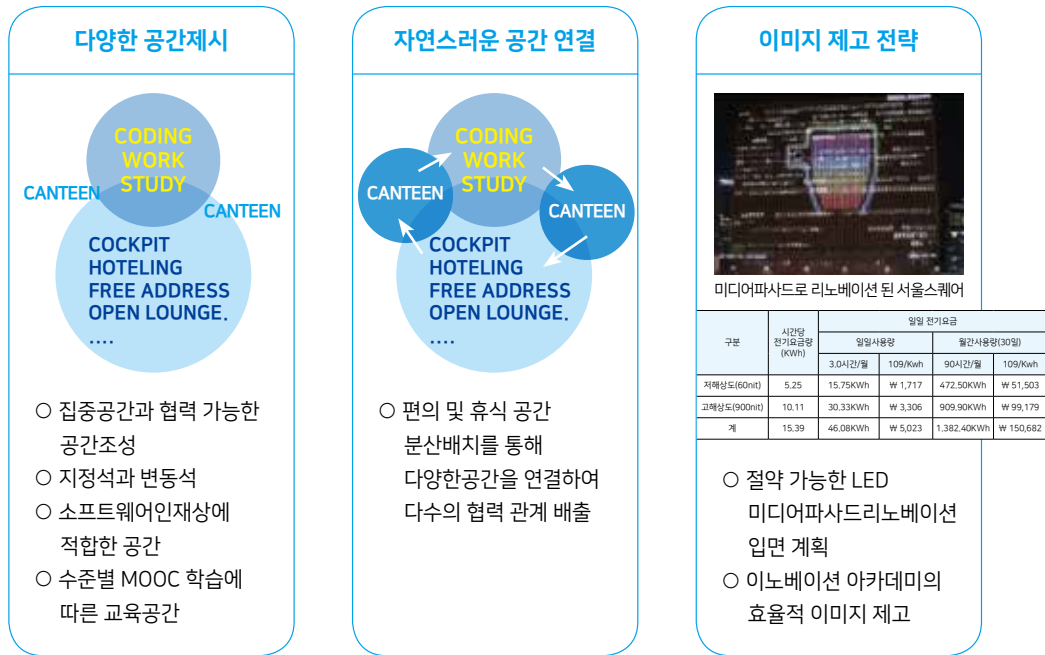


그 다음은 구체화된 콘셉트에 따른 실질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혁신인재팀은 콘셉트에 맞는 공간설계와 시공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사항부터 적정비용 산정까지 다각도로 사업의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 공간컨셉에 따른 핵심추진전략 1 >

Collaboration 공감과 협업	Challenge 도전정신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Creativity 창의성	Convergence 융합역량
공유공간 / 집중공간 / 회의공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노마드형] 공간조성 → 유연성 획득			교육 / 휴식공간 적절한 휴식과 교육 공간을 제시하여 창의력 성장을 할 수 있는 공간형성	자료 / 열린공간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 습득과 융합을 위한 공간
프리어드레스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사용하는 언제나,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유공간(HOT DESK) Hoteling 예약에 의해 계획된 일정으로 사용 가능한 협업의 공간 Cockpit Box 개인 혹은 그룹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공간 Group room 팀 업무가 가능한 회의공간 오픈라운지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회의 공간			칸틴(Canteen) 간단한 스낵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오락공간 게임기, 당구대 등 간이 놀이시설 휴식공간 루프탑 휴게공간 nap room 교육공간 모듈화 계획으로 확장 혹은 축소할 수 있는 공간	라이브러리 다양한 분야의 자료들을 검색 가능, 다양한 시각의 융합이 가능한 공간 오픈세미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열린 강연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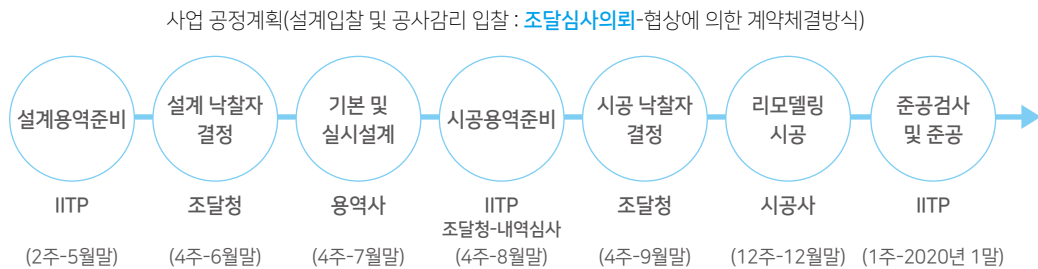
< 공간컨셉에 따른 핵심추진전략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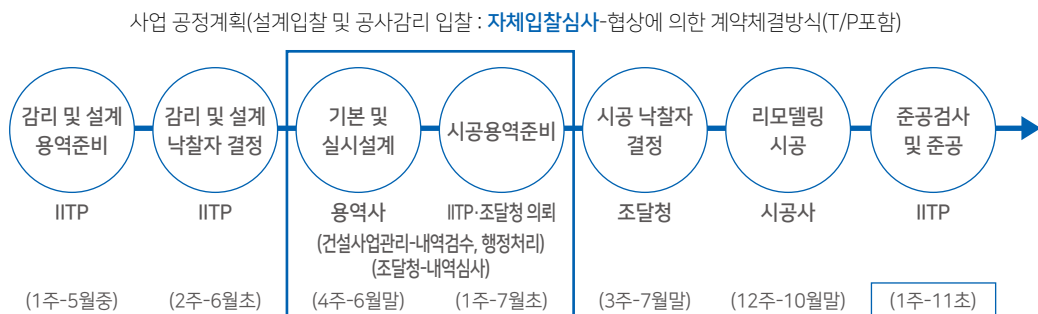
(2) 기초 및 실시설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혁신인재팀은 공간 리모델링 추진전략 수립을 마친 2019년 5월, 설계와 시공 및 감리를 위한 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약 5개월 후인 11월 초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개소식이 계획되어 있었다. 7월 중으로 업체선정을 완료해야 개소식 일정을 맞출 수 있었다.

< 사업수행방식에 따른 일정 >



※ 건설사업관리 별도 조달의뢰시 추가 소요시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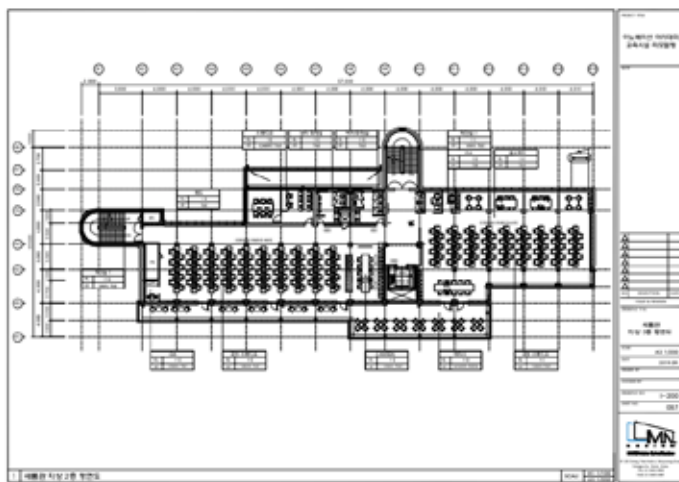
※ 건설사업관리(CM) 역할 중점 관리

※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시공자용역 준비과정 TWO-TRACK가능

※ 11월초 개원 가능

- 용역사 제안 유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자체발주 장점을 극대화하여, 공기단축을 통한 예정 개원일 준수/달성 제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혁신인재팀은 조달청의 의견에 따라 기초 및 실시설계 업체를 먼저 선정했다. 일정이 늦어진 만큼 신속하게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그리고 설계업체에는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추진단이 갖고 있는 공간에 대한 기본구상을 반영해 설계하도록 전달했다.



설계도면

(3) 리모델링 공사

2019년 9월, 재단 사무국이 구성됐다. 이때부터 재단 사무국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혁신인재팀과 함께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했다. 재단은 리모델링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개소식 일정을 12월로 조정했다. 공사일정이 조정되면서 서버와 교육용 컴퓨터 등의 납품일정 또한 변경되었다. 에콜42 인프라팀의 내한 일정도 조정했다.

9월에 리모델링 공사 설계를 끝내고 10월이 되어서야 시공업체들이 최종 선정되었다. 10월 22일 각 시공업체 담당자들이 공사현장에 모여 'kick-off 회의'를 가졌다. 매주 화요일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빠른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매일 오전 8시 아침회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재단은 시공업체들과 수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 각 부분 담당자들은 메신저, 이메일, 전화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열어 두기로 했다.

10월 23일부터 건물 내부 철거가 시작됐다. 철거에 앞서 재단은 서울시와 철거범위에 대한 협의를 이미 끝냈다. 아직 퇴거하지 않은 입주업체와 퇴거일정 협의도 마무리했다. 철거와 관련한 모든 협의가 끝나자 시공업체들은 곧바로 철거에 들어갔다. 공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사전협의를 없었던 시설물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철거가 시작되면서 재단 사무국은 시설물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했다.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처리하고 처리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등록했다.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시설물 철거를 끝낸 후,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다. 재단은 교육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설 설비를 위해 통신과 전기 시공업체와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통신공사는 에끌42가 요구한 장비와 호환성이 핵심 이슈였다. 전기공사는 학습용 컴퓨터 454대와 냉난방기가 동시에 작동할 경우, 변압기 과부하로 전기공급이 끊어질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시설계에서는 학습시스템에 대한 사양이 반영되지 않아 설비 변경이 필요했다. 통신장비의 추가발주를 비롯하여 설계와 다른 사양의 냉난방기 발주도 필요했다. 재단은 신속하게 추가발주를 위한 행정작업을 진행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혁신인재팀은 인테리어 시공업체와 커뮤니케이션했다. 인테리어 시공은 통신이나 전기공사의 사전 공정을 담당하고 있어 무엇보다 일정 관리가 중요했다. 설계도면과 현장도면과의 차이로 인한 도면변경에 대한 의사결정도 계속해서 요구됐다.

리모델링 공사가 3분의 1가량 진행되었을 무렵, 조명업체를 선정하고 조명설치 작업을 시작했다. 조명설치는 인테리어 공사와 전기시설 공사간 일정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조명설치 전에 천장마감을 진행하거나 조명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조명 위치를 선정할 경우, 조명 설치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재단은 차질 없는 공사 진행을 위해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했다.

바닥시공과 전기 시설공사가 마무리되자 가구와 학습용 컴퓨터 및 보안장비 등의 기자재가 납품되기 시작했다. 아직 마무리 공정이 남은 작업인력들이 공사를 하고 있어 기자재 이동을 위한 동선확보가 필요했다. 각 시공업체는 각 층별로 시공범위와 시간을 달리하여 동선을 구분했다. 재단 사무국은 동선을 구분하기 위해 주말과 야간시간까지 확보해 기자재를 이동하고 설치했다.

마지막 공정은 건물 내외부 사인물 설치였다. 재단의 전 임직원이 사인물 제작에 참여했다. 재단의 이미지가 명확히 반영된 디자인과 문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수시로 내부 메신저를 통해 직원들과 디자인을 공유하고, 사인물에 들어갈 문구를 논의했다. '42서울'의 브랜드에 걸맞게 서울의 4대 공이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각 회의실 명칭을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으로 결정했다. 학습공간은 프로그래밍 이름을 따서 C++, C, Swift 등으로 그 이름을 붙였다.

모든 리모델링 공사일정은 시공청소를 끝으로 개소식(2019.12.20)을 하루 앞둔 12월 19일 완료됐다. 10월 23일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은 48일만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3) 가구준비

재단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혁신 인재 양성의 산실에 걸맞은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가구 구매에 총 7억 2,4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019년 9월, 재단은 최적의 가격에 최적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내고, 조달청의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가구 납품업체는 재단이 요구하는 가구의 디자인과 내구성 등 품질과 생활 편의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유지보수가 쉬운 데다가 가구를 직접 제작하고 설치할 수 있었다.

재단은 업체와 기술협상을 통해 품질과 이용 편의성이 뛰어나고 건물 내부공간 및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는 가구를 결정했다. 그후 재단의 시설 담당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교육생과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교육 공간 구성을 위해 업체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경기도 파주와 서울의 재단 사무실을 수시로 오갔다.

2020년 12월 6일, 재단은 임직원 30여 명과 교육생 400여 명이 사용할 의자 774개, 책상 60개, 서랍장 50개, 디지털 로커 23개 등을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새롭관 및 마루관에 설치했다. 재단의 입찰공고 후, 56일 만에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혁신인재 양성에 최적화된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됐다.



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아이덴티티를 형상화한 소파
2. 교육 중 바로 회의할 수 있게 꾸민 간이 회의실
3. 개포디지털혁신파크의 교육과 직원들을 위한 작은 쉼터

4) 소방 안전

2020년 4월 22일, 재단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소방훈련은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교육이다. 소방교육은 법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등 연 2회 실시하는 훈련으로 전 임직원 참여가 필수적이다.

첫 실시된 재단의 소방교육은 시설관리팀 박대봉 매니저와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관리사무소가 맡아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순으로 진행했다.

소방교육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및 시행령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에 따라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교육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설치된 기본적인 소방시설물에 대한 설명과 사용방법, 소방시설물 위치도, 구역별 대피방법, 대피 장소에 대한 교육과 화재 발생 시 조직별 임무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실습교육은 소화기 사용법, 소화전 사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심폐소생술(CPR) 등으로 구성하였고, 직원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여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4월 22일 실시한 재단의 첫 소방교육으로 2020년 상반기 소방훈련을 마쳤다. 2020년 하반기 소방교육은 10월 서울 강남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 훈련 및 대처 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합동훈련을 취소하고 시청각 교육으로 대체하여 진행했다.



소방교육



5) 서초 - 2nd Planet

재단은 교육시설이 증축되기 전까지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임시 교육공간의 확보가 필요했다.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하고 많은 고민을 거듭한 결과 서초동의 대릉서초타워에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다. 2020년 9월 오픈한 2nd Planet은 대릉서초타워 4층과 5층을 임대 사용 중이며, 총 300석 규모의 코딩스튜디오와 인포데스크, 회의실, 오아시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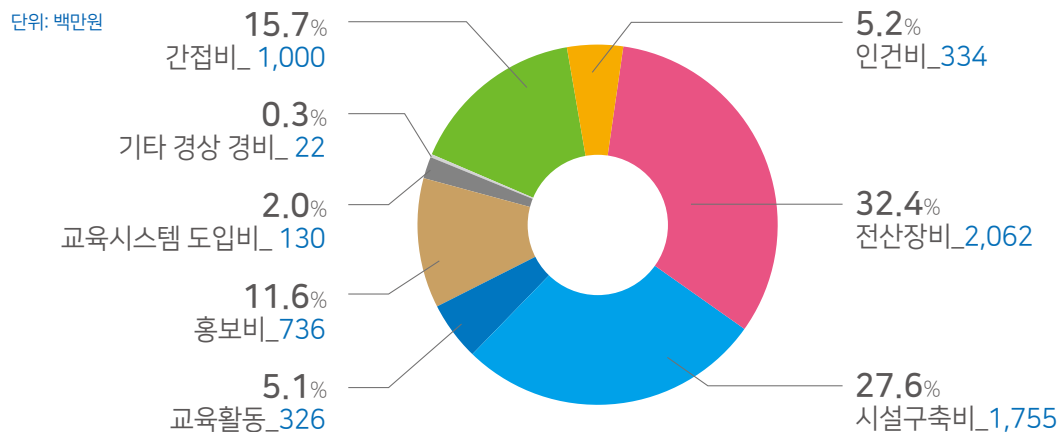


2. 기관운영

1)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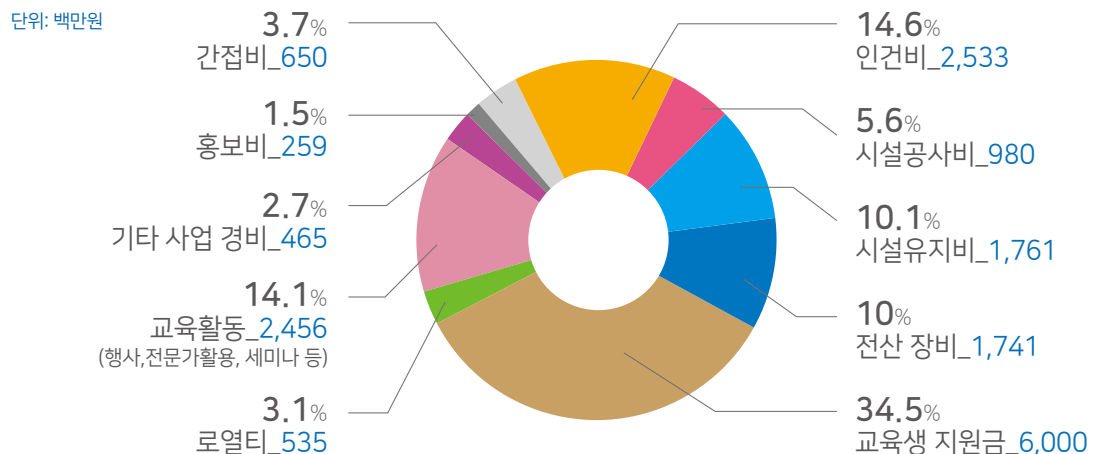
(1) 2019년

재단 설립 첫해인 2019년의 사업 기간은 총 5개월('19.08.01~'19.12.31) 이었다. 설립 첫해인 만큼 교육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예산편성이 집중됐다. 특히 연구장비 재료비에 편성된 예산은 교육용 전산장비 및 운영시스템(OS), 시설공사비 등으로 구성되었다.



(2) 2020년

재단은 설립 이듬해인 2020년('20.01.01~'20.12.31)에는 전년도 대비 인프라 구축 기간을 감안하여 교육장 및 교육 시설에 예산을 집중해 배정했다. 특히 교육생의 확충에 따라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한 별도 임대 교육장(2nd Planet) 마련 및 장비 구매 예산도 투입했다.



2) 조직구성과 변동

(1) 조직구성

재단 사무국 구성이 처음 논의된 시기는 2018년 9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혁신인재양성TF 소분과 1차 회의 때였다. 당시 회의 주제는 (가칭)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운영방안으로 주요 안건 중의 하나로 사무국 운영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2019년 3월 6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추진단은 첫 회의를 열고 교육기관장(학장) 공모와 재단 사무국 구성 및 직원채용 안건을 논의했다. 2019년 6월 26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추진단은 마지막 5차 회의에서 법인 조직구성 및 상근 임직원 정수를 최종 논의하고 사무국 직원채용 공고안을 확정했다.

2019년 7월 2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추진단은 재단법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창립 총회를 개최해 법인 조직구성을 1국(사무국), 1부(교육부), 5팀(경영지원팀, 대외협력팀, 시설관리팀, 교육기획팀, 교육운영팀) 1단(멘토단) 등으로 확정해 의결했다. 그리고 사무국 산하에 경영지원팀·대외협력팀·시설관리팀을, 교육부 산하에 교육기획팀·교육운영팀·멘토단을 두는 것으로 확정했다.

창립 정관에 정의된 재단의 임직원 정수는 학장 1명, 교육부학장 1명, 사무국장 1명, 멘토단 10명, 경영지원팀 5명(팀장 1명, 직원 4명), 시설관리팀 5명(팀장 1명, 직원 4명), 교육기획팀 6명(팀장 1명, 직원 5명), 교육운영팀 6명(팀장 1명, 직원 5명), 대외협력팀 5명(팀장 1명, 직원 4명) 등 총 40명이다.

2020년 10월 기준 재단의 임직원 수는 학장 1명, 사무국장 1명, 경영지원팀 5명, 시설관리팀 2명, 교육기획팀 4명, 대외협력팀 2명, 교육운영팀 6명, 멘토단 2명 등 총 23명이다. 정원 40명의 57.5% 수준이다. 재단은 정원 외로 단기 계약직 8명(인턴 4명 포함)과 비상근 멘토 30명을 두고 있다. 재단의 상세한 임직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임직원 현황 >

구 분	인원	
학 장	1	이민석 학장
사무국장	1	박성찬 국장
경영 지원팀	5	계성주 팀장 / 양월문 매니저(회계 담당) / 임종민 매니저(인사 담당) 서영진 매니저(구매계약 담당) / 옥다솜 매니저(법무 담당)
시설 관리팀	2	계성주 팀장 (겸직) 정두수 매니저(네트워크/시스템 담당) / 박대봉 매니저(시설관리 담당)
교육 기획팀	4	조현나 팀장 / 한현규 매니저(DevRel 담당) 최가인 매니저(기업협력 담당) / 이두엽 매니저(Project-X 담당)
교육 운영팀	6	서정봉 팀장 / 김종훈 매니저(교육선발 담당) / 한채은 매니저(학사관리 담당) 이화옥 매니저(학사관리 담당) / 송인철 매니저(교육과정 담당) 홍경구 매니저(교육운영 담당) / *인턴 4인 (교육운영 담당)
대외 협력팀	2	조현나 팀장 (겸직) / 이진열 매니저(홍보 담당) / 이지은 매니저(마케팅 담당)
멘토단	2	김수보 단장 (멘토 총괄) / 이호준 멘토 (교육생 멘토링 담당)

(2) 인력 변동 내역

재단 사무국 직원 선발계획안은 2019년 8월 9일 창립총회에 처음 보고됐다. 그후 직원 공개모집을 통해 1차로 사무국장, 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원 2명, 대외협력팀원 2명 등 일반직 6명을 선발해 2019년 9월 16일 첫 업무를 시작했다. 재단은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순차적으로 2차(10월 21일), 3차(12월 23일), 4차(2020년 1월 20일) 등 2019년 총 4차례, 2020년 1차(4월 1일), 2차(5월 6일), 3차(5월 25일), 4차(7월 29일) 등 총 8차례에 걸쳐 직원을 공개 채용했다. 직원채용 및 인력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원채용 및 인력변동 내용 >

2019. 8.1	이민석 학장 근무
9.16.	'19-1차 직원 채용(일반직 6명, 총원 7명) 사무국장 1명 / 경영지원팀장 1명 / 경영지원팀원 2명 / 대외협력팀원 2명
10.21	'19-2차 직원 채용(일반직 6명, 총원 13명) 대외협력팀장 1명 / 교육기획운영팀원 4명 / 경영지원팀원 1명
12.23.	'19-3차 직원 채용(일반4, 멘토1, *인턴4, 총원 18명) 상근멘토 1명 / 교육기획운영팀장 1명 / 교육기획운영팀원 3명 / (*교육기획운영 인턴 4명)
2020.1.20.	'19-4차 직원 채용(일반직 3명, 총원 20명) 경영지원팀장 1명 / 경영지원팀원 1명 (퇴사 1명) / 교육기획운영팀원 1명
4.1.	'20-1차 직원 채용(일반 2명, 상근멘토 1명, 총원 19명) 상근멘토 1명 / 경영지원팀원 1명 (퇴사 4명) / 교육기획운영팀원 1명
5.6.	'20-2차 직원 채용(일반직 3명, 총원 22명) 경영지원팀원 3명
5.25.	'20-3차 직원 채용(사무국장 1명, 총원 23명)
7.29.	'20-4차 직원 채용(일반직 2명, 총원 23명) 교육기획팀원 1명 / 경영지원팀원 1명 (퇴사 2명)

제3장 사업_

세 가지 사업

1. 42서울
2. Project-X
3. 개발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장 사업 세 가지 사업

1. 42서울

1) 준비

(1) 계약 전 진행 상황

○ 에꼴42 방문

이민석 학장은 학장에 선임된 후, 취임 전인 2019년 7월 7일 ~ 12일까지 5일 동안,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소프트웨어 혁신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협상단'을 구성하여, 프랑스 파리의 '에꼴42', 42 네트워크의 교육기관인 리옹의 'LE101', 벨기에 브뤼셀의 'Code19'를 방문했다. 협상단은 이민석 학장 선정자를 비롯하여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협상단 구성 현황

- 이민석 (국민대학교 교수, 당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 선정자)
- 이미란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 전무)
-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
-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국 서기관)
- 민승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혁신인재팀 팀장)
- 권민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혁신인재팀 책임)

협상단의 방문 목적은 에꼴42의 교육 시스템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 및 방법과 맞는지 확인하고 추후 계약을 진행할 경우,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출장이었다. 협상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에꼴42와 42교육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위한 기초 협의를 하고, 에꼴42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협상단은 출장에서 에꼴42의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확인했다. 에꼴42의 전체 교육 과정은 공통 트랙과 전문 트랙으로 구성돼 있고, 공통 트랙을 마치면 인턴을 하는 것으로 과정이 구성되어 있었다. 레벨의 구성은 2020년 1월부터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두 단계와 인턴으로 구성된 상황은 지금과 다르지 않다.

협상단은 출장을 통해 교육 확장성에 대한 확인도 했다. 파리의 에꼴42는 33명의 운영 인력이 3,700명 정도의 학생을 관리하고 있었다. 같은 42 네트워크 학교인 벨기에 브뤼셀의 Code 19는 200명 정도의 학생에 6명의 스태프가 있었다. 리옹의 LE101도 250여명의 학생이 있으며, 전일제 스태프는 5명이었다. 이미 7년 이상의 경험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에꼴42는 33명의 운영인력이면 확장성이 잘 확보된 경우지만, 다른 두 곳은 기대했던 만큼의 확장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 개발,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 이슈도 있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됐다.

또한 각 캠퍼스별로 여러 명의 학생들을 만나 지원동기, 학업 기간과 현재 진도 상황, 에꼴42가 추구하고 있는 동료학습, 동료평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팀 프로젝트나 개인 프로젝트 상황에서 동료학습과 평가라는 교육 방식이 잘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수준에 대해 에꼴42의 디렉터는 평생학습을 추구하는 직업 교육 기관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했다. 실제 에꼴42는 공통 트랙을 18개월 이내에 끝내고, 21레벨을 3~5년에 끝내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15레벨에 이르기 전에 취업을 하여 21 레벨을 완성한 학생은 전체 입학생 가운데 20% 미만이라고 했다.

협상단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각 기관 견학 및 책임자의 설명, 시스템 확인, 학생 인터뷰를 통해서 대체로 합의한 에꼴42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 학습관리시스템(LMS)이 기대보다 훨씬 잘 갖춰져 있음
- 동료학습, 평가가 동작하며,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요소가 학습을 지원함
- 에꼴42는 동료학습에 대한 교육 철학을 종교처럼 가지고 있음
-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있는 그대로 운영 해보는 것이 바람직함
- 과정을 마칠 경우, 스타트업을 위한 초기 개발 인력으로는 부족함이 없음
- 공통 트랙을 마친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역량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있음.

협상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에꼴42 도입하여 규모 있는 인력 양성이라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목표 달성 ▲에꼴42 단점 보완할 수 있는 우리 자체 프로그램 개발 병행 ▲자체 프로그램 개발 후에도 에꼴42만의 장점 많아 계속 활용 등 세가지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번 방문에서 협상단과 에꼴42 양측은 42서울을 열기로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계약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 2019년 8월 중 에꼴42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이의 계약 완료(42서울)
- 2019년 9월 중 온라인 테스트 시작
- 2019년 10월까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리모델링 및 시스템 하드웨어 설치 완료
- 2019년 11월 1~2주에 에꼴42 스태프 방한하여 LMS 및 시스템 설치 작업
- 2019년 12월 1일 개소 및 첫번째 집중교육(La Piscine) 시작

○ 42실리콘밸리 방문

이민석 학장은 2019년 8월 31일~ 9월 5일까지 42실리콘밸리를 방문하고, 현지에서 유사한 개념의 소프트웨어/창업 스쿨을 설립했던 과메 얀네인(Kwame Yamgnane) 씨를 만났다. 얀네인씨는 에꼴42의 공동 창업자 중



한명으로 지금은 42실리콘밸리를 그만두고, 퀘이저 실리콘밸리(Qwasar Silicon Valley)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창업 교육 기관을 오�클랜드에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암네인씨는 에콜42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으로 일반대학에서 배우는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 과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암네인씨는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하는 모델의 새로운 학교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팔러 앨토(Palo Alto)에서 만을 건너면 있는 프리몬트(Fremont) 시에 있는 42실리콘밸리는 에콜42가 직접 설립했다. 파리의 에콜42와는 달리 42실리콘밸리는 매우 여유로운 공간에서 하드웨어 랩, 인공지능 랩, 창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파리와 실리콘밸리의 문화적인 차이와 학생들이 처한 환경 차이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쉽지 않으나, 42실리콘밸리는 에콜42에 비해 학생들에게 좀 더 빠른 학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42실리콘밸리 방문에서도 42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다른 42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 방문에서는 실리콘밸리의 한국인 개발자 커뮤니티 리더들, 스타트업 대표들과 스타트업 지원 조직들, 그리고 현지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및 스타트업의 개발자들을 만나서 개발자 부족, 채용관행, 인턴 프로그램 운영, 현지 부트캠프 현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42실리콘밸리 방문에서 얻은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 글로벌 회사 취업을 위해서는 현지 네트워크 활용이 매우 중요
- 영어 및 기술 인터뷰(알고리즘) 스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함
- 코드리뷰를 확장(scalable)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함
- 현지의 한인 개발자, 교육자 그룹, 벤처캐피털(VC)과의 협업 가능성 매우 높음
- 개발뿐만 아니라, 디자인, 서비스 기획에 관한 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
- 개발자 양성 교육에 확장성(scalability)이 가장 중요
- 개발자 교육에서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 기초 교육은 생각보다 중요함
- 모든 교육에서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큼
- 미국에는 생각보다 큰 멘토 풀(Pool)이 있고 우리도 멘토링 문화를 만들어야 함
- 현지 스타트업(한국인 설립)은 좋은데, 조직적 접근법 필요
- 42실리콘밸리는 산업 접근방법이 폐쇄적이므로 우리와 관계 설정에 고민이 필요
- 시니어 개발자들은 소프트 스킬에 대한 교육이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 경력 단절자들의 개발자 전환 요구가 생각보다 많고 미국에선 꽤 성공적이었음



○ 니콜라 사디락 교수와 미팅

이민석 학장은 2019년 9월 6일, 한 교육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니콜라 사디락(Nicolas Sadirac) 교수와 만났다. 사디락 교수는 에꼴42 창립멤버로 에꼴42의 모든 교육철학을 정립한 사람이다. 사디락 교수는 이민석 학장과 만남에서 “1년 정도 동료학습을 경험하면 학생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면서 에꼴42의 동료학습 방법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디락 교수는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전 기술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바뀔 수도 있는 지식이나 방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디락 교수는 에꼴42를 2018년에 퇴직하고, 지금은 ‘Nicolas Sadirac & Co’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 회사에서 사디락 교수는 에꼴42와 같은 교육철학을 가진 ‘Zone01’라는 이름의 학교를 저개발국가에 설립해 무료로 교육시킨 후 학생이 취업하면 연봉의 일부를 교육비로 보상받는 방식의 학교를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사디락 교수는 ‘Zone01’을 카자흐스탄에 최초로 설립해 운영 중이며 아프리카 등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에꼴42 소피 비제르 디렉터와 미팅

이민석 학장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권민지 책임은 2019년 9월 10일, 컨퍼런스 참여 차 방한한 소피 비제르 (Sophi Viger) 에꼴42 디렉터와 계약 관련 회의를 가졌다. 이 미팅에서 7월 방문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라이선스 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2019년 7월 방문 당시,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일정을 에꼴42측에서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동시에 우리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건물 리모델링 작업 일정도 지연되고 있어,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에꼴42측에서는 전 세계로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어 일정압박에 쫓기고 있었다. 수정된 시스템 구축 일정은 11월 초에 방문하여 2주 정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42시스템 초기 필요인원에 관해서도 합의했다. 또한 계약서 문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여 잠정 합의했다.

(2) 에꼴42 방문과 계약

이민석 학장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권민지 책임은 2019년 9월 30일 ~ 10월 3일까지 다시 에꼴42를 방문하여 42서울 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프랑스 현지 변호사도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의 주목적은 계약 체결이지만, 계약 체결과 아울러 42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네트워크 환경 등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일정 확정, 신입생 선발에 관한 의견 조율, 시스템 운영팀(bocal) 인턴 교육에 관한 논의도 같이 이뤄졌다.

그동안 양측 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2019년 9월 소피 비제르 디렉터의 방한 때 합의가 됐으며, 다른 미세한 부분들은 에꼴42가 다른 나라들과 체결하는 표준 계약을 준용하기로 했다. 에꼴42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정부 주도로 설립돼 공공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에 관한 부분들도 일부 수용했다. 교육생과 시스템에 로그인 되어 있는 42서울 스태프들의 개인정보 일부가 파리의 에꼴42 서버에도 저장되는 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관할권 등을 논의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출장 기간 중에 교육생 선발 방식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재단 설립 후, 에꼴42의 논리 테스트와 함께 코딩 테스트, 자가학습, 코딩 테스트를 하는 2단계의 시험과 지원동기 확인을 위한 에세이를 선발 기준에 포함하여 선발한 뒤 집중교육(La Piscine)을 시행하는 안을 준비했다. 하지만 에꼴42는 1개월 집중교육 과정으로 충분히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이 외에 테스트를 통해 선별하는 것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에꼴42의 철학과 다르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선발 계획 안은 수용되지 않았고, 에꼴42의 표준적인 온라인 논리테스트를 통해 선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계약과 함께 42서울 운영 일정도 조율했다. 최초 입학생을 위해 11월 1일부터 42서울 온라인 테스트 사이트를 한달간 열기로 하고, 에꼴42 측의 기술 담당자를 지정했다. 또한 9월 중에 인터뷰를 통해 선발된 두 명의 에꼴42 소속 한국 학생을 에꼴42에서 2개월간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을 시킨 뒤 42서울의 운영 스태프(bocal)에 합류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에꼴42 소속 직원 3명이 2020년 1월 6일부터 2주간 방한하여 교육을 위한 IT 시스템 설정 작업을 진행하며, 그 중 한 명은 첫번째 집중교육 시험 때까지 기술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2019년 10월 2일, 에꼴42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42서울 개설에 관한 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계약체결에 따른 합의와 이번 에꼴42 방문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2서울이 아시아 최초의 42학교가 됨
- 2020년 1월 6일부터 시스템 설치 작업 진행
- 2020년 1월 20일 첫번째 집중교육 시작
- 2020년 10월부터 에꼴42 학생 2명이 42운영 관련 교육을 받고 42서울에 합류
- 2020년 11월 한달간 학생 선발을 위한 온라인 페이지 유지
- 모든 선발 절차는 에꼴42 기존 시스템 준수

(3) 모집 설명회

○ 홍보물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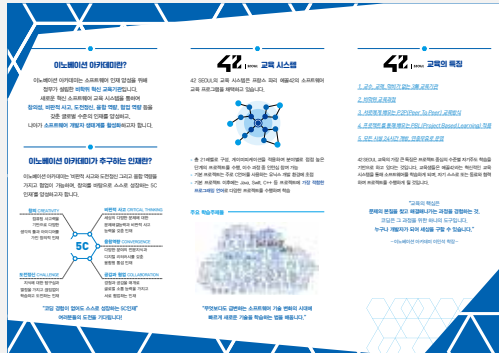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2019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진행 한, 42서울 교육생 모집을 위해 약 한 달 전인 10월 11일부터 교육생 모집 전국 설명회를 개최했다.

모집 설명회 개최에 앞서 교육생 모집과 설명회에서 활용할 홍보물을 제작하였다. 첫 번째로 설명회 홍보를 위한 포스터와 현수막을 제작했다. 홍보물에는 설명회 일시, 장소, 참석 신청 방법, 교육생 선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설명회에 참석한 예비 지원자에게 42서울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회 파워포인트(PPT)와 종이 리플릿을 제작했다.

홍보물 디자인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BI(Brand Identity)에 사용되는 파란색 계열의 색상과 별집 모양을 통일성 있게 활용하되 홍보물 제작 용도와 내용에 적합하게 변형하여 작업했다. 이 작업을 진행하던 2019년 10월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창립된 지 약 3개월, 42서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지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다.

이로 인해 재단 내외 구성원들은 재단 소개와 '42서울'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표현하고, 디자인하기 위해 수많은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BI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교육생 모집 안내 리플릿 / 포스터

5개 지역서 총 6회 모집 설명회 개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2019년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총 6회에 걸쳐 42서울 교육생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최 지역은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광주, 부산, 제주까지 수도권 외 지역 방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개발 커뮤니티 인프라 소외 지역의 예비 지원자들에게도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모집설명회는 다음 아래의 지역별 일정과 장소에서 진행됐다.

42서울 교육생 모집 설명회 개최 일정

- 10월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1문화센터
- 10월 15일 광주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 10월 22일 부산 부산대학교 본관 대회의실
- 10월 25일 대전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
- 10월 3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11월 5일 제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트랙룸



19.10.11 서울 역삼1문화센터에서
42서울 교육생 모집 절차를 설명하는 이민석 학장



19.10.31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42서울 교육생 모집 설명회에 참석한 예비 지원자들

42서울은 정부 주도로 설립한 비영리 재단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으로 세계적 명성이 높은 프랑스의 '에꼴42'를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이다.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선발 절차부터 커리큘럼까지 예비 지원자들의 궁금한 점이 많았고 관심도 높았다.

설명회 참석 신청은 온오프믹스와 구글 서베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예약을 받았다. 행사 당일에는 행사 공간에 수용 가능한 인원만 현장에서 추가로 신청 받았다. 에꼴42는 유럽 지역에서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교육 효과, 취업 연계 측면에서 성공적 운영기관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래서 이미 국내 관련 분야 사람들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예비 지원자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현업 관계자들이 42서울 교육생 선발 절차와 교육 커리큘럼, 운영 방식에 관심을 갖고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모집 설명회는 약 2시간 동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부터 선발 절차, 교육 공간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민석 학장은 참석자들에게 "42서울교육 프로그램은 잘하는 것보다 얼마나,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동료와 협력해 가며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 동안 참석자들은 선발 절차와 기준 등 교육생 선발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였다. 그리고 교수와 학비, 교재가 없는 3무(無) 교육시스템에서 어떻게 동료 학습이 이루어지고, 상호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등 학습 과정에 대한 문의가 그 뒤를 이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설명회에서 질의응답이 1시간여 가까이 진행될 정도로 42서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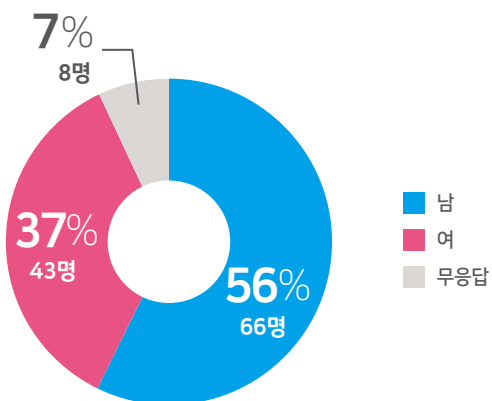
○ 42서울 교육생 모집 전국 설명회 참석자 통계

42서울 교육생 모집 전국 설명회에는 현장접수 인원을 포함하여 총 491명이 참석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설명회가 끝난 뒤 참석자를 대상으로 42서울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명회 참석자의 88.4%인 434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 조사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 제주 지역 설문 조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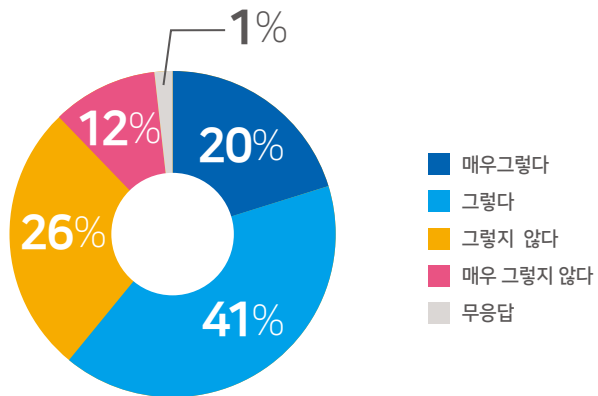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강남권) 설명회 설문 조사

- 일시 : 2019.10.11 (금) 14:00-16:00
- 장소 : 강남씨어터 (역삼1동 주민센터 3층)
- 사전 등록자 : 200명
- 행사 참가자 : 117명
- 행사 참석률 : 66%
- 설문 응답률 : 88.6 % (132명 중 117명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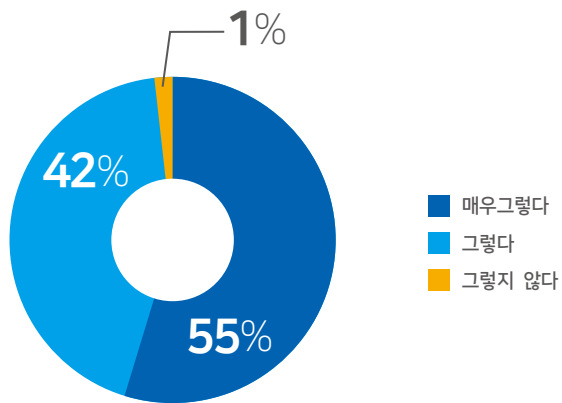
설문자 인적사항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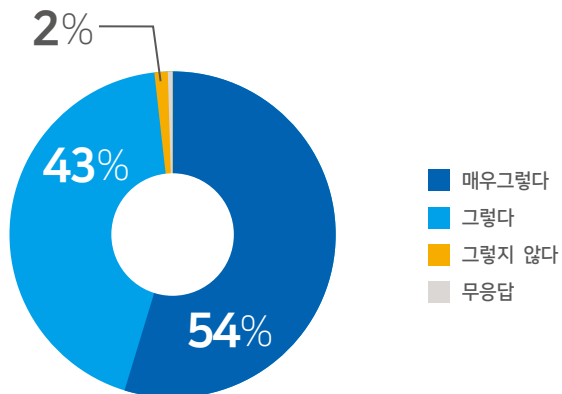
1-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3-1. 설명회의 내용은 유익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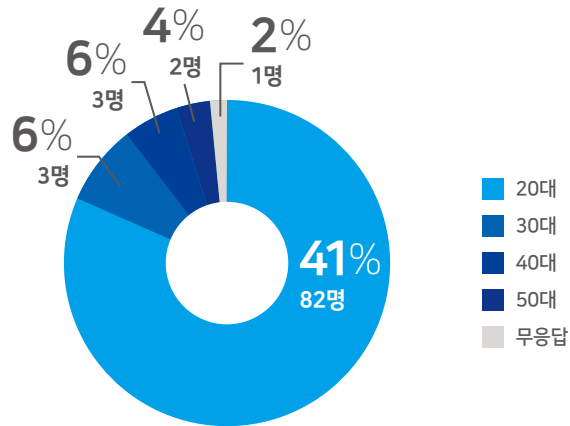
7-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42서울 교육생 모집에 대하여, 지인에게 본 프로그램을 추천하길 의향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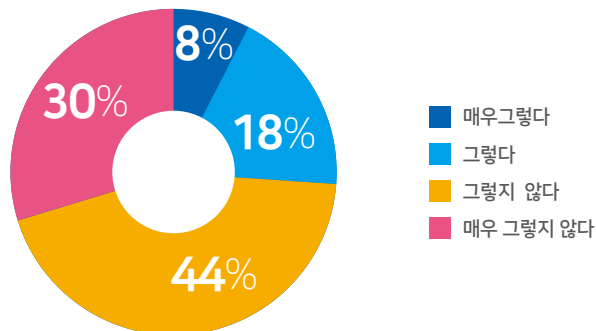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경남권) 설명회 설문 조사

- 일시 : 2019.10.22 (화) 14:00-16:00
- 장소 :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
- 사전 등록자 : 96명
- 현장 등록자 : 16명
- 행사 참가자 : 55명
- 행사 참석률 : 67%
- 설문 응답률 : 90.9% (55명 중 50명 제출)
- 특이사항 : 10월 21일 (월) 공학관 및
- 총학생회 간식행사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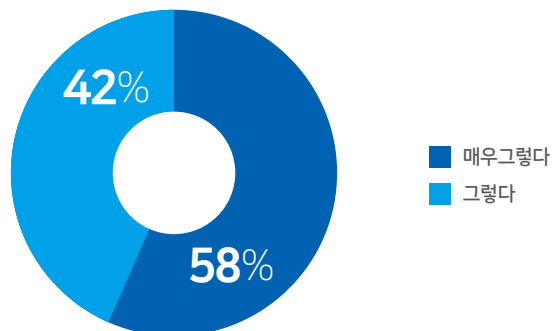
설문자 인적사항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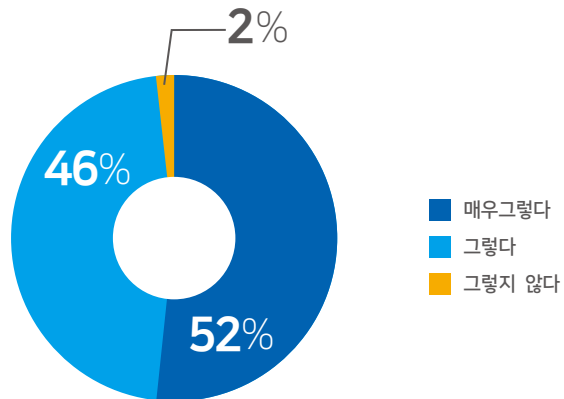
1-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3-1. 설명회의 내용은 유익 하였습니다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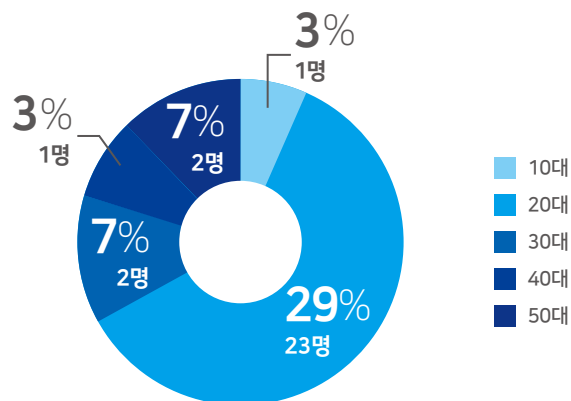
7-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42서울 교육생 모집에 대하여, 지인에게 본 프로그램을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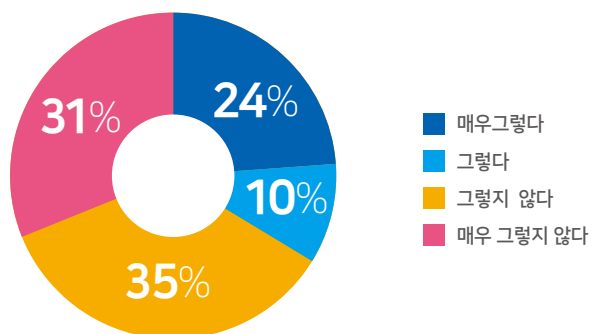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전남권) 설명회 설문 조사

- 일시 : 2019.10.15 (화) 14:00-16:00
- 장소 :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4층 시청각실
- 사전 등록자 : 26명
- 현장 등록자 : 11명
- 행사 참가자 : 33명
- 행사 참석률 : 127% (사전등록 추가)
- 설문 응답율 : 87.8% (33명 중 29명 제출)
- 특이사항 : 10월 14일 (월) 공학관 / 학내 홍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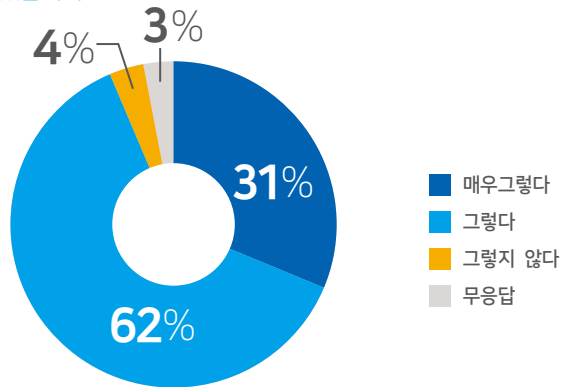
설문자 인적사항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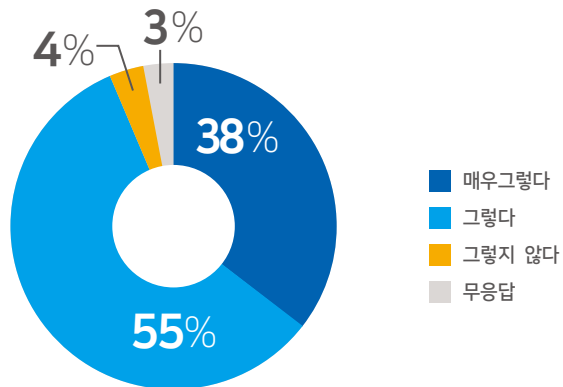
1-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3-1. 설명회의 내용은 유익 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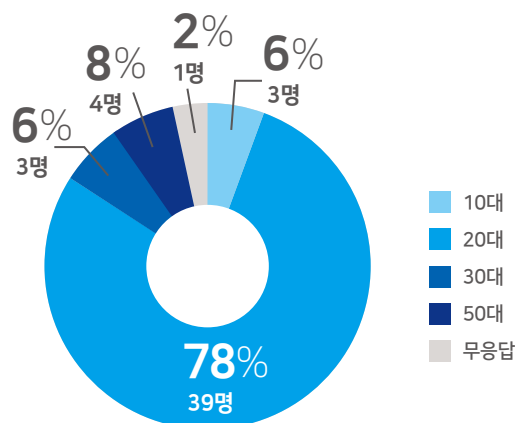
7-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42서울 교육생 모집에 대하여, 지인에게 본 프로그램을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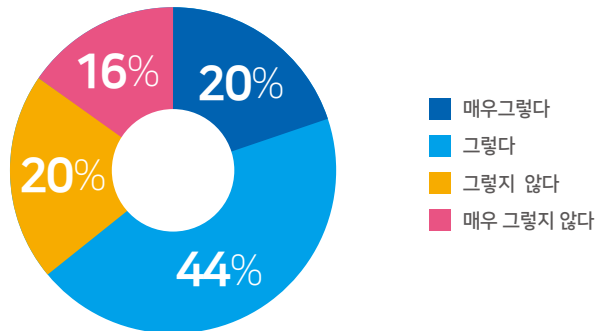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충남권) 설명회 설문 조사

- 일시 : 2019.10.25 (금) 14:00-16:00
- 장소 :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
- 사전 등록자 : 109명
- 현장 등록자 : 14명
- 행사 참가자 : 55명
- 행사 참석률 : 50.5%
- 설문 응답율 : 90.9% (55명 중 50명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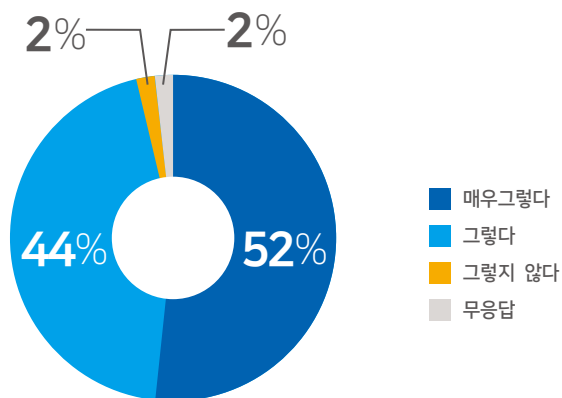
설문자 인적사항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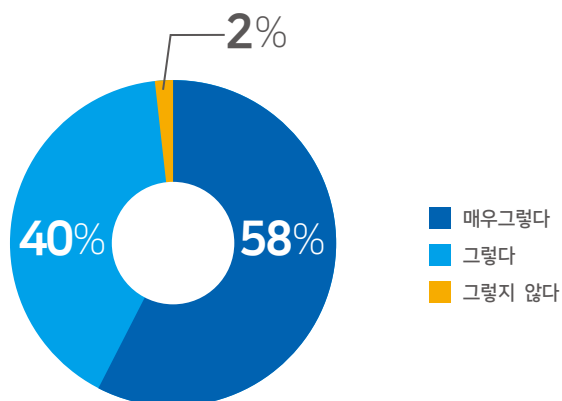
1-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3-1. 설명회의 내용은 유익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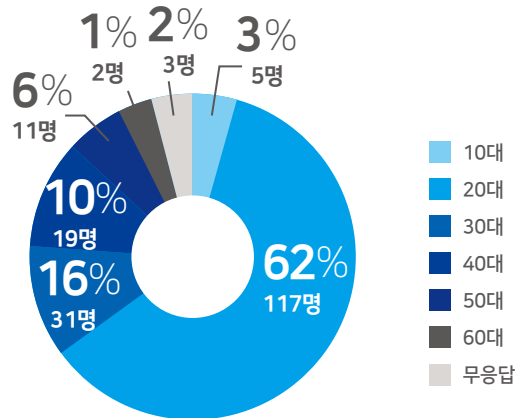
7-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42서울 교육생 모집에 대하여, 지인에게 본 프로그램을 추천하길 의향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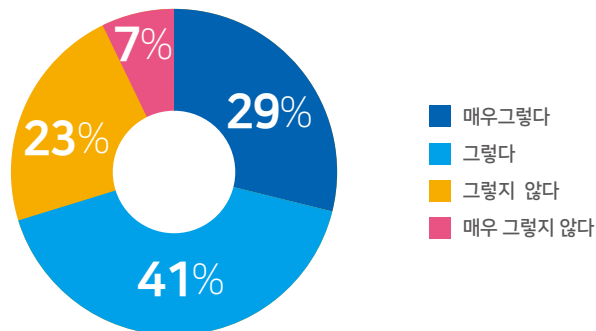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강북권) 설명회 설문 조사

- 일시 : 2019.10.31 (목) 13:00-15:00
- 장소 :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사전 등록자 (온오프믹스) : 453명
- 1차 참석 확인 후 사전 등록자 : 178명
- 현장 등록자 : 38명
- 행사 참가자 : 216명
- 행사 참석률 : 121%
- 설문 응답율 : 87% (216명 중 188명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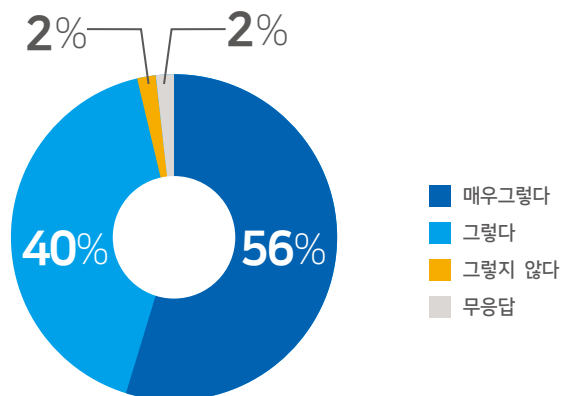
설문자 인적사항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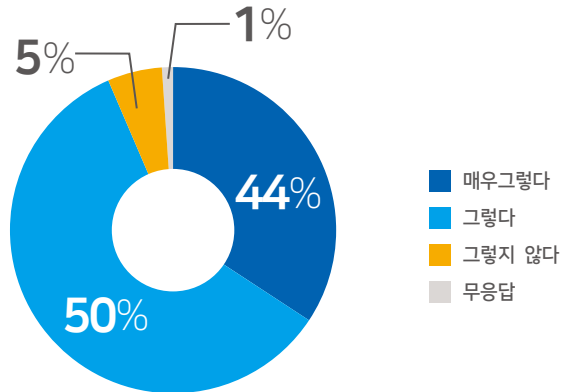
1-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3-1. 설명회의 내용은 유익 하였습니다습니까?



7-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42서울 교육생 모집에 대하여, 지인에게 본 프로그램을 추천하길 의향이 있으십니까?



설명회 참석자의 연령대는 20대가 69.4%(220명)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30대 12.3%(39명), 40대 7.3%(23명), 50대 6%(19명), 10대 2.9%(9명) 순위였다. (*연령별 참석자는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부산, 광주, 대전, 서울 강북권 참석자 기준)

42서울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엔 51%가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설명회 참석자의 과반수가 42서울 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설명회 내용이 유익했느냐는 질문에는 100%에 육박하는 96.6%가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라고 조사돼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2서울을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5.6%가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해, 본인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인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 42서울 교육생 모집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19년 10월 20일 저녁 8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예비 지원자들을 위해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설명회 또한 오프라인 설명회와 동일하게 진행했다. 실시간 채팅을 통한 QnA(질의응답) 코너를 마련하여 오프라인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육생들에게도 42서울 프로그램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온라인 설명회는 최대 동시 접속자 수 77명을 기록하였고, 교육생 모집 마감일인 11월 30일까지 총 7,000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다. 재단은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42서울 온라인 테스트에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선발 절차를 안내하는 가이드 영상으로 활용하였다. 온라인 설명회 영상 조회 수는 약 1만 5,000회를(2020.9.15. 기준) 기록할 정도로 42서울 프로그램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4) 학생 지원현황과 에피소드

○ 지원현황 추이

재단은 2019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42서울' 홈페이지(42seoul.kr)에서 교육생을 모집했다. 지원자격은 코딩 경험이 없어도 성인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이면, 성별, 경력, 국적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42서울'은 교수, 교재, 학비 없이 소프트웨어를 학습하는 프랑스 '에꼴42'의 아시아 최초 캠퍼스로, 공식 오픈 전부터 국내외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다. 그 관심을 입증하듯 11월 1일 '42서울' 지원 사이트 오픈과 동시에 온라인 테스트 응시자가 몰려 교육생 모집 시작 10일 만에 5,000여명이, 모집 한 달여 만에 1만 1,118명에 달하는 응시자가 몰렸다. 응시 연령대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층이 대부분이었다. 최연소 지원자는 만 15세(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였고, 최고령 지원자는 만 67세였다.

재단은 지원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1개월 집중교육(La Piscine) 및 본교육 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보다 많은 이들이 '42서울'의 혁신 교육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추가로 150여명에게 1개월 집중교육(La Piscine)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본교육 참여자 역시 추가로 선발했다. 단, 수용 가능한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체크인 미팅과 1개월 집중교육(La Piscine)을 2번에 나눠 1차, 2차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

1기 1차 교육생은 기존대로 2019년 12월 6일, 7일 양일간 체크인 미팅을 통해 대면 확인을 완료했다. 이후 2020년 1월 20일부터 1개월 동안 진행된 집중교육을 거쳐 선발된 최종 교육생은 2월 24일부터 약 2년간 본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하였다.

재단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42서울' 홈페이지에서 논리력과 기억력 테스트로 구성된 온라인 테스트를 거쳐, 합격한 이들에 한해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집중교육(La Piscine) 대상자를 선발했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소프트웨어 인재로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의캠프와 1개월 집중교육(La Piscine) 과정을 밟았다. 이후 본 교육 과정 진입이 확정된 교육생은 게임 요소를 적용한 단계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소프트웨어를 학습하고 있다. 수업은 교수, 교재, 학비 없이 서로의 협업으로 배우는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진행된다.

< 지원자 현황 추이(2020.10.31.기준) >¹⁾

항목	온라인 테스트 누적 응시자	온라인 테스트 통과자	온라인 테스트 탈락자	합격률
인원	20,335	5,657	14,678	27.8%

< 본과정 운영 현황(2020.10.31. 기준) >

항목	본과정 합격자	취업자	블랙홀
인원	549	15	17

¹⁾지원자현황의 누적데이터는 에꼴42의 정보를 받아서 기입할 수 밖에 없는데 에꼴42는 지원자의 정보를 일정시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누적 지원자의 수는 더 될것으로 추측한다.

○ 고객CS이슈와 VOC

재단에게 고객(Customer)은 예비 교육생 또는 교육생이다. 재단은 고객 즉, 교육생들과 소통을 위해 공식 이메일과 글로벌 협업용 메신저인 슬랙(Slack)을 활용했다. 이메일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예비 교육생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메일로는 주로 교육일정과 지원금에 관한 문의가 오며, 체크인 미팅 대상자에 대한 안내사항이 해당 메일 계정으로 발송됨에 따라 참여 대상자의 문의가 주를 이루었다. 슬랙(Slack)은 교육생과 재단 스태프들이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써 로그인 및 접속 관련, 인트라 서버 이용 등 시스템 관련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시기별로 주를 이루는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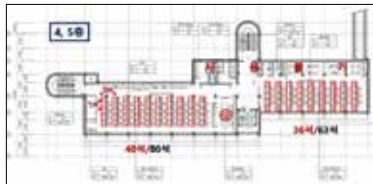
- 설립 초기: '온라인 테스트' 관련
(테스트 통과자의 경우 자신의 레벨,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떨어진 이유와 재시험 가능 여부 등)
- 모집 기간: 모집방식 관련(선착순/레벨순 여부), 모집 후 교육일정과 대기 순번 관련
- 체크인 미팅: 체크인 미팅 방식 관련(필수 방문 여부)
- 1개월 집중교육(la piscine) 시작 전: 등록당일 절차, 사전 준비물, 지원금 증빙서류 등
- 1개월 집중교육(la piscine) 중: 출입시간 확인 여부, 지원금 관련 문의 등

2020년도 교육을 앞두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했던 교육일정에 변화가 생겼다. 전염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교육장에 300여명의 교육생을 받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에 따라 재단은 당초 2월 24일로 계획했던 1기 1차 본과정과 1기 2차 1개월 집중교육(la piscine) 개시일을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연기가 결정된 날이 교육 개시 이틀 전인 2월 22일이었다. 마침 주말인 토요일이라 재단에서는 300여명의 교육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유선으로 교육 연기를 안내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육을 정확히 언제 재개한다는 확답을 주지 못하자 교육일정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무기한 일정 연기가 되면서 이와 관련한 CS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사전 체크인 미팅 또한 교육생들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자 온라인 체크인 미팅기간에는 매주 100건 이상의 CS가 접수되곤 했다.

< 2020년도 CS 현황(qna 메일) >

기 간	3.16 ~ 3.20	3.23 ~ 3.27	3.30 ~ 4.3	4.6 ~ 4.10	4.13 ~ 4.17	4.20 ~ 4.24	4.27 ~ 5.1	5.4 ~ 5.8	5.11 ~ 5.15	5.18 ~ 5.22	5.25 ~ 5.29	6.1 ~ 6.5	6.8 ~ 6.12	6.15 ~ 6.19	6.22 ~ 6.26	6.29 ~ 7.3	평 균
문 의 수	53	30	107	116	63	27	27	32	33	35	47	53	114	251	185	94	79.19
비 고			일정 연기	일정 연기									라인	체크 인 미팅 참여 여부 확인 등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재단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발맞춰, 전 세계 42 캠퍼스 중 최초로 '1개월 집중교육(la piscine)'을 2부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부제 1개월 집중교육(la piscine)'은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라 과연 제대로 잘 운영될지 재단은 물론이고 교육생도 예상할 수 없었다.

재단은 1그룹은 '월, 수, 토', 2그룹은 '화, 목, 일' 등으로 나누어 출석 가능 요일을 지정했다. 또한 출입카드를 1그룹은 '빨간색', 2그룹은 '파란색'으로 구분 지어 입장 즉시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클러스터 내에서는 한 방향 앉기를 원칙으로 하고, 한 층당 143석의 좌석 중 절반 정도인 76석에만 앉을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하였다.

2부제로 실시한 1개월 집중교육(la piscine)이 마지막 시험을 끝으로 무사히 마쳤다. 전 세계 캠퍼스 중에서 42서울에서 처음 시도했지만 우려와 달리 성공적이었다. 4주 간 심 없이 달려온 1개월 집중교육(la piscine)을 마치면서 이민석 학장이 직접 이메일로 교육생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편지를 보냈다. 교육생들이 4주 동안 쏟은 각고의 노력과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진심을 담은 이메일이었다.

(5) 42도쿄 방문

2020년 1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2월에 시작하게 될 42서울의 첫 집중교육(La Piscine) 준비로 여념이 없었다. 에꼴42가 이제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시점이었기에 일반 시스템 사용자가 기대하는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 'La Piscine'이 수영장을 의미하듯이 집중교육은 '수영장에서 스스로 헤엄쳐 나오는 방법을 터득해 살아 남아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어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하는 관리자도 그 철학을 철저히 따라 운영하고 관리해야 했다.

재단은 그 무렵 이웃나라 일본에서 42도쿄(Tokyo)의 첫 집중교육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42도쿄는 42서울보다 한 달 정도 앞서 집중교육을 시작했다. 42 교육 경험이 전무한 재단과 달리 42도쿄는 에꼴42의 교육시스템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42도쿄 운영을 맡고

일본 도쿄 도착



INNOVATION ACADEMY 42 SEOUL

4주간의 피션을 마치신 피시너들에게 드리는 응원의 말씀

피시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시험을 끝으로 드디어 피션에 끝났습니다.

COVID-19 사태로 인해 너무 오랜 기간 피션을 기다려 주신데 아예,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지난 4주 동안 피션에 임해주신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2서울의 피션 기간에, 내 몸과 내 맘에 잠재되어 있던 가능성이 동지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의 열정이 모여 서로 다져지고 도를 닦고, 조금 더 수월하고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에 힘을 느끼셨기를 기대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배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험이 생각보다 추상화하는 놀라운 방식에 맞게 컴퓨터와 프로그래밍 언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개발을 배우는 과정은 그 익숙하지 않음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한 단계의 어려움이 익숙해지고 나면 새로운 단계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 어려움을 호기심으로 즐기며 익숙함으로 바꿔 가는 과정을 우리는 배움으로 정의합니다.

4주를 치내고, 여러분의 Todo list에 호기심 어린 새로운 목표가 쌓여가 있었나면, 그리고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익숙해 되었다면, 본 과정에 참여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여러분은 성공하신 셈입니다. 세상을 넓고 할 일은 많고, 우리에게는 나를 도와주고 함께 갈 동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어디서는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자산에게, 또 같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배우고 있는 동료들에게 사운들도 챙겨줬을지도 모릅니다. 또 문명에서도 부족함을 느껴셨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학습과 협업 그리고 평가 방식, 새로운 중간과 시스템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서로 힘을 펼치고 가실시다. 우리도 우리의 역량도 각자 느끼고 경험한 만큼 성장합니다. 자를 같이 했던 우리 모두가 세상을 구하는 일에 힘을 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읽고 서명용 한 42 서울 Honor Code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가대한 우주와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순간을 함께 보내며 기억으로 모험을 하는 여행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우주 막대에서는 다들 만나서 같이 배우고 여행하는 동료입니다. 먼 여행을 시작하여 이제 그 첫 정거장에 같이 도착한 여러분을 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앞 길에 평온하지 않게 하시길 기원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COVID-19 사태 속에서 굳이 지킬 것 많지 않게 바랍니다.

2020년 6월 19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 이민석

학장님 말씀

있었다. 재단은 42도쿄의 운영 노하우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42도쿄에 방문신청을 했다.

재단은 42도쿄의 방문 허가가 나자 김수보 멘토와 한채은 매니저, 이민석 학장의 일본 출장을 결정했다. 일본 출장은 2020년 1월 8일~1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확정됐다. 출장 기간동안 42의 교육현장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42서울에 담아 내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은 ▲42 스태프의 역할 파악 ▲집중교육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이슈 및 해결방법 ▲42 동료평가 방식의 교육 현장 실태조사 ▲시험(exam) 운영 방식 파악 등이었다.

2020년 1월 8일 12시경, 42도쿄가 있는 롯폰기에 도착했다. 번화가에서 다소 떨어진 주택가에 위치한 42서울과 달리, 번화가 내 고층 빌딩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는 42도쿄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42서울은 지원자의 대부분이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이라 대학교 같은 분위기라면, 42도쿄는 직장인들이 많아 낮시간보다 오후 4시 이후부터 교육장이 활기를 띠었다.

특히 42도쿄 스태프와 이야기를 나누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교육생들에 대한 느슨한 관리 ▲ 교육생들의 문의에 일일이 대응해 주지 않고 직접 해결하도록 유도 ▲불만 불평이 많은 교육생은 자연스런 퇴소유도 등이었다.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의 운영 스태프 역할은 교육생의 불만을 친절히 상담하여 해소시키고, 교육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업무인 데, 42도쿄의 운영 스태프의 역할은 달랐다.

42도쿄의 운영 스태프는 42만의 불친절한 서비스 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만 제공하고, 교육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태프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한정했다. 교육생이 이러한 42의 교육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면 다른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는 뚜렷한 운영철학을 갖고 있었다.

시험방식도 여느 대학의 시험과는 확연히 달랐다. 교육생이 컴퓨터 디렉토리를 옮겨가며 시험지를 찾는 것부터 시험의 시작이었다. 심지어 10분 안에 시험지를 찾아서 읽고, 시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한 교육생은 곧바로 퇴장이었다. 실제로 42도쿄의 시험에서 처음 시험을 치르는 교육생들의 80%가 시험지를 못 찾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해 10분 안에 퇴장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스태프의 역할은 부정행위(Cheating)를 감시하고, 시험 시작 10분 후 퇴장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

도쿄 출장팀이 3박 4일 일정의 42도쿄 방문으로 42의 운영 노하우를 전부 파악하기에는 빠빡한 일정이었다. 하지만 42도쿄에서 직접 보고 듣고 인상깊었던 스태프의 역할을 42서울 스태프들과 공유하고, 42서울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험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1. 42도쿄가 위치한 건물
2. 42도쿄 내부
3. 42도쿄 직원들과 함께
4. 42도쿄 내부와 그곳에서 바라본 야경



2) 학생

(1) Honor Code와 학칙

○ 42서울 Honor Code

'Honor Code'는 우리말로 '명예 규율'로 번역된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구성원들이 단체의 명예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준칙'을 의미한다. 명예 규율의 준칙은 구성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근거해 정해지며, 구성원들 사이의 절대적인 신뢰를 필요로 한다. 'Honor Code'는 42서울의 학생이자, 학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세를 담고 있으며, 학칙의 근간이 된다.

에콜42의 숫자 '42'는 더글러스 애덤스의 SF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소설에서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깊은 생각'이라는 컴퓨터를 750만 년 동안 돌려서 찾아낸 답이 바로 숫자 '42'였다. 즉 '삶과 우주와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숫자'로 일컬어지는 42에서 따온 것이다.

재단이 42서울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의미가 더글러스 애덤스의 소설에 나오는 '42'라는 답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42서울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교육생이 결국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인 셈이다. 재단은 교육생과의 약속을 'Honor Code'라 부르기로 했다. '42서울 Honor Code'는 다음과 같다.

42서울 Honor Code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우주와 시간의 역사 속에서
찰나의 순간을 함께 보내며 경이로운 모험을 하는 여행자들입니다.

42서울인은 개개인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42서울인은 세상의 문제와 변화에 공감하고 참여하여 대안을 찾아갑니다.

42서울인은 스스로 선택하고 기회를 만듭니다.

42서울인은 남들보다 뛰어남보다 같이 성장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42서울인은 최선을 다한 우리가 세계 최고임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42서울인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42서울인은 다른 사람의 건전한 평가를 수용하고 개선합니다.

42서울인은 42서울 내의 모든 일에 진실하며 책임 의식을 갖습니다.

42서울인은 42서울과 42서울인들의 재산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 학칙제정

42서울은 비학위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은 필요했다. 학칙 제정의 목적은 재단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했다. 그후 재단은 여러 논의 과정과 토론을 거쳐 2020년 1월 20일, 총 7개장(1장 총칙, 2장 조직과 체계, 3장 42서울 교육생 운영, 4장 운영위원회, 5장 학칙의 개정, 6장 교육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 7장

보칙) 23조 및 부칙 등으로 구성된 학칙을 제정했다. 학칙 제2조에 적용대상은 ‘1개월 집중교육(La Piscine) 과정을 통해 선발된 본 과정 교육생’으로 하고, 제3조에 재단의 교육목적을 ‘5C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hallenge, Convergence, Collaboration) 역량을 갖춘 혁신적인 자기주도적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학칙은 42서울의 꾸준한 운영을 통해 수정과 보완을 거쳐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42서울 학칙 (2020.1.2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재)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라 한다)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학칙의 적용대상은 La Piscine 과정을 통해 선발된 본 과정 교육생으로 한다.

제3조(교육목적)

아카데미의 교육목적은 5C 역량을 갖춘 혁신적인 자기주도적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 ① 창의성(Creativity):컴퓨터 사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각의 틀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의적 인재
- ②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세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춘 인재
- ③ 도전정신(Challenge):세상의 지식에 탐구심과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도전하는 인재
- ④ 융합역량(Convergence):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융합형 통섭 인재
- ⑤ 공감과 협업(Collaboration):경청과 공감을 매개로 글로벌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서로 협업하는 인재

제4조(아카데미 규칙의 정의와 세부사항의 위임)

- ① 학칙과 그 밖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아카데미에서 제정·시행되는 규범을 통틀어 “아카데미 규칙”이라 부른다.
- ② 아카데미 규칙의 확정·공포에 관한 권한은 학장에게 있다.
- ③ 이 학칙은 아카데미의 조직·운영 등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하위의 아카데미 규칙(효력단계의 순으로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 등)으로 따로 정한다.

제2장 조직과 체계

제5조(학장)

학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아카데미를 대표한다.

제6조(조직·기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재단의 정관에 따라 조직을 구성한다.

제3장 42서울 교육생 운영

제7조(학적의 엄정성과 학적변동에 관한 권한)

- ① 학적은 아카데미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② 학적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권한은 학장에게 있다.

제8조(교육생 선발 과정)

- ① 교육생은 국가법령과 아카데미 규칙에 따라 지원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아래의 선발 전형에 따라 선발한다.
- ② 교육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른다.
 1. 온라인 신청: 계정생성<이메일(인증)>,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입력으로 신청
 2. 온라인 테스트: 기억력 및 논리력 테스트
 3. 체크인 미팅: 온라인 테스트 합격자 중 La Piscine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반드시 체크인 미팅에 참여하여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본인 인증이 완료된 이들 중 La Piscine 교육생 선발은 아카데미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La Piscine (1개월 집중교육과정): 코딩 테스트를 포함한 4주간의 오프라인 학습 과정
 5. 최종 본 과정 선발: 위 제4호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교육생으로 선발
- ③ 선발 인원은 해당 기수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그 기수별 모집 정원은 아카데미에서 정한다.
- ④ La Piscine 및 본 과정은 최대 1번만 참여 가능하며, La Piscine 및 본 과정에서 탈락한 자는 42서울 재응시 할 수 없다.

제9조(교육생의 선발 공고 의무)

교육생의 선발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고한다.

- ① 42서울 운영진이 전형 요강을 포함한 선발 공고를 아카데미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 ② 42서울 운영진은 공고된 선발절차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 후 합격자에게 이메일 및 문자 등을 통해 개별 고지한다.

제10조(교육생의 책임과 의무)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① Honor Code를 따를 의무
- ② 지급된 장비와 교육장의 시설을 안전하고 적법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할 의무
- ③ 교육장 내에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
- ④ 교육생의 품위를 손상하는 범법행위나 분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
- ⑤ 교육장 운영담당자의 지시를 따를 의무
- ⑥ 교육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외부 누설금지 의무
- ⑦ 참여 서약서를 따를 의무
- ⑧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42서울 운영진과의 상담에 성실히 임할 의무
- ⑨ 효율적인 과정 운영을 위해 설문조사, 추적조사(최소 5년) 등에 성실히 응답할 의무
- ⑩ 본 교육과정 외에 부가적인 프로그램 및 행사(해커톤,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할 의무

- ⑪ 취업 및 창업, 수상, 타 교육과정 병행 등 신상의 변화가 생겼을 경우 아카데미에 즉시 알려야 할 의무
- ⑫ 교육생으로서 습득한 지식 능력을 이용하여 재능기부활동에 참여할 의무
- ⑬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자격으로 아카데미 운영에 참여할 의무
- ⑭ 과도한 학습 및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개인이 책임질 의무

제11조(교육생에 대한 지원)

- ① 교육생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 1. 아카데미가 요구한 지급 조건을 충족한 교육생에 한하여 교육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지원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생에게 공지된 아카데미 지원금 지침을 따른다.
 - 3. 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IT 시스템 인프라를 제공한다.

제12조(교육생 휴학 및 복학)

- ① 질병, 출산 및 입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는 아카데미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을 중단할 수 있다. 그 외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내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유가 인정될 경우 휴학이 가능하다.
- ② 휴학하고자 하는 교육생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휴학 신청을 하고, 반드시 42서울 운영진과 학업 상담을 해야 한다.
- ③ 병역을 제외한 일반 휴학 기간은 학업 중단이 결정된 날짜로부터 최대 6개월로 하며, 휴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내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 ④ 휴학이 결정되면 안내받은 기간 내에 교육생은 아카데미 소유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출입증과 아카데미 소유의 물품을 반납하고 사용하고 있던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 ⑤ 병역으로 휴학한 교육생은 제대 후 잔여 휴학 기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생의 자격 박탈)

- ① 아카데미는 다음과 같은 사안 발생 시 교육생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각 호는 추가될 수 있다.
 - 1. 교육생의 출석 의무 등을 어기고 과제 수행 참여 태도가 현저히 불량하여 3회 누적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 2. 자발적으로 과정에서 탈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
 - 3. 지원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 4. 정해진 휴학 기간 경과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에 재참여 하지 않은 자
 - 5. 본 과정 학습 중 경고로 시스템 접속 자격이 박탈된 자
 - 6. 공개되지 않은 42서울 프로젝트 문서를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한 경우
 - 7. 아카데미 학칙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선동하거나 이에 동참한 자
 - 8. 교육생 신분과 맞지 않는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9. 교육생 간 성희롱 및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폭력을 행사하여 아카데미 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10. 아카데미 또는 42서울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 11. 대한민국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자
- ② 제1항에 의하여 자격 박탈이 결정되면 안내받은 기간 내에 교육생은 아카데미 소유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출입증과 아카데미 소유의 물품을 반납하고 사용하고 있던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 ③ 자격을 박탈당한 교육생은 추후 재입학 할 수 없다.

제14조(평가 및 인증)

- ① 교육과정 참여기간 동안 동료(Peer-to-Peer) 평가 방식에 따라 피평가자와 평가자 역할을 동시에 한다. 또한,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은 아카데미에서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② 최종 평가 후 본 과정을 수료한 인원에게 '42서울 공식 수료'로 인증하고 수료증을 수여한다.
- ③ 인증 여부는 교육생에게 고지한다.
- ④ 42서울 수료 기준은 아카데미에서 확정하여 시행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5조(기능·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권을 가진다.

1. 학칙을 비롯한 제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교육생의 휴학 및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6조(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학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부학장, 사무국장, 42서울 운영진 중에 위원장이 지정한다. 이 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위원을 운영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운영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17조(소집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학칙의 개정

제18조(절차의 원칙)

이 학칙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칙 개정은 운영위원의 발의로 제안한다.
- ② 학장은 제안된 학칙 개정안을 1주일 이상 이를 공고하고, 공고기간 중에 접수한 의견을 검토하여 심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학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확정 및 공표한다.

제19조(절차의 생략)

상위규범 개정사항의 반영,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제 17조 1항과 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교육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제20조(이용시간)**

교육생은 아카데미의 교육시설을 주 7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휴관일)

정기 휴관일은 없으나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에는 휴관일로 지정할 수 있다.

- ① 기관 시설 정비를 위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 ②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③ 학장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

제7장 보 칙**제22조(교육생의 입영연기)**

- ①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입영을 연기하고자 하는 교육생은 매일(주말 제외) 4시간 이상 교육시설 내에서 학습하여야 한다.
- ② 교육생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28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없다.
- ③ 아카데미는 입영연기를 요청한 교육생의 출결 사항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병무청의 요구 시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아카데미는 병무청과 차후 논의를 거쳐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23조(지식재산권 등)

- ①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이 창출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교육생에게 귀속되며, 아카데미는 교육생이 창출한 저작물에 대한 사용, 복제, 배포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② 아카데미의 내부 정보에 대한 아카데미와의 사전 협의 없는 유출을 금지한다.
- ③ 교육생은 소프트웨어의 불법사용, 불법복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학장이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체크인 미팅

매번 체크인 미팅 등록 마감일까지 정원 내 등록인원을 마감하고, 결원이 발생하면 체크인 미팅 추가등록을 통해 추가 모집을 실시한 후, 체크인 미팅 최종인원을 선발했다.

체크인 미팅 최종인원은 체크인 미팅 지원페이지에 등록된 체크인 미팅 날짜가 되면 시스템상 자동으로 체크인 미팅 대기자 등록이 중지되면서 정원내 인원이 확정된다. 이후 취소자가 발생하면 사전에 확보된 대기자 명단 순서에 따라 사무국 직원들이 직접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최종 체크인 미팅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체크인 미팅 최종등록을 마친 인원이 집중교육(La Piscine) 과정에 등록한다.

재단은 체크인 미팅 최종등록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페이지에 집중교육 지원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해당 집중교육 지원자에 한해 제출하고, 집중교육 지원동기와 향후 계획 등이 담긴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재단은 이렇게 지원자가 입력한 프로필 정보를 통해 사전 집중교육 참여자가 재등록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재단은 이와 같은 체크인 미팅 프로세스를 거친 후, 집중교육 당일 지원자 등록을 최종 진행했다.

2020년도 체크인 미팅은 코로나19에 따라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체크인 미팅이 온라인 체크인 미팅으로 실시된다는 것을 사전 안내했으며, 구글 설문을 통해 비대면 체크인 미팅 절차를 마련한 후, 체크인 미팅을 실시했다.

(3) 오리엔테이션(1기 1차, 2차 대상)

재단은 1기 1차와 2차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오리엔테이션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2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는 진행할 수 없었다.

재단은 교육생을 모집하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다. 그동안 수동적이고 획일화된 교육환경에서 학습하고 경쟁해온 교육생들이 42서울의 자기주도적이고 동료들과 함께 학습해야 하는 교육특성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교육생 오리엔테이션과 창의캠프였다. 집중교육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창의캠프를 실시하여 42서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생들간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오리엔테이션은 2020년 1월 초로 예정된 창의캠프 이전에 진행해야 했다. 재단은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 강남구 선릉역 위워크와 가까운 역삼동 GS타워 1층 아모리스 역삼점에서 2019년 12월 27일(금)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단은 오리엔테이션을 대행업체 계약체결부터 결과보고 및 결산까지 보름 남짓한 기간에 모두 마쳐야 했다. 그래서 재단은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업체(중소기업 및 여성대표기업) 중, 최저가의 견적금액을 제시한 최게바라 기획사와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¹⁾. 오리엔테이션 참가 대상자가 500여명으로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었다.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선물구매조차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제때 배송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재단은 모든

¹⁾수의계약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제1항제5호가목 3)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준비를 마쳤고 볼펜과 마우스패드에 42서울 로고 실크 인쇄까지 해냈다.

재단은 계획대로 오리엔테이션을 12월 27일(금) 오후 2시에 시작했다. 참가자들이 앉자리부터 채워서 앉도록 하기 위해 행사 순서지를 비행기 티켓처럼 인쇄하여 좌석번호를 럭키 드로우 번호로 넣었고 오리엔테이션 중에 실시간 오픈채팅이 가능한 QR코드를 넣었다.

사전 이벤트로는 원하는 폼보드(formboard)를 찍고 포즈를 취할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했다. 이곳에서 촬영한 사진은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현장에 준비해둔 포토 키오스크 2대에서 즉석 인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20여개의 폼보드는 사전에 교육생들로부터 “42서울 합류로 얻고 싶은, 바라는 희망사항의 키워드”로 제작하였다.

오리엔테이션 본 행사는 사회자 대신 빠른 템포의 음악과 함께 화면에 비춰진 큰 텍스트로 시작됐다. 큰 화면에는 본 행사 시작 전 이벤트에 참여하며 즐거워하는 교육생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보여 지도록 했다. 행사 직전에 촬영된 자신의 모습들이 나오자 교육생들은 환호하면서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후에는 재단 관계자 4명과 42서울 교육생 6명이 이그나이트(ignite) 형식의 발표가 이어졌다. 객석 좌우에 설치된 3개의 스크린에서는 빠띠 타운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발표에 대한 질문들이 바로 공유되었다. 이그나이트(ignite)란 ‘불을 붙이다, 불이 붙다’라는 의미로, 정해진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등을 이용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발표하는 방식이다.

15장의 슬라이드가 각 20초씩 총 5분 동안 자동으로 넘어가는 이그나이트 발표 형식은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참가자 10명 모두 처음해보는 형식의 발표였지만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42서울의 진정한 주인공들이었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럭키드로우로 재단이 준비한 상품을 참가자들에게 선물하는 시간이었다. “행운은 랜덤으로 찾아오고, 팀원과 나누면 더욱 커진다”를 모토로 무대위에 설치된 LED 화면을 통해 랜덤으로 행운번호가 선정되었다. 행운의 상품은 당첨된 참가자는 물론이고 당첨자의 양 옆과 주변을 둘러싼 모두에게 주어졌다. 당첨자와 주변의 모든 교육생들이 즐거워했다. 교육생 대상의 첫 오리엔테이션이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비행기 티켓 닮은 행사 순서지

포토존과 폼보드



이그나이트 42 발표자와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민혁
이제까지 게임한
내 인생이 레전드



홍영택
42개국 75명과의
인도네시아 생활기



선우문형
42 실리콘밸리
경험기



손중영
비 전공자에서
전공자, 전공자에서
탈 전공자로



박조은
나의 성공기



송승운
문돌이 개발자
지망생 실패기



이민석
우리도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임지영
그 퍼블리셔는
왜 개발이 하고
싫어 했을까?



김종훈
42서울 운영진이
그리는 42서울 모습



김민창
서른 한 살 아재,
개발자가 되기에
늦지는 않았을까?



(4) 창의캠프(4회, 1기 1차, 1기 2차 대상)

재단은 1개월 집중교육(La Piscine)을 앞둔 42서울 1기 예비 교육생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경기도 양평군 불룸비스타에서 창의캠프를 열었다. 한 그룹(회차)당 100여명의 예비 교육생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1기 1차 및 2차 예비교육생 대상 창의캠프 진행 일정 >

구분	일정	비고
1그룹(1회차)	2020.1.6~1.8	1기 1차 집중교육 대상자 121명
2그룹(2회차)	2020.1.10~1.12	1기 1차 집중교육 대상자 104명
3그룹(3회차)	2020.1.14~1.16	1기 1차 집중교육 대상자 118명
4그룹(4회차)	2020. 2.7~2.9	1기 2차 집중교육 대상자 79명

재단의 창의캠프 실시 목적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기존의 교육시스템에 익숙한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자로 거듭나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었다. 프로그램 또한 이러한 실시 목적에 의거하여 기획하고 구성했다.

재단은 창의캠프 프로그램을 총 7개로 구성했다. 참가자들 모두 함께 활동하면서 친근감을 기를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취향을 가진 취향 셔플(Shuffle)로 서로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순간', 최적의 루트 찾기 게임으로 협업 마인드를 함양하는 '코드 15 최적의 루트를 찾아라',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예술가적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사물과 공감하는 예술가적 감성', 여럿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발표하는 '중구난방 손끝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만들어 홍보하는 '42초 광고영상 만들기', 기획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고 소통하는 '42서울 프로젝트 공유와 공감' 등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교육생 스스로 일정관리를 해야 하므로 자발적 시간관리 능력과 주도적 문제해결 능력이 필수로 요구됐다.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생들에게 시간관리 능력과 주도적 문제해결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주었다. 또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동료들과 협업을 통해 성취할 수 있도록 하여 나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성장하는 피어 러닝(Peer Learning)의 기본자세를 갖추 수 있도록 했다.

재단은 창의캠프 때 교육생들에게 '42서울 후드 티'를 제작해 나누어 주었다. 이른바 창의캠프 연수복으로 참가자 모두 디자인과 품질에 만족했다. 이후 '42서울 후드 티'는 1기 교육생의 상징이 되었다.



1일차 처음 입소했을 때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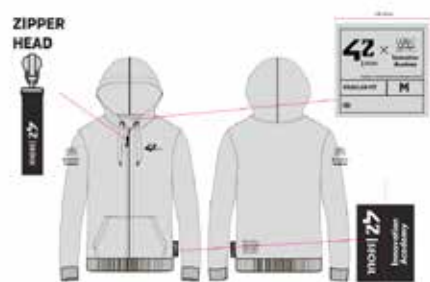
1일차 취향 셔플을 진행할 때 모습



4개 그룹 중 2그룹 창의캠프 단체사진 모습

처음 창의캠프 실시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다. 창의캠프는 기존의 학습 관행을 완전히 바꿔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캠프운영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야 했다. 그런데 부족한 준비 일정으로 인해 운영업체와 캠프 진행 직전까지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을 조율하고 조정해야 했다. 결국 완벽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1회차 창의캠프가 시작되었다.

42서울 창의캠프 후드 디자인



창의캠프가 진행되고 나서도 당일 일정이 마무리되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매니저들과 강사진들은 매년 늦은 시간까지 AAR(After Action Review)을 통해 하루 단위로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갔다. 1회차 창의캠프 때는 캠프실시 의도와 다르게 강사진의 주도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하지만 2회차와 3회차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한 결과 마지막 4회차에서는 피어 러닝(Peer Learning)과 자기주도 학습이 제대로 반영된 완벽에 가까운 캠프일정이 되었다.

재단은 4회차 캠프를 앞두고 한 때 고민에 빠졌다. 1, 2, 3회차 캠프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만 발발한 상황으로 아직 국내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때였다. 그런데 4회차를 앞두고는 국내에서도 빠른 속도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취소를 검토했다. 하지만 집중교육(La Piscine)을 모두에게 공정한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 했고, 캠프과정이 동료학습이 많은 42서울 교육과정에 앞서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방역을 철저히 하고 4회차 창의캠프를 진행했다.

재단은 창의캠프를 마치고 교육생들로부터 캠프에 대한 많은 피드백을 받았다. 매 회차가 진행될 때마다 교육생들의 만족도는 점점 높아졌다. 교육생들의 솔직한 후기에 의하면 캠프경험이 이후 진행되는 집중교육(La Piscine)과 본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관계 역량이 학습을 촉진시켜주는 42서울 과정의 특성상, 창의캠프가 이후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42서울에서 자체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창의캠프의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생 중심의 프로젝트 콘테스트인 '프로그램 42'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팀을 인터뷰했더니 해당 팀원들은 창의캠프 때 처음 만나 친해진 것이었다. 이때 인연으로 1개월 집중교육(La Piscine)을 함께 이겨냈고, '프로그램 42' 콘테스트까지 함께 하게 되어 최고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창의캠프가 매우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2020년에 진행된 기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창의캠프가 전격 취소되어 교육생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교육생은 물론이고 재단에게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다. 재단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관계 역량을 증진시킬지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2일차 프로그램이 시작되며,
조원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



2일차 저녁에 42초 광고 영상을 만들면서,
조별로 단체사진을 찍는 모습



3일차 공유와 공감 때, 각 조의 아이디어를
설명해주고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해
피드백 해주는 모습



코로나19 관련하여 열 체크 모습

(5) 집중교육(La Piscine) 에피소드(1기 1차, 1기 2차, 2기1차, 2기 2차)

재단은 2020년 총 4회(1기 1차, 1기 2차, 2기1차, 2기 2차)에 걸쳐 1개월 집중교육(La Piscine)을 진행했다. 1기 2회, 2기 2회 등 총 4회의 집중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집중교육 등록 및 시험, 조별 프로젝트 때마다 예비 교육생들 간의 동료애, 본 과정 교육생들이 후배 예비 교육생들에게 전하는 진실한 조언, 예비 교육생의 동기부여를 위한 깜짝 이벤트 등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다.

○ 등록 때 일어난 에피소드

2기 2차 집중교육 등록 때, 1기 본 과정 교육생들이 처음으로 집중교육 등록과정에 참여하여 후배인 예비 교육생들 대상으로 42서울 봉사활동을 펼쳤다. 본 과정 교육생 5명은 2기 2차 집중교육 과정에 등록하려는 예비 교육생들의 동선을 안내하고 간략한 42서울 오리엔테이션 등 봉사활동을 했다.

○ 조별과제 때 일어난 에피소드

집중교육 때, 예비 교육생들을 3인 1조로 나누어 수행하는 조별 과제가 있었다. 그런데 3명 모두 비전공자로 구성된 조가 있었다. 조원 중 1명의 전공자도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 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과제를 수행했다. 더욱이 과제 진행 중 부정행위 하나 없이 과제를 완수하여 멘토단은 이 조를 극찬했다. 전공자가 1명도 없었지만 동료학습과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역량을 키워간 42서울 교육목적의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로 멘토들은 손꼽았다.

러시(Rush, 조별과제) 평가에 처음으로 본 과정 교육생들이 참여했다. 러시평가는 교육생 3~4명이 한 조를 이루어 주어진 팀프로젝트 과제를 진행하는 42 교육만의 특화된 조별과제이다. 본 과정 교육생들은 처음에는 과제평가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다소 우려 속에 긴장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평가가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 듯이 다양한 경험담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예비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될 족집게 조언을 건넸다. 집중교육 종료 후, 한 예비 교육생은 본 과정 교육생들이 긴장을 풀어주려고 활기찬 분위기를 유도했고 러시평가 중 건넨 따뜻한 조언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러시평가에 참여했던 본 과정 교육생들은 직접 러시평가를 해 보니 집중교육을 이수할 당시 놓쳤던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평가자로 참여한 경험은 본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러시평가가 끝난 후 자체회의 때 밝혔다.

○ 시험 때 일어난 에피소드

1기 2차 집중교육 최종시험을 치를 때였다. 예비 교육생 한 명이 시험 도중 반복적으로 오답이 나오자 시험을 포기하려고 했다. 이를 지켜본 재단 직원이 다른 예비 교육생들의 시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해당 예비 교육생이 최종시험을 무사히 끝까지 치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준 일이 있었다. 그 예비 교육생은 재단 직원의 격려에 힘입어 남은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최종시험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2기 1차 및 2차 집중교육 시험 때는 시험 전 준비시간에 재단의 이벤트 담당 직원이 리코더를 불러 예비 교육생들의 긴장을 풀어준 일이 있었다. 시험을 마친 예비 교육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리코더 소리에 심적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 TIG 에피소드

42캠퍼스에는 교육생들이 규칙 위반행위를 할 때, 다소 장난기 있으면서 의미 있는 벌칙을 주는 문화가 있다. 이를 프랑스어로 TIG(Travail D'int r t General)라 부르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지역봉사라는 뜻이다. 1기 1차 및 2차, 2기 1차 및 2차 등 총 4회에 걸친 집중교육 기간 동안 42서울캠퍼스에서도 재미있고 유익한 TIG들이 있었다.

최초로 TIG를 받은 한 예비 교육생은 클러스터를 돌아다니며 다른 예비 교육생들에게 42서울의 집중교육 운영규정을 상기시켜 주는 활동을 했다. 이로 인해 예비 교육생들에게 학칙을 전파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었고, 예비 교육생 간 친목도모도 할 수 있었다. 건물 출입구에서 교육장으로 들어오는 예비 교육생들과 인사하는 TIG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역시 예비 교육생 간 친목 도모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했다.

집중교육을 받고 있는 동료 예비 교육생들을 모아 교육장 입구에서 운동을 하는 TIG도 있었다. 동료들과 운동하는 TIG는 매일 책상에 앉아서 교육받는 예비 교육생 동료들 간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효과도 톡톡히 있었다.

○ 기타 이벤트

1기1차 집중교육 때, 이민석 학장의 의견제시로 설 연휴 동안에도 클러스터에 나와 학습을 이어가는 예비 교육생들에게 '세뱃돈 증정' 이벤트를 실시했다. 봉투에 임의로 현금을 얼마 넣어 이를 예비 교육생들에게 증정하는 이벤트였다. 설 연휴 동안 지속된 학습으로 지쳐 있던 예비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번은 '우렁각시' 같은 일이 매일 일어났다. 새벽 시간마다 센터 앞 벤치에 도넛이 놓여 있고 내부 메신저에는 자유롭게 가져다 먹으라는 메시지만 올라왔다. 예비 교육생들 모두 이 '우렁각시'가 누구일까 궁금해했다. 예비 교육생들과 재단 직원들이 확인한 결과, 예비 교육생 1명이 새벽 시간마다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도넛을 사와서 동료 교육생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었다. 모든 예비 교육생들은 그 예비 교육생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 예비교육생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해 예비 교육생들 간 신뢰는 더욱 돈독해지고 42서울의 긍정적 문화 정립 및 확산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1기 2차 집중교육 때는 친해진 일군의 예비 교육생들이 서로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의욕 증진을 위해 등·하교 때마다 인증사진을 찍는 퍼포먼스를 4주 동안 매일 진행했다. 이 일로 해당 예비 교육생들은 굴곡 없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심리적 토대를 마련했고, 집중교육 종료 후에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2기 1차 집중교육 때, 교육운영팀 보컬(bocal)이 주도하여 '노래 맞추기' 이벤트를 열었다. 그동안 '노래 맞추기' 이벤트는 약식으로 몇 번 열렸는데 교육생들의 반응이 뜨거워 2기 1차 집중교육 때 정식 이벤트로 진행했다. 형식은 시대와 관계없이 다양한 노래를 짧게 재생한 후, 예비 교육생들이 해당 노래의 제목과 가수 혹은 작곡가를 맞추는 것이었다. 정답을 맞힌 교육생에게는 '42서울 스티커'를 상품으로 주었다. 예비 교육생들은 "노래 맞추기" 이벤트는 학습에 지쳐 있을 때, 학습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긍정적인 면학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아르메니아 수도인 예레반에 있는 '42 예레반'과 협동 라이브 방송 때, 42서울예비 교육생들과 인터뷰하는 코너가 있었다. 이 인터뷰는 42예레반이 집중교육 시작 전인 42예레반 예비 교육생들에게 집중교육 과정의 분위기와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영어가 유창한 예비 교육생들이 방송 인터뷰에 응해, 42서울의 집중교육 과정에서 학습하고 느꼈던 것을 진솔하게 답변했다. 42 예레반측은 42서울 예비 교육생들과 인터뷰가 42 예레반 운영을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42서울스태프에게 감사인사를 전해왔다.

2기 집중교육 시험 때는 재단 직원이 리코더를 붙여 교육생들의 긴장을 풀어주었는데 이번에는 한 예비 교육생이 운동장 및 센터 내에서 리코더 연주를 하였다. 처음에는 다소 당황한 예비 교육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내 즐거운 표정으로 호응해 주었고 경직된 분위기가 풀어졌다고 예비 교육생들이 말했다.

2기 1차에 이어 2차 집중교육 때도 ‘노래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2차 때는 본 과정 교육생들이 이벤트 스태프로 참여하여 1차때보다 이벤트 규모가 커졌다. 노래를 맞힌 예비교육생들에게 나눠줄 상품도 본 과정 교육생들의 자발적 기부와 증정으로 늘었다.

8월 15일 광복절 때는 본 과정 교육생들이 주도하여 예비 교육생들과 함께 광복절 온라인 만세삼창 중계 이벤트를 실시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광복의 기쁨과 영광을 공유하자는 뜻에서 진행했는데 많은 예비교육생들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6) 선발위원회, 집중교육(La Piscine) 결과(1기 1차, 1기 2차, 2기 1차, 2기 2차)

2020년 1월 20일 시작한 첫 집중교육(La Piscine)을 마친 후, 재단 사무국은 바로 본 과정 교육생 선발에 들어갔다. 1기 1차의 경우는 체크인 미팅에서만 420여명에 이르는 인원이 응시를 했기 때문에 선발과정 자체가 간단치 않았다. 1기 1차 최종 시험(Final exam)을 2월 14일 끝내자마자 교육운영팀은 곧바로 교육생 집중교육 결과 데이터를 산출했다.

2월 17일, 1기 1차 교육생 선발위원회 개최를 위해 재단 직원 5명과 외부 전문가 2명을 초청하고 이튿날인 2월 18일, 선발위원회를 열었다. 선발위원회는 집중교육을 마친 예비교육생의 성적을 검토하고 장시간 토론에 끝에 1기 1차 본 과정 교육생 207명을 선발했다.

1기 1차 본 과정 교육생을 선발한 후 재단은 2월 24일부터 열리는 1기 2차 집중교육을 준비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는 2월 23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곧바로 교육기관 폐쇄조치 명령을 내렸다. 재단 직원 모두는 일요일인 2월 23일 출근하여 1기 2차 집중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일정 연기를 안내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되었을 때, 재단은 1기 2차 집중교육 진행을 위해 5월 25일 교육장을 다시 열었다. 1기 2차 집중교육은 5월 25일 시작하여 6월 19일 종료됐다. 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1기 1차 집중교육 결과 데이터 취합과 간담회를 담당했던 교육 운영팀 절반은 집중교육 결과 데이터를 취합하고, 나머지 절반은 간담회 주최 역할을 맡았다. 1기 2차 예비교육생의 인원은 1기 1차의 절반도 안 되었다. 그래서 본 과정 교육생 선발회의가 짧은 시간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 1기 2차 예비교육생은 1차에 비해 인원수는 적었지만 전반적으로 성적은 1차 때보다 높아 합격선을 정하기가 어려웠다. 선발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46명을 1기 2차 본 과정 교육생으로 선발했다.

재단은 2기 1차부터 집중교육을 격일제(하루 온라인 강의, 하루 오프라인 출석)로 운영했다. 2기 1차는 총 300명이 집중교육에 참여했다. 격일제로 운영된 2기 1차 집중교육은 7월 24일 종료되었다. 종료 후, 교육운영팀은 집중교육 결과를 취합하여 7월 마지막 주에 선발위원회를 개최했다. 최종 전형결과 300명 중 149명이 본 과정 교육생으로 선발됐다.

2기 2차 집중교육은 7월 마지막 주에 시작했지만 예정보다 한 달이나 늦은 9월 18일 종료됐다. 8월 17일부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최종시험을 앞두고 모든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었다. 재단은 유관 부처와 논의 끝에 최종시험 날짜를 9월 18일로 확정하고 철저한 방역을 마친 후, 최종시험을 진행했다. 최종 시험을 치르고 선발절차를 거쳐 2기 2차 집중교육 참가자 300명 중 151명을 본 과정 교육생으로 선발했다.

(7) 42서울 교육생(피신타 대상자 및 본과정 진입자) 현황

○ 피신타 대상자 누적 자료(2020.10.31. 기준)

교육생 수(명)	성별(명)		연령 평균(세)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여부(명)		1주일 평균 학습시간(시간)*	
	남	여		전공	비전공	교육장출입	인트라넷접속
930	656(71%)	274(29%)	26.5	343(37%)	587(66%)	68.2	66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장 운영을 축소하였기 때문에 1주일 평균 학습시간은 교육장 출입이 자유로웠던 1기 1차 피씨너로 한정함

2020년 10월 31일 기준 42서울 피신타 참가자 수(1기 1차~2기 2차)는 총 930명이다. 930명 중 549명이 피신타를 통과하여 본과정에 진입하였으며, 1기 1차 기준 피씨너들은 일주일에 약 67시간(하루 약 9.6시간)동안 온/오프라인 소프트웨어 학습에 임했다.

○ 본과정 진입자 현황(2020.10.31. 기준)

교육생 수(명)	성별(명)		연령 평균(세)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여부(명)	
	남	여		전공	비전공
549	411(75%)	138(25%)	25	232(42%)	317(58%)

피신타 참가자들과 본과정에 진입 교육생을 비교하였을 때,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없었다. 다만 남자 교육생들의 비율이 약간 높아졌으며 합격한 교육생들의 연령은 피씨너 전체 평균연령보다 조금 낮았다. 다만 본과정에 진입한 학생들 가운데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자 비율은 42%이며, 이는 피신타에서의 전공자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피신타를 통한 선발 과정이 전공자에게 특별히 유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고, 사전 지식보다는 새로운 학습방법에의 적응도가 더 중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8) 피실험 대상자 분석_ 사전 사후 설문 및 중도 포기자(1기 1차)

재단은 42서울의 1기 1차 집중교육(La Piscine) 참가자를 대상으로 '집중교육 효과성 분석'(2019.12.23.~2020.2.19.)을 실시했다. 처음 실시한 1개월 집중교육의 성과를 여러 변인별로 분석해 앞으로 진행할 본 과정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수립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역량'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 개발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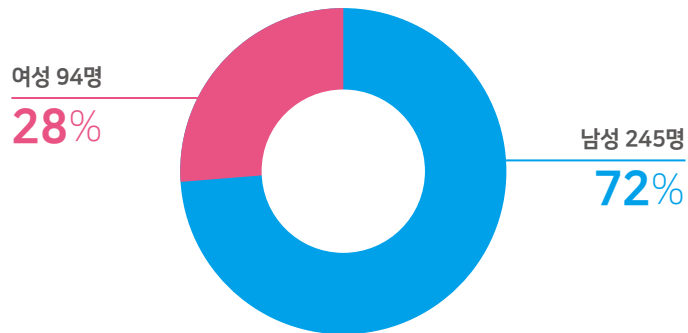
재단은 먼저 집중교육 참가자 전원에게 사전 설문을 통해 참가자 전원 기본정보를 조사했다. 그리고 1개월 집중교육을 끝까지 마친 참가자들 대상으로는 사후 설문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중도에 그만 둔 포기자들 대상으로는 별도의 인터뷰를 진행해 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했다.

❶ 집중교육 참가자 기본정보 조사

○ 1기 1차 집중교육 참가자 기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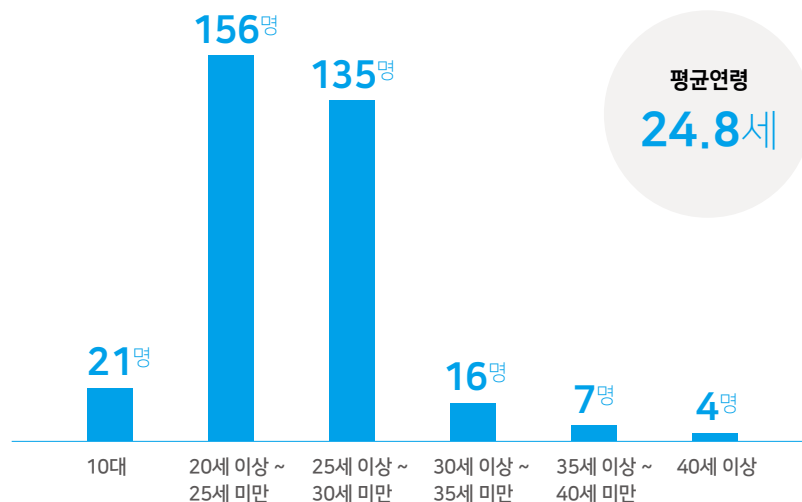
- 성별 구성 현황

1기 1차 집중교육 참가자는 총 339명으로 남성이 72%(245명), 여성이 28%(94명)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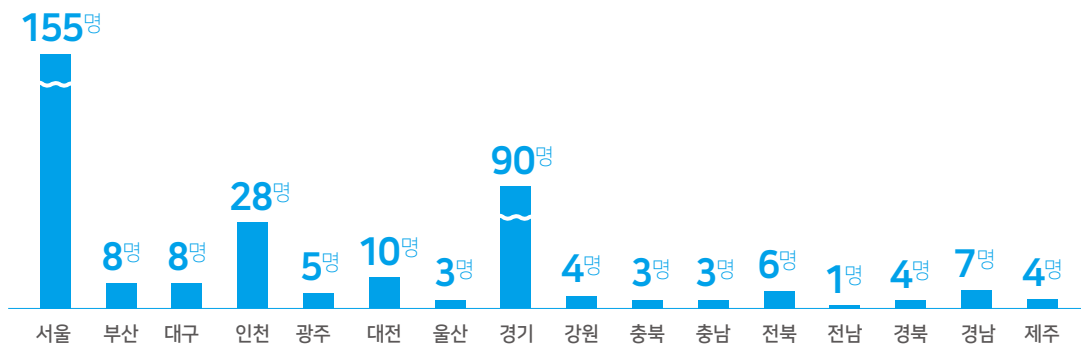
- 연령 분포

참가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85.8%(291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뒤를 이어 30대 6.8%(23명), 10대 6.2%(21명), 40대 이상 1.2%(4명)였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4.8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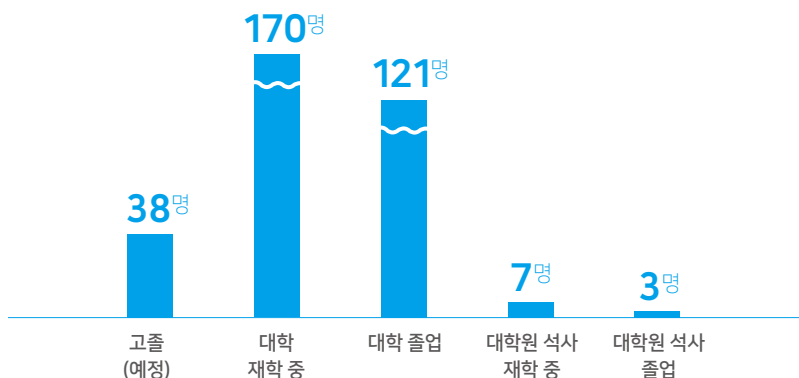
- 거주지(교육 참여 이전 거주 지역)

참가자의 거주지는 서울 45.7%(155명), 경기 26.5%(90명), 인천 8.3%(28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80.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광역시인 대전 2.9%(10명), 부산과 대구 각각 2.4%(8명)이고, 제주 거주자도 1.2%(4명)로 조사됐다. 이처럼 참가자가 수도권에 집중된 이유는 지리적 여건상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참가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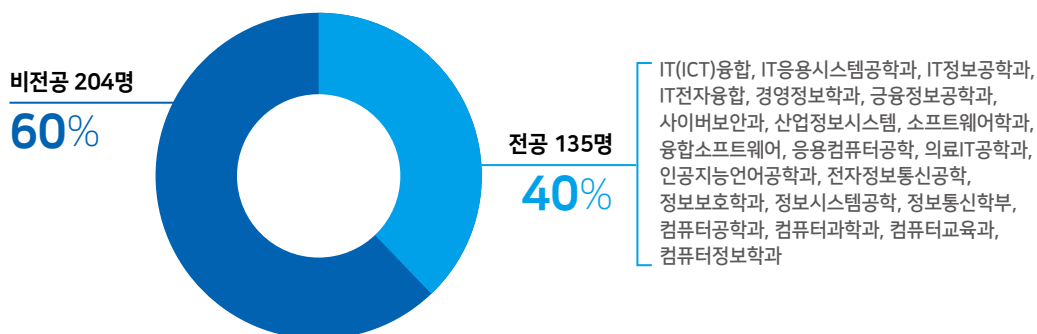
- 교육 수준(학력)

참가자의 학력은 대학 재학 중이 50.1%(170명)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대학 졸업자 35.7%(121명), 고등학교 졸업(예정) 11.2%(38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가자들 대부분이 취업준비의 일환으로 42서울 교육을 선택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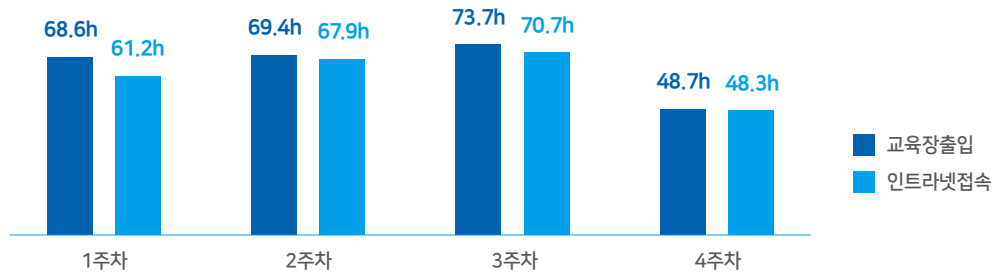
-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여부

참가자들의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유무와 관련해서는 비전공자가 60%(204명)로 전공자 40%(135명)보다 20% 포인트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42서울의 교육 특성상,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협업 학습이라는 특수한 환경 등의 요인이 비전공 참가자들에게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 출석률: 교육장 출입시간 및 인터넷 접속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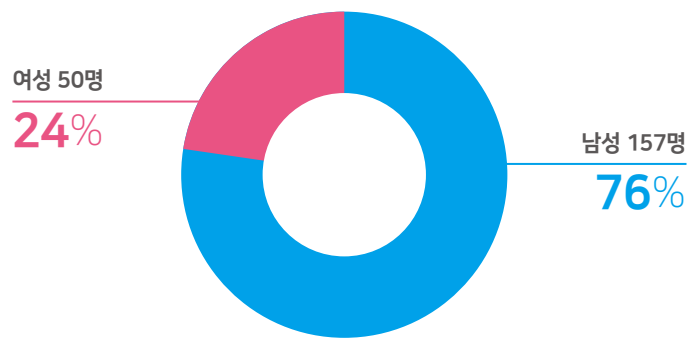
집중교육 참가자들은 교육기간 동안 1주일 평균 65.1h 교육장에서 학습하고, 1주일 평균 62h 인터넷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가자들이 하루 10시간 이상을 학습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의미했다.



○ 1기 1차 집중교육 합격자 기초 통계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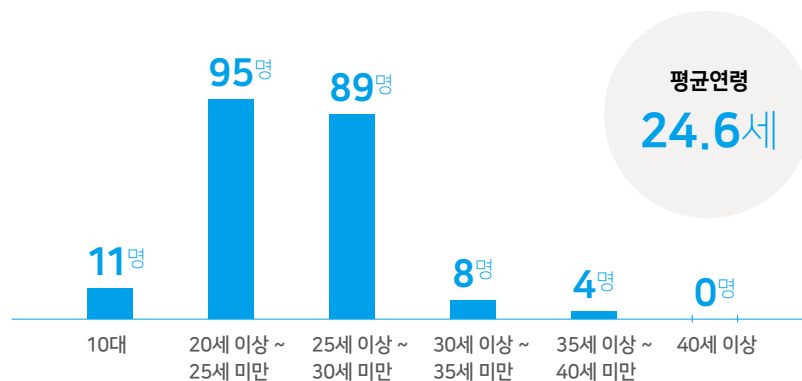
- 성별 현황

1기 1차 집중교육 합격자는 참가자 339명 중 61%인 207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남성 참가자가 76%인 157명, 여성 참가자는 24%인 50명이 합격한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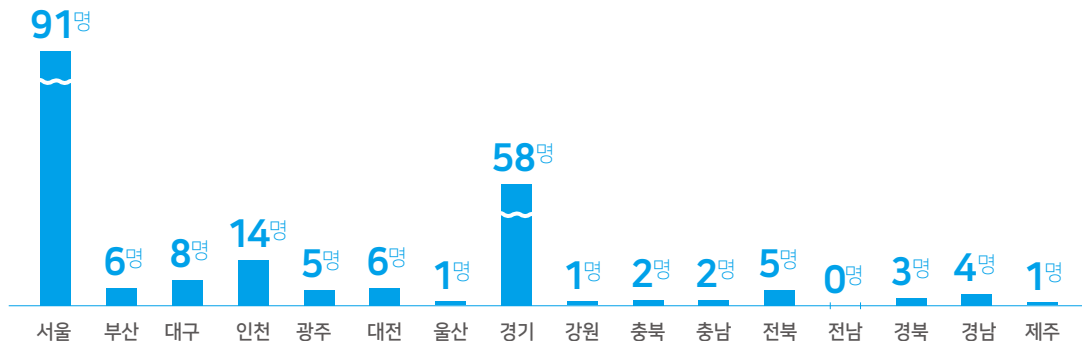
- 연령 현황

1기 1차 집중교육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4.6세였다. 20대 합격자가 가장 많은 184명으로 88.9%를 차지했다. 그리고 30대 12명(5.8%), 10대 11명(5.3%) 순이었다. 40대 이상 합격자는 1명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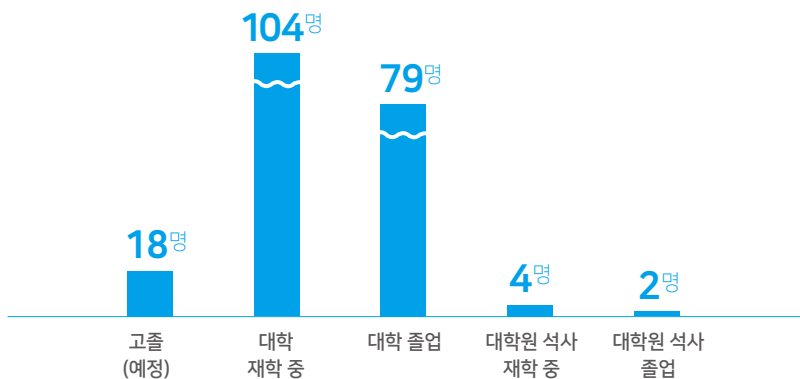
- 거주지 현황

1기 1차 집중교육 합격자의 거주지는 서울 44%(91명), 경기 28%(58명), 인천 6.8%(14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78.8%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광역시인 대구가 3.9%(8명), 부산과 대전이 각각 2.9%(6명), 광주가 2.5%(5명)로 조사됐다. 제주지역 거주자도 1명 합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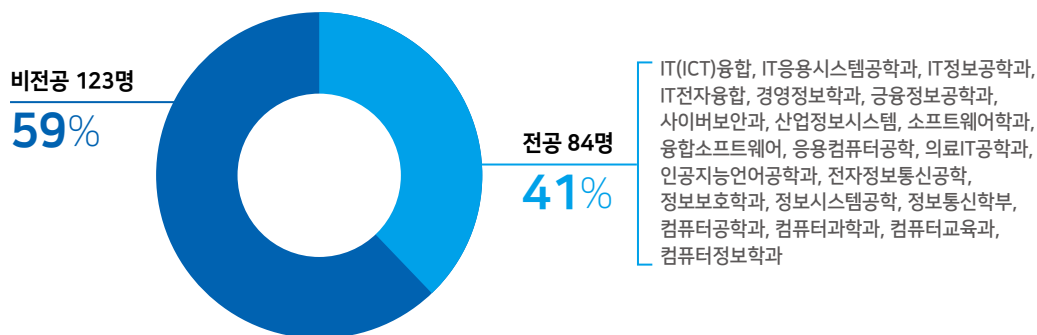
- 학력 현황

1기 1차 집중교육 합격자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50.2%(104명)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대학 졸업자 38.2%(79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8.7%(18명), 대학원 석사 재학 중 1.9%(4명), 대학원 석사 졸업 1%(2명)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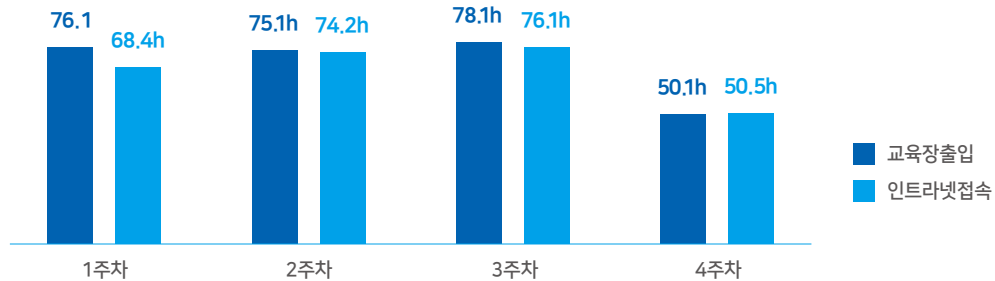
-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여부

합격자들은 소프트웨어 관련 비전공자가 59%(123명), 전공자는 41%(84명)로 나타났다. 1기 1차 집중교육 합격자들의 기초 통계(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전공) 비율은 참가자 전체 기초통계와 큰 차이가 없었다.



- 출석률: 교육장 출입시간 및 인트라넷 접속시간

교육생들의 출석률은 전체 집중교육 참가자들과 합격자들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합격자들의 1주일 평균 교육장 학습 시간은 69.9h로 참가자 평균(65.1h)보다 4.8h 많았고, 1주일 평균 인트라넷 접속 시간은 67.3h로, 참가자 평균(62h)보다 5.3h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격자들의 학습 시간이 전체 참가자의 학습시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합격과 학습시간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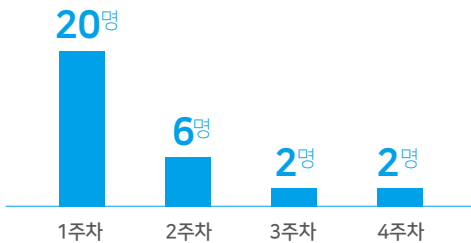


○ 중도 포기자(1기 1차) 기초 통계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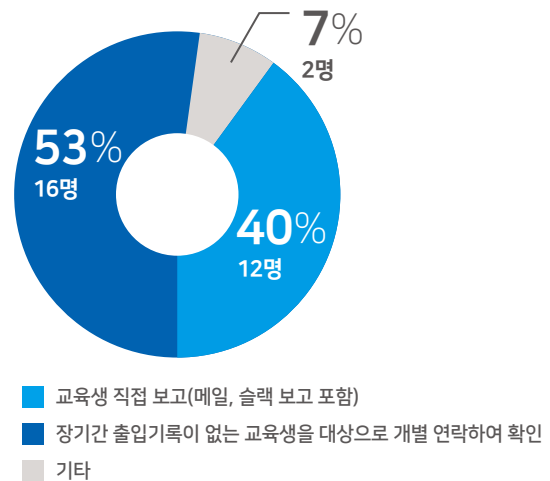
1차 1기 참가자 339명 중 중도 포기자는 8.8%인 30명으로 나타났다.

중도 포기자들의 포기 시점은 1주차가 66.7%(20명)로 가장 높았다. 이는 대다수의 중도 포기자들이 42서울의 교육과정에 대한 초기 진입장벽을 극복하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반면 협업학습, 교수 및 교재가 없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적응에 성공하여 1주차를 통과할 경우, 2주차는 6명(20%), 3주차와 4주차는 각각 2명(6.7%)으로 나타나 중도 포기 확률은 현저하게 낮아졌다.

- 포기 시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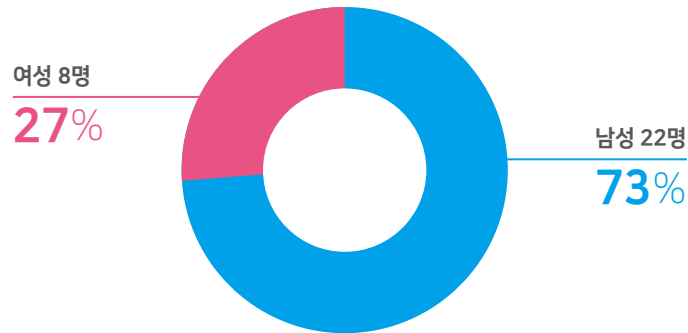
- 포기의사 확인 경로



중도 포기자들은 교육생이 직접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보다 재단에서 출입기록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통해 확인한 경우가 많았다. 중도 포기자 중 장기간 출입기록이 없는 교육생 대상으로 개별연락을 통해 확인한 경우가 53%(16명)로, 교육생이 직접 포기의사를 밝힌 40%(14명)보다 13%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단이 중도 포기자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생들과 더욱 활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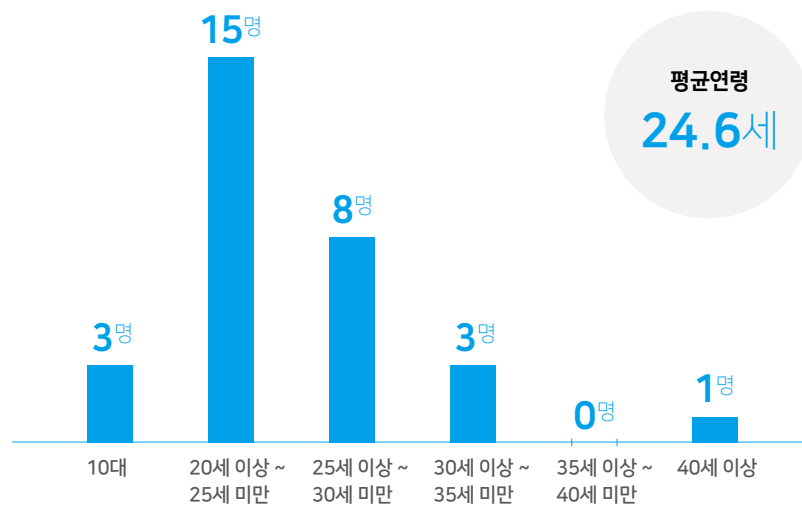
- 성별 현황

중도 포기자 중 남성은 73%(22명), 여성은 27%(8명)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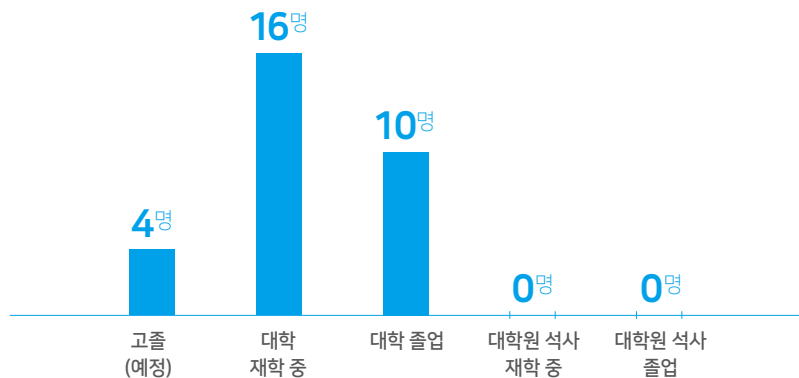
- 연령 현황

중도 포기자의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은 60%(18명)로 나타났고, 30대와 10대가 각각 10%(3명)로 조사됐다. 중도 포기자의 평균연령은 24.6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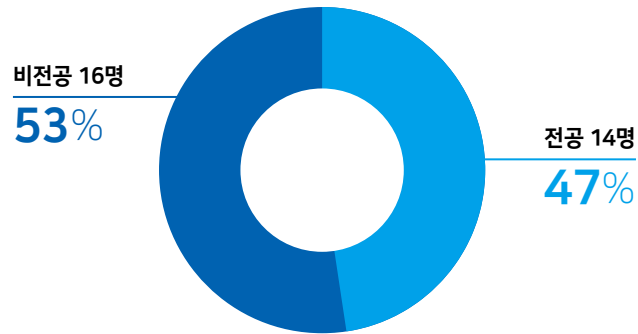
- 학력 현황

중도 포기자의 학력은 대학 재학 중 53.3%(16명), 대학 졸업 33.3%(10명), 고졸(예정) 13.3%(4명)로 조사됐다. 대학원 이상 학력자 중에서는 중도 포기자가 1명도 없었다.



-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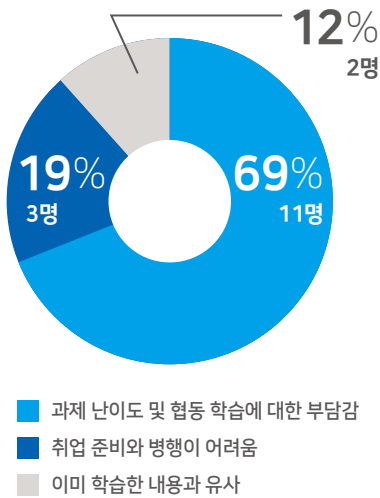
중도 포기자들 또한 소프트웨어 관련 비전공자가 53%(16명)로 전공자 47%(14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도 포기자들의 인적사항 관련 통계 또한 전체 참가자 및 합격자의 기초통계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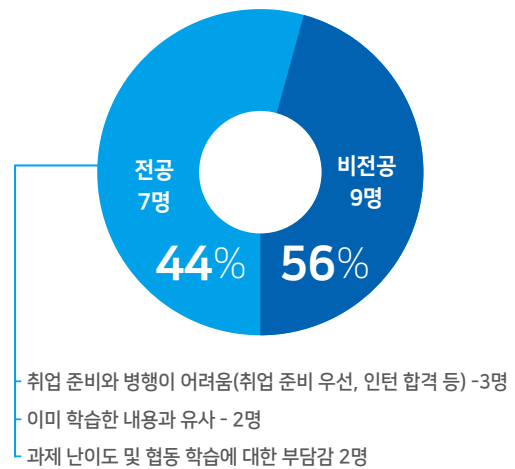
○ 중도 포기자 분석

재단은 중도 포기자들의 포기 사유를 조사해 향후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중도 포기자들 대상으로 인터뷰(대면 및 온라인)를 실시했다. 총 30명의 중도 포기자 중, 53.3%(16명)가 인터뷰에 응했다

- 중도 포기 이유(응답자 전체)



- 중도 포기 이유(전공/비전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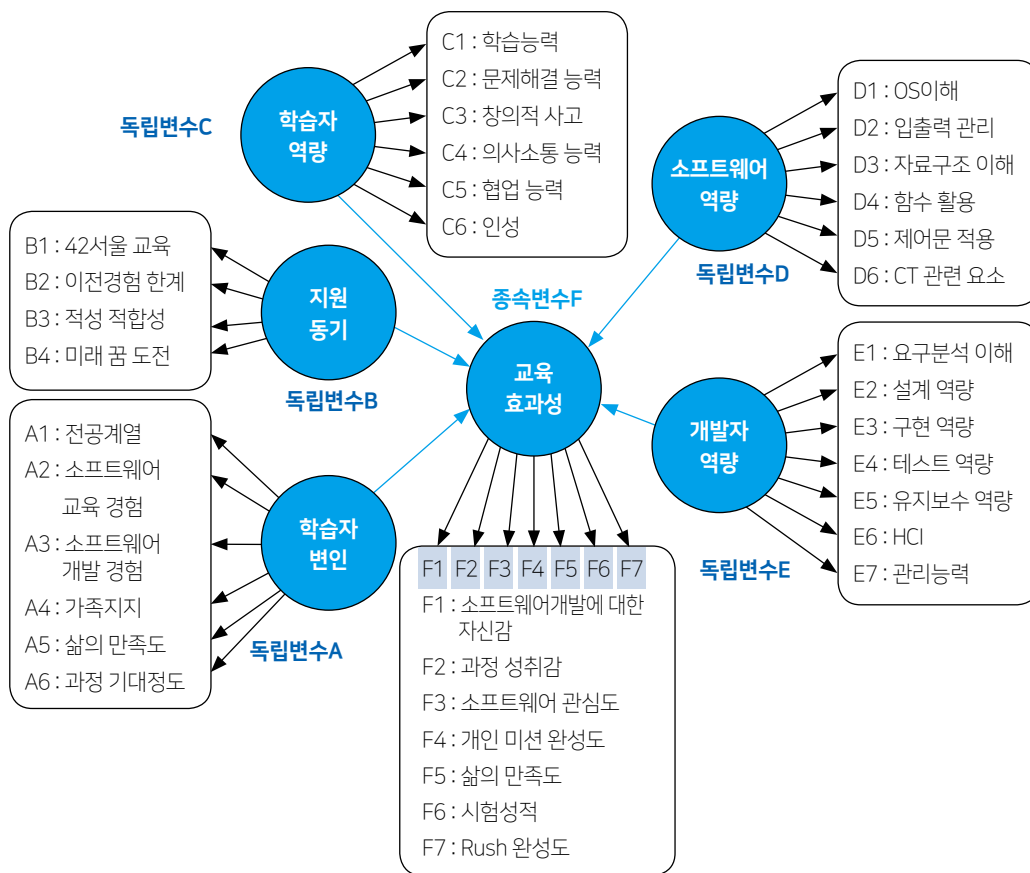


중도 포기 사유로는 '과제 난이도 및 협동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69%(11명)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수치는 비전공자(53%)일수록 전공자(44%)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이미 학습한 내용과 유사' 12%(2명), '취업 준비와 병행이 어려움' 19%(3명) 등으로 완주하지 못한 참가자들이 있었다.

중도 포기자 중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는 56%(9명), 전공자는 44%(7명)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자의 중도 포기 이유는 '취업 준비와 병행이 어려움'이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미 학습한 내용과 유사' 및 '과제 난이도 및 협동 학습에 대한 부담감'은 각각 2명으로 조사됐다.

② 집중교육 효과성 분석 조사

재단은 집중교육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관련 연구 문헌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하위요소를 설정하여 조사모형을 설계하고, 설문 문항을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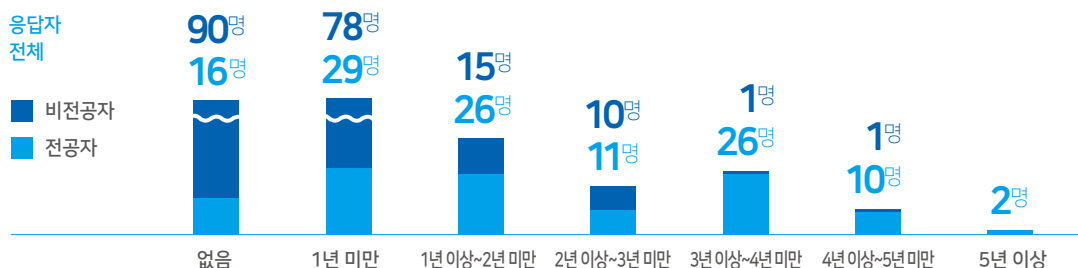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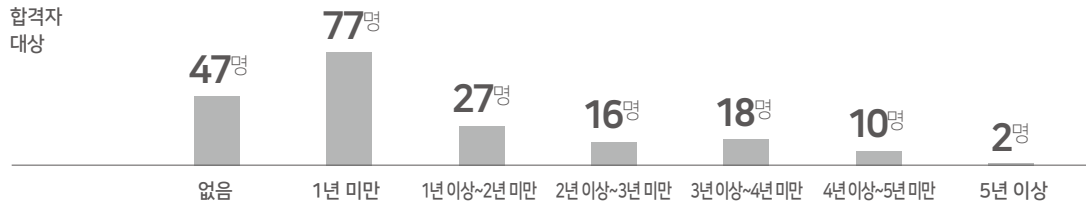
재단이 개발한 설문 문항은 사전 설문 133개, 사후 설문 195개 등 총 328개 문항이다. 사전 및 사후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이 분석되었다.

A. 학습자 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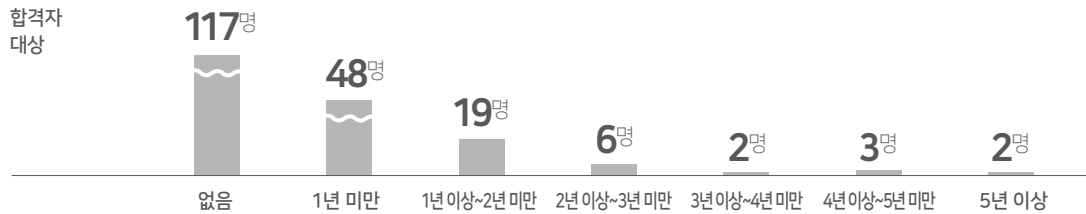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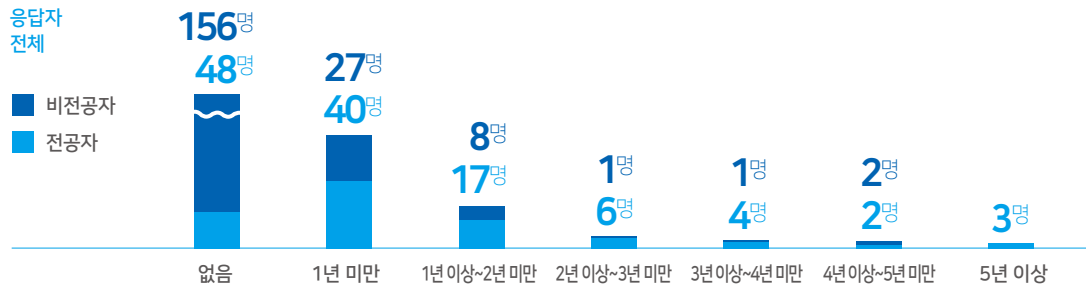
전공계열: 기초 통계자료 참조

- 소프트웨어 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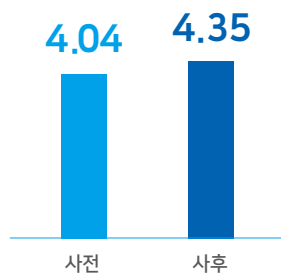


-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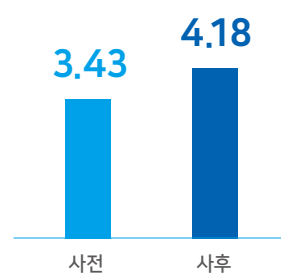


설문에 응답한 교육생 중 소프트웨어 교육 및 개발 경험이 '없음~1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315명 중 소프트웨어 교육경험이 '없음~1년 미만'은 67.6%(213명),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없음~1년 미만'은 86%(271명)이었다. 합격자 197명 중 소프트웨어 교육경험이 '없음~1년 미만'은 62.9%(124명),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없음~1년 미만'은 83.8%(165명)이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유관 전공자 중 소프트웨어 교육경험을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정규 교육을 교육 경험으로 여기지 않음)가 있는 등 향후 설문 시 해당 설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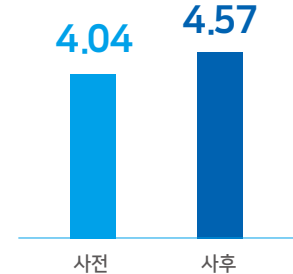
- 집중교육 전후 가족 지지 정도



- 집중교육 전후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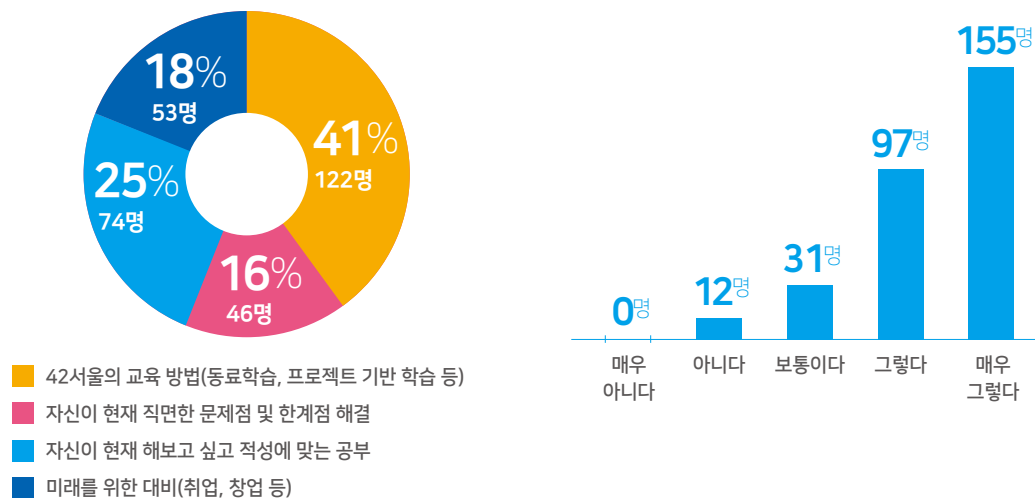
- 42서울에 대한 기대 정도



집중교육 후 '교육생의 가족 지지'와 '교육생의 삶의 만족도', '42서울에 대한 기대 정도'는 집중교육 전에 비해 개선된 지표를 나타냈다. 특히 집중교육 후, '교육생의 삶의 만족도'는 현저하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B. 지원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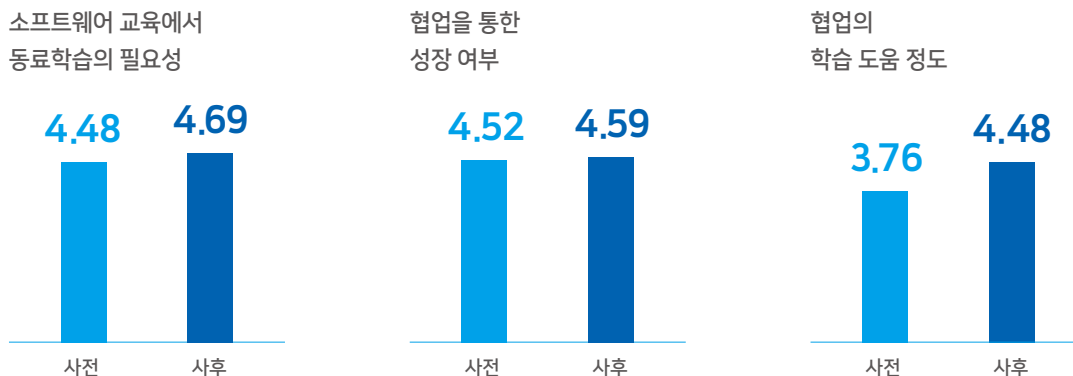
- 42서울 지원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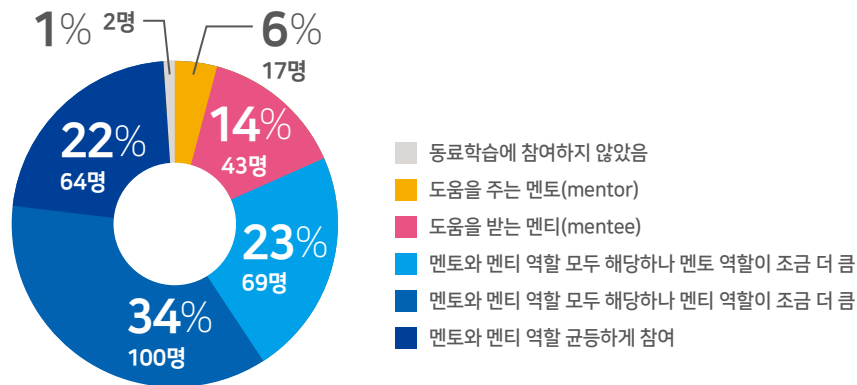
교육생들은 '42서울의 특별한 교육 방법(동료학습,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42서울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동기로 꼽았다. 지원동기 분석결과 '42서울의 교육방법'이 41%(122명), '자신이 현재 해보고 싶고 적성에 맞는 공부' 25%(74명), '미래를 위한 대비' 18%(53명), '자신이 현재 직면한 문제점 및 한계점 해결' 16%(46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 동기가 집중교육 과정을 통해 만족됐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295명) 중 '매우 그렇다' 52.5%(155명), '그렇다' 32.9%(97명) 등으로 대답해 85.4%(252명)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이다'와 '아니다'는 각각 10.5%(31명), 4.1%(12명)에 그쳤다.

- 동료학습

42서울이 역점을 두고 있는 동료학습 관련한 설문 결과, 응답자들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동료학습의 필요성 ▲ 협업을 통한 성장 여부 ▲ 협업의 학습 도움 정도 등을 높이 평가해 동료학습의 효과가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협업의 학습 도움은 집중교육 후 높은 수치를 나타내 동료학습에 대한 필요성 절감은 곧 42서울의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을 입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 멘토/멘티로서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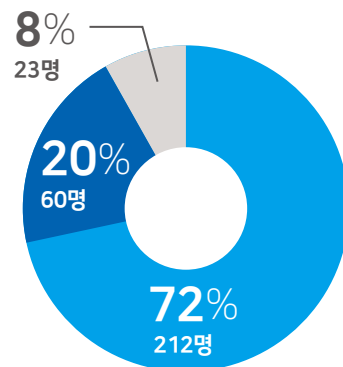


집중교육 참가 교육생들 대부분은 멘토와 멘티 역할을 모두 수행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중교육 과정 중 교육생 본인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멘토와 멘티 역할에 균등하게 참여했다'는 응답이 22%(64명)로 나타났다. '멘토와 멘티 역할 모두 해당하나 멘티 역할이 조금 더 크다'는 응답은 34%(100명), '멘토 역할이 조금 크다'는 응답은 23%(69명)로 파악됐다. 특히 '도움을 받는 멘티 역할(14%)'이 '도움을 주는 멘토 역할(6%)'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료학습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에 그쳤다.

- 멘토 경험 관련

교육생 중 멘토 경험자는 72%(212명)로 나타났다. 멘토 경험을 하면서 멘토 입장에서 어려웠던 점에 대한 질문에는 38.4%(141명)가 '내용은 알지만 설명하기가 힘들었다'고 응답했다. 또 '멘토가 모르는 내용을 멘티가 물어볼 때' 29.7%(109명), '한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설명해야 할 때' 9%(33명), '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김' 6%(22명) 등으로 나타났다.

■ 있었다 ■ 없었다 ■ 멘토 역할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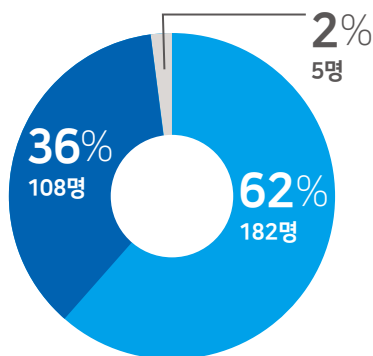


구분	인원	비율
내용은 알지만 설명하기가 힘들었음	141명	38.42%
멘티가 모르는 내용을 물어봄	109명	29.7%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설명해야 했음 (한 사람 대상)	33명	8.99%
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김	22명	5.99%
여러 사람이 질문함	21명	5.72%
내가 터득한 내용을 전달해 주기가 탐탁치 않았음	6명	1.63%
기타	35명	9.54%
합계	367명	100.0%

- 멘티 경험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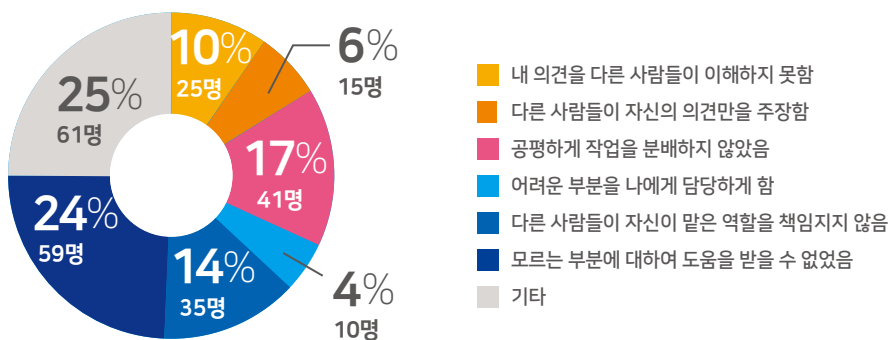
참가 교육생 중 멘티 경험자는 62%(182명)로 조사됐다. 멘티 경험을 하면서 멘티로서 불편한 점에 대한 질문에 '질문하면 방해될까 봐 조심스러웠다' 27.4%, '여러 번 묻는 것이 미안했다' 23.4%,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었다' 15.1% 등 65.9%가 멘티 역할 수행 중 불편했다고 응답했다.

■ 있었다 ■ 없었다 ■ 멘토 역할 해당 없음



구분	인원	비율
질문하면 방해될까 봐 조심스러웠음	109명	27.39%
여러 번 묻는 것이 미안했음	93명	23.37%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었음	60명	15.08%
누구에게 물어야 좋을지 망설였음	57명	14.32%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음	41명	10.30%
물어보면 짜증을 내는 것 같아 위축 됐음	19명	4.77%
기타	19명	4.77%
합계	398명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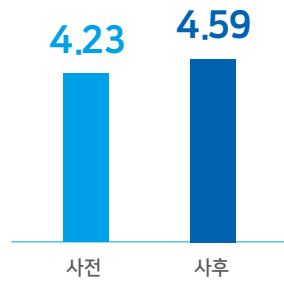
- 협업학습이 어려웠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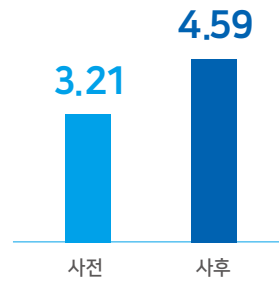
집중교육 과정에서 협업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교육생들은 '모르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24%), '공평하게 작업을 분배하지 않았다'(17%),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책임지지 않았다'(14%) 등을 꼽았다.

- 42서울 교육에 대한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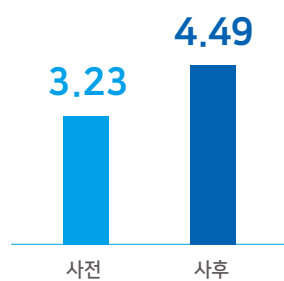
3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만족 사전·사후 설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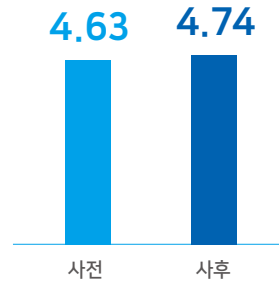
교수 없는 학습에 대한 인식



교재 없는 학습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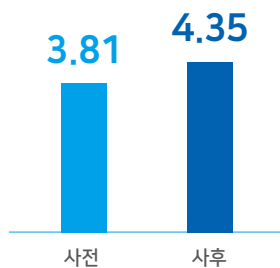


등록금 지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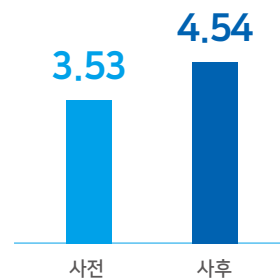
교육 효과성에 대한 설문 중, 3무(無)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만족 관련해 교육생들의 인식은 집중교육 전후로 다르게 나타났다. '교수 없는 학습에 대한 인식', '교재 없는 학습에 대한 인식', '등록금 지원에 대한 인식' 등 3무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결과, 집중교육 이전 교육생들에게 가장 큰 메리트는 교육비 절감으로 나타났다. 집중교육 이후는 교육비보다 교재와 교수가 없는 동료학습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단의 집중교육이 당초 목적대로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 소프트웨어 개발 적성 적합성



집중교육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이 자신의 적성에 맞음을 확인한 교육생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육생들이 집중교육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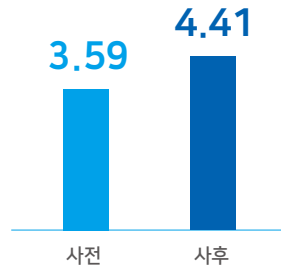
- 소프트웨어 개발자 역량 강화를 위한 42서울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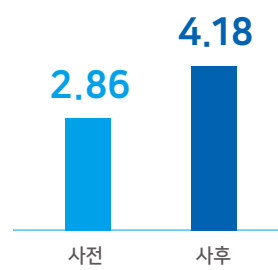
소프트웨어 개발자 역량 강화를 위한 42서울의 필요성은 집중교육 전과 집중교육 후 다르게 나타났다. 집중교육 전 사전설문에서는 '42서울은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의 다양한 형태와 방법 중 하나'라는 인식이었다면 집중교육 후 사후설문에서는 '42서울 교육 방식이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해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이해했다.

- 취업 및 창업 의지

42서울의 취업 도움 정도



42서울의 창업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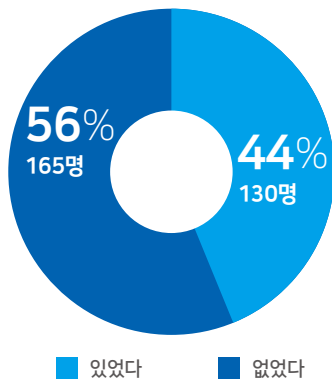


집중교육 후 참가 교육생들은 42서울 교육이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이 된다고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보다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처음에 취업을 목적으로 42서울 과정을 선택했지만, 집중교육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자신의 미래 진로를 확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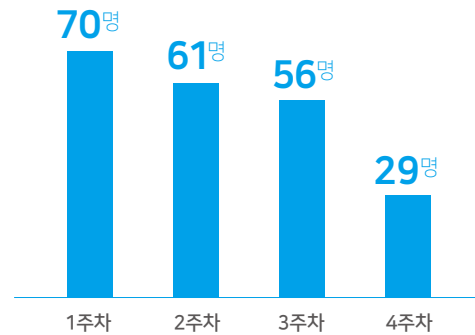
○ 중도포기 의사

집중교육 과정 중, 교육생의 44%가 중도 포기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교육 과정 중 중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44%(130명)가 '있었다'고 응답했고, 56%의 교육생은 전혀 중도 포기의사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 중도 포기 유무



- 중도 포기 생각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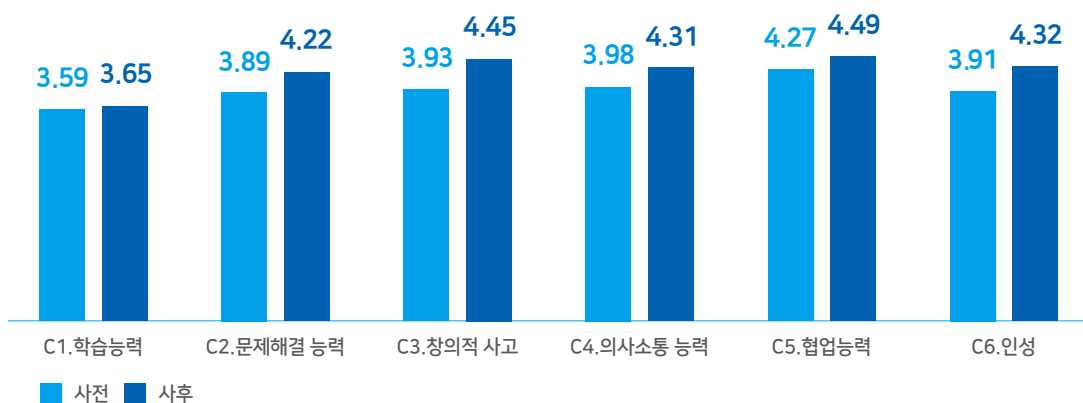


중도 포기의사가 있었다는 교육생 중, '언제 포기 생각을 했느냐(중복 응답 가능)'는 질문에 1주차에 '포기할 생각을 했다'고 응답한 교육생이 7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후 교육이 진행될수록 2주차 61명, 3주차 56명, 4주차 29명 등 포기 의지는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생들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때는 '자신의 한계를 느꼈을 때' 23.2%, '다른 교육생들과 실력차이에 대한 자괴감으로 인하여' 20.8%, '소프트웨어 기초 지식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15.4% 등 59.4%가 '능력의 한계와 기초지식의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구분(중복 응답 가능)	인원	비율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꼈을 때	89명	23.2%
다른 교육생들과 실력 차이에 대한 자괴감으로 인하여	80명	20.8%
소프트웨어 기초 지식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59명	15.4%
너무 빠른 진도로 인하여	42명	10.9%
적극적 사회성이 필요한 교육 환경으로 인하여	21명	5.5%
식사 해결이 어려워서	16명	4.2%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로	15명	3.9%
교육 시작 전 미리 학습할 내용을 충분히 공지해 주지 않아서	12명	3.1%
협업 과정에서의 실망감으로 인하여	8명	2.1%
당면한 취업의 해결을 위하여	5명	1.3%
동료 학습자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4명	1.0%
이미 충분히 아는 내용이었어서	3명	0.8%
배우는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3명	0.8%
기타	27명	7.0%
합계	384명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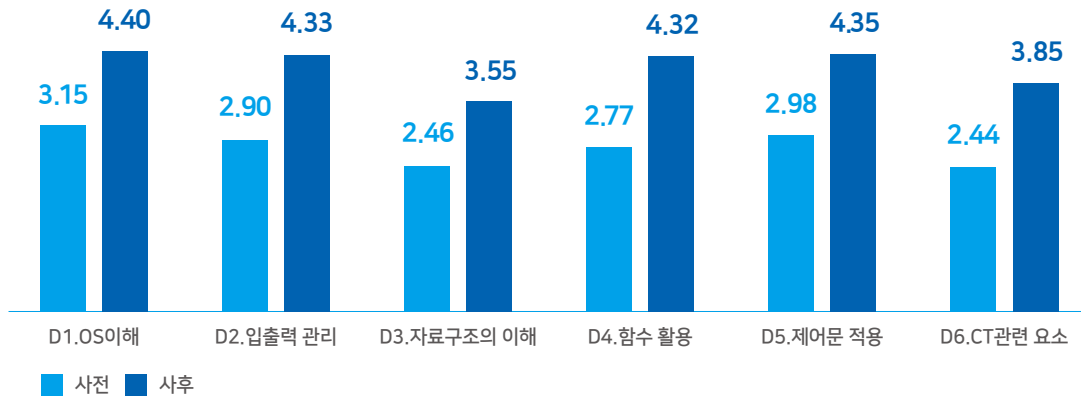
C. 학습자 역량

학습자 역량은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을 정의할 수 있는 척도에 해당한다. 재단은 학습자 역량에 속하는 하위 요소를 선택하기 위해 문헌 조사를 실시했다.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요소 및 연구자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우선 선택했다. 연구자들의 논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학습자 변인과 학습자 역량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재단은 연구자가 한 논문에서 언급한 변인과 역량을 구분하지 않고 가급적 모두 제시하여 연구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학습자 역량을 총 6 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해당요인별 집중교육 대상자들의 사전 및 사후 분석 결과, 집중교육 참가자들의 학습 역량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의적 사고'와 '인성', '문제해결 능력' 요인은 높은 향상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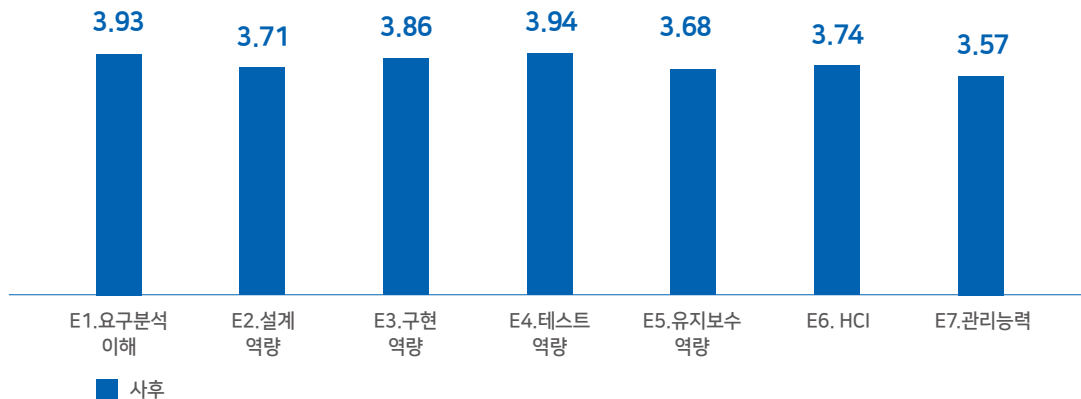
D. 소프트웨어 역량

소프트웨어 역량은 집중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구성했다. 그리고 재단이 교육생들에게 제공한 교육자료를 근거로 하여 하위 요인을 추출했다. 그 결과 소프트웨어 역량은 학습자 역량에 비해 큰 향상폭을 보였다. 특히 '함수활용', '입출력관리', 'CT관련 요소' 등의 요인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42서울이 학습자의 소프트웨어 관련 이론적 지식 함양에 효과적 작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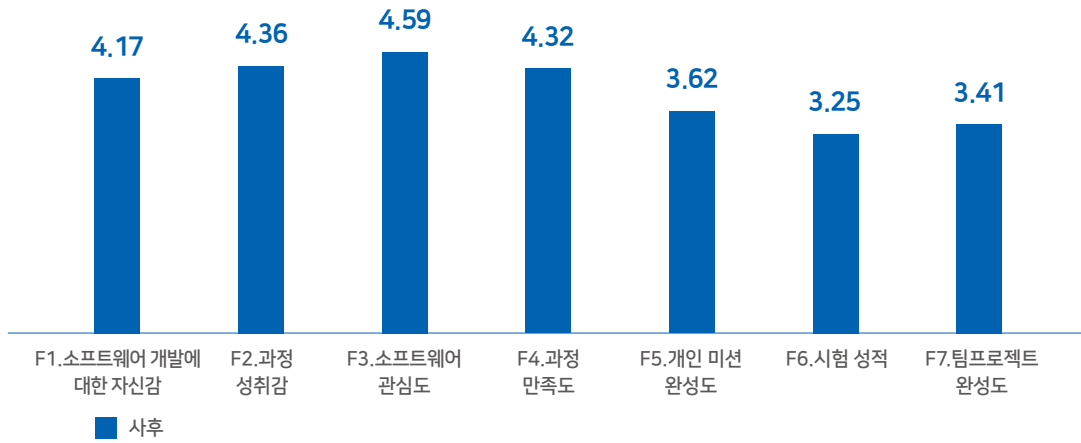
E. 개발자 역량

재단은 개발자 역량을 정의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본으로 반영하여 183개 요소를 추출한 뒤, 개발자로서 경험 및 소프트웨어 공학의 지식을 근거로 7가지 하위 요소로 정의했다. 개발자 역량은 특성상 사후 설문만 실시했다. 설문 결과, '테스트 역량'과 '요구분석 이해', '구현 역량' 요인 등에서 높은 역량을 보였다.



F. 교육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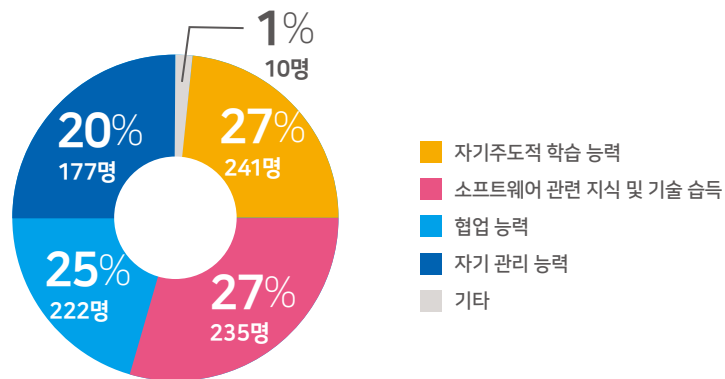
재단이 분석하는 교육 효과성은 일반적인 교육 효과성이 아닌 소프트웨어 교육 측면에서의 교육 효과성 분석이다. 이른바 문헌 분석을 통해 '자신감', '성취감', '관심도'의 하위 요인을 설정하고 집중교육 과정을 반영하여 '교육 만족도', '개인 미션 완성도', '최종 성적 분석', '팀 프로젝트(Rush, BSQ)의 완성도와 만족도' 4가지를 추가로 정의했다. 이러한 7가지 교육 효과성 하위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개인 미션 완성도', '팀 프로젝트 완성도', '시험 성적' 등과 관련된 응답평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생 스스로 결과물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분석됐다. 반면 '집중교육 과정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관심도' 등은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로 받아들여졌다.



③ 재단 추가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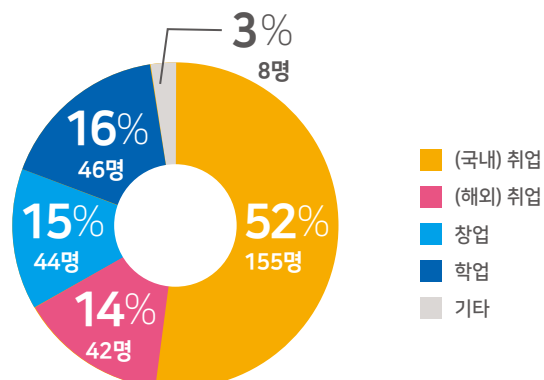
재단은 집중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 과정을 통해 향상된 역량 ▲향후 진로 ▲진출희망 산업 분야 ▲42서울 알게 된 경로 ▲42서울 및 집중교육 과정에 대한 생각과 의견 자유 기재 등 추가문항을 통해 42서울과 집중교육 등에 대한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집중교육 과정을 통해 향상된 역량(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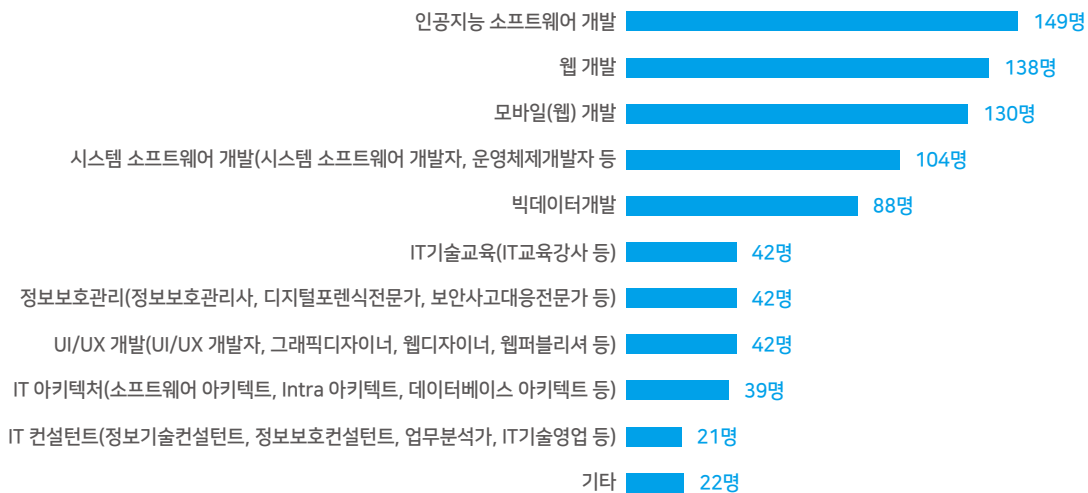
교육생들은 집중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27%)과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27%)이 가장 크게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협업능력(25%)과 자기관리 능력(20%) 분야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향후 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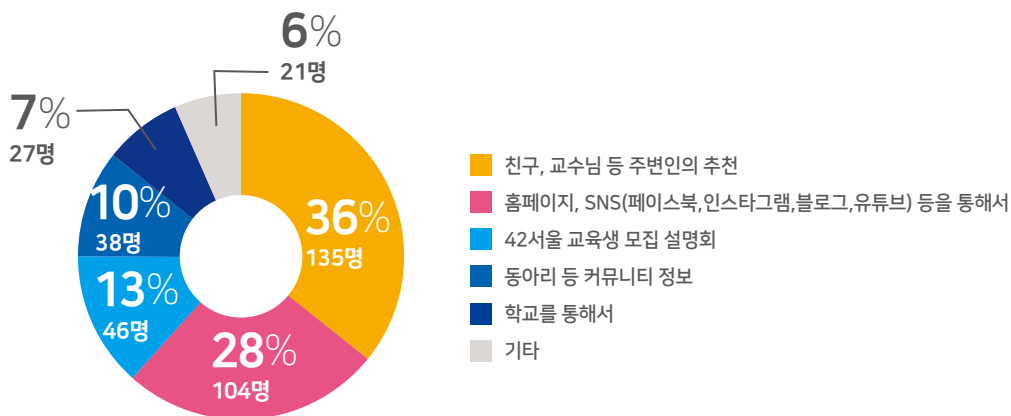
교육생들은 42서울 교육을 마치고 국내 관련업계 취업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진로'에 대한 질문에 국내 취업이 52%(155명)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계속해서 학업 전념 16%(46명), 창업 15%(44명), 해외 취업 14%(42명)로 나타났다.

○ 진출 희망 산업 분야(복수 응답 가능)



'진출희망 산업 분야'에 대한 질문에 교육생들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개발 분야를 제1순위(149명)로 꼽았다. 뒤를 이어 웹 개발(138명), 모바일 앱 개발(130명),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104명) 순으로 희망했다.

○ 42서울 알게 된 경로



'42서울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교육생들은 친구와 교수님 등 주변인의 추천이 36%(135명)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재단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서가 28%(104명), 42서울 교육생 모집설명회 13%(46명), 동아리 등 커뮤니티 정보 10%(38명), 학교를 통해서 7%(27명) 등으로 조사됐다.

○ 42서울 및 집중교육 과정에 대한 생각, 의견 자유 기재

교육생들은 ‘Peer to Peer의 유익성’을 42서울 및 집중교육 과정에 대한 최고의 긍정성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느낌’, ‘교육방법, 프로그램 관련 긍정적 반응’, ‘몰입해 있을 수 있었던 시간’ 등의 호평이 뒤를 이었다. 반면 ‘시설관련 미흡사항’ 과 ‘시험문제 번역 오류’, ‘집중교육 프로그램 개선 필요사항’ 등을 부정성으로 평가했다.

긍정 의견		부정 의견	
카테고리	횟수	카테고리	횟수
Peer to Peer의 유익성	12	시설관련 미흡사항	19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느낌	11	시험문제 번역 오류	18
교육방법, 프로그램 관련 긍정적 반응	9	La piscine 프로그램 개선 필요사항	11
몰입해 있을 수 있었던 시간	7	뒤쳐지는 학생들 우려 이슈	9
스텝 및 직원 관련 만족	4	시험 및 평가관련 오류사항 및 아쉬움	7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된 시간	3	의욕 있는 참가자 선별 중요	6
시설/환경 관련 만족	3	서버 에러관련 개선	5
		스텝에게 아쉬운 점	5
		프로그램 규칙 관련 이슈	3
		지원금 관련	3
		팀프로젝트 관련 사항	3
		안전관련 미흡사항	2
		과도한 경쟁 분위기 우려	1
		보안관련 아쉬운 점	1

(9) 본 과정 교육 진행 시 에피소드

재단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본 과정 교육도 교육장 출입인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진행했다. 교육장 출입은 에꼴42에서 전달받은 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출입을 신청한 교육생에 한해 가능했다. 그런데 에꼴42의 예약시스템은 교육장 출입예약은 쉬운 반면에 교육장에 나온 교육생이 실제로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한 교육생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었다. 온라인 예약여부를 확인하려면 재단 직원이 교육생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직접 물어봐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다.

그러자 본 과정 교육생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어느 한 교육생이 먼저 본인의 특기인 포토샵 기능을 활용하여 예약증을 디자인했다. 그리고 디자인한 예약증에 마킹하여 본인이 예약한 시간을 다른 동료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마킹을 해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자 다시 본 과정 교육생들이 42서울에서 배포한 공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이용해 '예약증'을 뽑아주는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강남석 본 과정 교육생은 직접 미니 프린터를 가져왔고 2명의 동료와 함께 이틀만에 예약증 자동 발급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42서울이 추구하는 인재상인 5C(Creativity(창의성), 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 Challenge(도전정신), Convergence(융합역량), Collaboration(공감과 협업)) 역량의 결과물이었다. 이른바 교육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여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비판적 분석을 한 뒤 융합하고 동료와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실제로 보여준 사례였다.

재단은 2020년 9월, 서울시 강남구 대릉서초타워에 1개월 집중교육 진행을 위한 전용 교육공간을 마련했다. 집중교육 전용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면서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온전히 본 과정 교육생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변모했다. 지금까지 본 과정 교육생들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의 새롭관 2층을, 1개월 집중교육과정 예비교육생들은 새롭관 4층과 5층을 사용했다. 이제는 본 과정 교육생들이 새롭관 2층부터 5층까지 온전히 본 과정 전용 교육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집중교육 과정 예비교육생들이 대릉서초타워로 떠나면서 본 과정 교육생들은 새롭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새롭관 1층에서 e스포츠 대회를 열었고, 음악을 좋아하는 교육생들이 자발적으로 악기를 기부하여 음악 연주실도 만들었다. 어느 한 교육생은 전자 피아노를 가져와 누구든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게 비치해 두었고, 42서울 교육운영팀의 김종훈 매니저는 나눔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 통기타를 기증했다. 또한 김병윤 본 과정 교육생은 동료간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보드게임 동아리를 모집하여 점심과 저녁시간에 보드게임을 진행했다. 새롭관 지하 1층에서 보드게임을 진행하며 코딩으로 과열되었던 머리를 식힐 수 있게 되었다.

(10)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진행

재단은 2020년 2월 19일, 42서울 본 과정 1기 1차 교육생 207명을 최종 선발하고, 2월 24일부터 본 과정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2월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한 교육장에 수백명의 교육생을 받는 것은 위험하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관부처의 의견으로 1기 1차 본 과정 교육 개시일이 무기한 연기됐다. 2월 23일 교육개시 연기결과와 함께 본 과정 교육생의 교육장 출입금지가 실시됐다.

재단은 본 과정 교육 개시가 무기한 연기되고 교육생의 교육장 출입도 금지되면서 42서울교육일정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했다. 본 과정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2월 26일부터 본 과정 교육생들에게 온라인

과제가 주어졌다. 4월 3일에는 본 과정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인 과카몰리 접속방법을 교육생들에게 안내했다. 이때부터 본 과정 교육생들의 클러스터 원격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재단은 온라인 교육의 일환으로 본 과정 교육생 대상 온라인 이벤트를 4월 10일부터 개최하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프로그램 42', '42 마리텔', '42 e-sports' 등을 진행했다.

5월 8일부터는 화상 접속을 통한 비대면 세미나인 웨비나를 주기적으로 열었다. 웨비나는 테크세미나의 일환으로 42서울 본 과정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소프트웨어업계 전문가와 소통하고 궁금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됐다. 웨비나는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수요일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면서 42서울의 장점인 동료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상호학습의 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확인됐다. 또한 교육생들이 장기간 교육장에 출입하지 못해 동료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피로도 누적으로 교육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재단은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호전된 6월 29일부터 기존의 원격접속을 통한 온라인 교육과 함께 교육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학습하는 오프라인 교육도 병행했다. 오프라인 교육은 교육생들이 본 과정 좌석 예약 플랫폼을 통해 교육장 내 좌석을 예약하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제한된 인원만 교육장 방문을 허용하여 진행됐다. 본 과정 오프라인 교육 예약시스템은 6월 29일부터 코로나19 상황 호전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규제 완화 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장 오프라인 교육 시에는 교육생 간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를 위해 교육장 내 좌석을 최대 76석으로 한정해 운영했다.

(11) 동기부여를 위해 개최한 온라인 이벤트 및 결과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과 달리 온라인으로 교육일정이 진행되면서 교육생들의 교육분위기 쇠신차원에서 2020년 상반기에 '소인수분해 프로그램'과 42데이 이벤트인 '프로그램42', '42마리텔', '42 e-sports' 등 총 4가지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했다.

○ 소인수분해 프로그램

재단은 교육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첫번째 이벤트로 '소인수분해 프로그램 대회'를 2020년 4월 3일 개최했다. 소인수분해 프로그램 대회는 특정 숫자 하나를 명령어 라인 인자로 입력하면 해당 숫자를 소인수 분해해서, 결과값으로 나오는 소수들을 작은 수에서 큰 수의 순서로 딱 한번씩 차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4월 3일 오전 0:42분까지 해당코드(특정 숫자 하나를 명령어 라인에서 인자로 입력해 소인수 분해하여 결과값으로 나오는 소수들을 작은 수에서 큰 수의 순서로 딱 한번씩 차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간 'github repository link'를 설문에 등록해 제출하는 형식으로 지원신청을 받았다. 접수 결과 총22명의 교육생이 지원했다. 평가 기준은 해당코드가 ▲정답을 제대로 냈는지 ▲입력 오류사항을 잘 처리했는지 ▲코드가 인식(readable) 가능한 지 등 세가지였다. 수상자는 재단 임직원과 42서울 교육생의 투표를 통해 1~4위를 정했다. 최종 평가 결과 김은홍 교육생이 1등을 차지했다.

소인수분해 프로그램 대회 수상자 현황

- 1등 : 김은훤 (eunhkim) https://github.com/eunhyulkim/ft_factorization
- 2등 : 김정환 (jeonkim) https://github.com/kim-jh/42_factorization.git
- 3등 : 이태혁 (taelee) https://github.com/taelee42/prime_facto.git
- 4등 : 장인석 (ijang) <https://github.com/flalini/factorization>

재단은 1등을 수상한 김은훤 교육생에게는 김은훤 교육생이 지정한 식당에서 이민석 학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보컬팀 1명, 김은훤 교육생이 초청한 다른 교육생 1명 등 4명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재단은 7월 20일 저녁, 김은훤 교육생과 김은훤 교육생이 초청한 교육생, 한현규 매니저, 이민석 학장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차 순위 세 명에게는 42 실리콘밸리에서 직접 공수해온 42로고 물병을 상품으로 전달했다.

○ 42데이 온라인 이벤트

재단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분위기가 경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본 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42데이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42', '42마리텔', '42 e-sports' 등 총 3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재단은 이러한 게임화(Gamification) 이벤트를 통해 교육생들의 교육 분위기를 제고하고 학습동기를 북돋아 주고자 했다.

① 프로그램42

프로그램42는 본 과정 교육생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자유 프로젝트 경연대회 형식으로 열렸다. 참가자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장점을 마음껏 살릴 수 있도록 분야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프로그램42는 교육생들이 그룹 또는 단독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기획하고 개발하는 포괄적 개념의 경연대회로 진행됐다. 2020년 4월 13일~17일까지 5일 간 프로그램42 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팀 구성을 마쳤다. 최종 마감결과 총 27개 팀에 교육생 47명이 지원했다.

< 27개 참가팀 프로그램42 주제 >

1	seongpar	chlim, sooyoon	3	게임
2	japark	cyu	2	날 씨 앱
3	hajo		1	웹, TODO list, 크롤링
4	dachung	sohpark, jilim	3	조별과제 장소 지정 선별기
5	sujlee		1	점심 메뉴 고르는 프로그램
6	yoolee	hmin	2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7	hyejang	kylee	2	The shelter
8	yshim	donglee, dakim	3	42 SNS
9	myoh		1	책
10	yujo	cbaek	2	터미널 어플리케이션

11	jinwkim		1	game of life
12	hyeokim	sjeon	2	Push 어플리케이션
13	eunhkim	iwoo, jaejeon	3	42 학습자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관계 큐레이션 소프트웨어
14	hyeyoo	kyokim	2	Piscine 어플리케이션
15	hycho		1	터미널 헤더용 셸스크립트 프로젝트
16	juhlee	jushin	2	teachable 어플리케이션
17	dyun		1	리얼타임 엔진 관련 에셋
18	gicho		1	오디오 파일 재생 IOS 앱
19	hjeon	yjeon, dohkim	3	42인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20	seunkim		1	성경 웹 앱
21	junhpark	kyeo	2	사진찍어서 어플리케이션
22	chshin		1	간단한 ai 기반의 웹 서비스
23	junelee		1	복호화 프로그램
24	dochoi		1	unity를 이용한 간단한 게임 앱
25	kchoi		1	클러스터 내 Youtube Studio 예약 페이지
26	hhan	skang, han	3	교환일기
27	gmoon		1	유튜브나 노션 개선

4월20일부터 5월 15일까지 21개 각 팀별 프로젝트 기획과 개발이 진행됐다. 각 팀별 프로젝트 평가는 5월 18일부터 6월5일까지 실시됐다. 평가는 프로젝트의 대중성을 반영해 전문가 심사와 참가자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심사를 추가해 열린 평가로 진행됐다.

모든 참가자에게도 본인을 제외한 다른 팀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코멘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멘토단) 심사단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비상근 멘토단과 함께 27개 각 팀의 프로젝트 수행과제를 평가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운영팀은 27개 참가팀 프로젝트 수행과제를 평가했다. 최종 평가결과 'cart savior' 프로젝트를 진행한 '능히버섯'이 1등상을, '42mate' 프로젝트를 진행한 '우리사이 무슨사이'가 2등상을 수상했다.

구분	수상자	비고
Program 42 1등상	능히버섯 팀 Cart Savior 프로젝트	정다현, 박소현, 임지영
Program 42 2등상	우리사이 무슨사이 팀 42mate 프로젝트	김은홍, 우인준, 전재열

② 42마리텔

42 마리텔(마이리틀텔레비전)은 42서울 교육생들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직접 PD 겸 연기자가 되어 인터넷 생방송을 펼치는 1인 방송 대결 이벤트이다.

재단 직원으로 구성된 대회 스태프는 2020년 4월 20일~23일까지 4일 동안 42마리텔 참가자 모집 및 콘텐츠를 확인했다. 팀 구성은 콘텐츠에 따라 자유롭게 4명 이하로 한 팀을 구성하도록 하여 최종 참가팀은 총 4팀 10명이었다. 재단 스태프는 42마리텔 이벤트는 방송 콘텐츠 선정에 제한이 없고 창의적이며 참신한 콘텐츠로 방송을 기획하여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참가자들에게 안내했다

42마리텔 인터넷 생방송은 접수 마감 5일 뒤인 4월 28일 진행했다. 이에 앞서 대회 스태프는 지원자의 콘텐츠 내용을 사전검토 및 점검했다. 그리고 각 방송 채널별로 스태프가 1명 이상 참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참가팀 중, '양파마켓'은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방송을, '추억의 음악여행'은 추억이 담긴 고전 음악을 찾아 듣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다. '최적화에 미친 남자'는 개발자로서 필요한 전자기기 최적화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을, '어느 걸 먹고 시바?'는 요리방송과 애견방송을 접목한 예능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심사는 방송 종료 5분 전 콘텐츠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실시간 접속자 수를 집계하여 평가했다. 최종 평가결과 '어느 걸 먹고 시바?'팀이 '야나두 42상'을, '양파마켓'팀이 '야우리 42상'을 수상했다. '야나두'와 '야우리'라는 상 이름은 트렌디한 '야O두'를 모티브로 하여 정했다.

구 분	수 상 자	비 고
42 마리텔 야나두 42상	어느 걸 먹고 시바? 이태혁, 김남형, 김건희, 홍정아	
42 마리텔 야우리 42상	양파마켓 정다현, 강채원, 임지영, 허지윤	

③ 42 e-sports

42 e-spotrs는 전세계 42캠퍼스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게임대회를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본 과정 교육생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42 e-spotrs를 기획했다. 그래서 본 과정 교육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교육생 투표를 통해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을 대회 종목으로 선정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모든 본 과정 교육생이 42 e-sports에 참여하도록 본 과정 교육생을 4개 연합팀에 무작위로 배정했다. 신청 접수는 각 연합팀별로 받도록 했다. 대회에 참가하려는 교육생은 자신이 배정된 각 연합팀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최종 신청 접수 결과, 4개 연합팀에 총 100여명의 교육생들이 참여했다.

대회 진행은 먼저 각 연합팀별로 예선전을 치른 후, 각 연합팀을 대표하는 1위팀을 선발했다. 그리고 각 연합팀을 대표하는 1위팀, 총 4개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하여 결승전을 치른 후 우승팀을 가렸다. 각 연합팀별 예선전과 결승전은 게임 종류에 따라 리그전 또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했다. 각 연합팀별 응원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경기를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했다. 최종 결선 팀은 4개 연합팀별 예선에서 1위를 한 5명이 각각의 팀을 대표하는 연합팀 대표가 되었다.

결선라운드에 진출한 4개팀이 자웅을 겨룬 결과, 양지원, 손동혁, 양태영, 장현우, 조상균 교육생으로 구성된 감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구분	수상자	비고
42 e-sports 우승팀	양지원, 손동혁, 양태영, 장현우, 조상균	감팀

재단은 교육생들의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 개최한 온라인 이벤트를 모두 마치고 2020년 7월 1일, 새롭관 지하1층에서 각 대회 수상자와 수상팀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시상식은 수상자와 재단 임직원만 초청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단의 교육운영팀 서정봉 팀장이 온라인 이벤트 취지와 경과보고를 하고, 각 대회 수상자 선정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각 대회 수상자 시상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 담당자들이 직접 맡았다. 프로그램42 수상작품들은 재단 점심 미팅(Luncheon) 때 전 임직원과 교육생들에게 소개됐다.

(12) 교육생 관련 이슈(동아리, 카트 세이버팀, 인턴으로 채용된, 선발되지 않은 교육생 등)

재단이 42서울 본 과정 교육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취업에 성공하는 교육생들이 다수 발생했다. 재단은 본 과정 교육생이 교육 중, 조기 취업으로 교육을 병행하기 어려우면 42서울 운영 스태프와 면담을 통해 퇴소 절차를 밟게 하고 있다.

2020년 6월, 첫번째 조기 취업자가 발생했다. 집중교육(La Piscine)을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취업을 한 것이다. 이후 2020년 10월까지 총 12명의 본 과정 교육생이 조기 취업을 했다. 이는 2년 간의 교육 일정 중, 15%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 42서울의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이 개인의 역량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게다가 조기 취업자들이 입사한 회사는 삼성전자, 삼성SDS, 하이퍼커넥트, NC소프트 등 국내 유수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었다.

조기 취업에 성공한 한 교육생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절대 믿지 못하겠지만 집중교육 한 달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 받은 코드리뷰를 보완하고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0년 10월, 본 과정 교육과정을 받고 있던 신현준 교육생이 본 과정 교육을 총괄하는 김종훈 매니저를 찾아왔다. 신현준 교육생은 본 과정 교육을 받던 중 삼성전자에 취업해 더 이상 42서울 교육을 병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현준 교육생은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42서울 교육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42서울 과정은 대학졸업 후, 취업에 실패한 내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42서울 교육은 내가 취업하는데 두 가지 큰 도움을 주었다. 첫째, 면접시험 때, 면접관들의 질문에 논리 정연한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42서울 교육에서 동료평가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없었다면 논리 정연한 대답을 하지 못해 면접시험에서 합격할 수 없었다. 둘째, 커뮤니티 활동이다. 42서울 교육과정은 교수, 교재, 학비가 없는 3무교육으로 인해 동료들 간의 커뮤니티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동료들과 42서울에서 제공하는 메신저, 오픈형 채팅방을 통해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했다.”

3) 교육생을 위한 현장 경험 프로그램

(1) 테크세미나

재단은 42서울 본 과정 교육생(Cadet)들을 대상으로 테크세미나를 열었다. 테크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다.

첫째, 지도 교수가 없는 42서울 교육의 특성상 본 과정 교육생들에게 현업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들로부터 생생한 현장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생들이 이를 발판으로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데 있었다.

둘째, 42서울 교육과정만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트렌드를 명확히 아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테크세미나를 통해 교육생들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트렌드를 알고 자신의 학습방향을 정해 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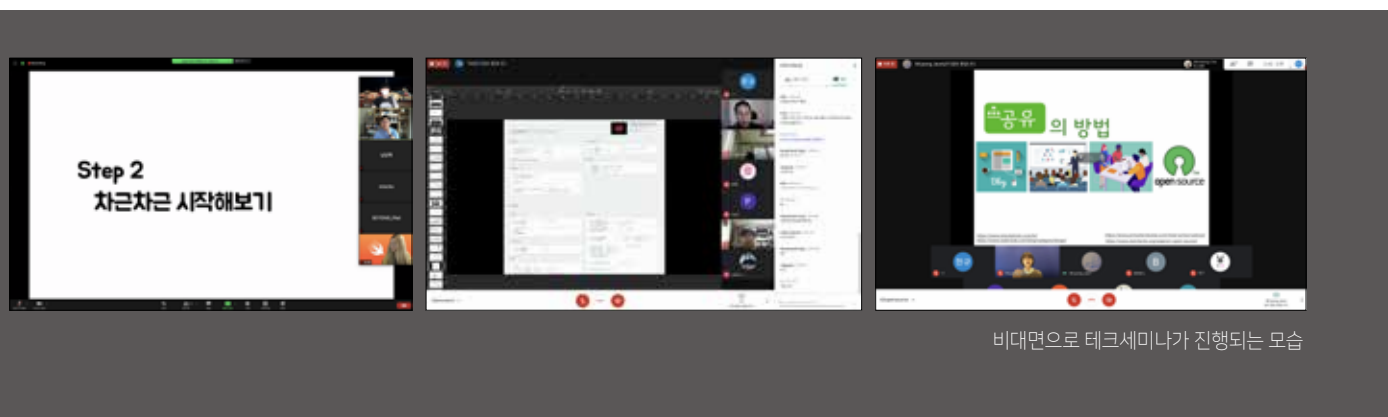
당초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내 교육장에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 월 2회 테크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대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동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세미나 참여는 강연자와 교육생 모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세미나 도구는 구글 미트(Meet) 플랫폼이나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사용했다.

2020년 5월 13일, LINE 테크 에반젤리스트 박민우 씨를 초청해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리어'란 주제로 첫번째 테크세미나를 열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였지만 강의 진행 중은 물론이고,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 때는 교육생들의 질문이 쏟아져 강의를 마치는 타이밍을 잡지 못할 정도로 매우 큰 호응이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안정세를 보였던 7~8월에 2회(7월 22일, 6회 PUBG 플랫폼 프로그래머 남세현 씨 / 8월 5일, 7회 네이버 임원 김호 씨), 10~11월에 2회 (10월 16일, 13회 NHN edu CTO 오준환 씨 / 11월 19일, 14회 현대오트모버 CTO 서민성 씨) 총 4회에 걸쳐 대면 세미나도 열었다.

첫번째 대면 테크세미나인 PUBG 플랫폼 프로그래머 남세현 씨 초청, '게임 개발은 많이 다르냐구요? - PUBG 플랫폼 프로그래머에게 듣는 게임개발 이야기'에는 교육생 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열기는 온라인 비대면 때와 확연히 달랐다. 강연과 질의응답 종료 후에도 강연자에게 좀 더 멘토링을 받고 싶은 교육생들이 강연자와 동글게 앉아서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두번째인 김호 씨 테크세미나에서는 웨일 브라우저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강연에서 다루었던 룬샷(loonsot)과 프랜차이즈 등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추가설명을 요청하는 질문들이 많았다.



비대면으로 테크세미나가 진행되는 모습

이후 테크세미나는 매회 교육생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2020년 11월 24일 42 실리콘밸리 출신 개발자인 장상현 씨의 '42에서의 경험 그리고 개발자로서의 커리어'에 이르기까지 총 15회 실시됐다.

재단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면 오프라인 세미나를 총 4회 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대면 오프라인 세미나는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에 비해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다. 강연자와 교육생 간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세미나 열기는 후끈 달아오르고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클러스터가 폐쇄된 상황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대부분의 세미나를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도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테크세미나 관련하여 교육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결과, 교육생들은 클러스터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테크세미나가 42서울 소속감을 상기시켜주었고, 소프트웨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김호 씨 테크세미나 멘토링 진행 모습



남세현 씨 테크세미나 강연과
멘토링 진행 모습

이런 세미나는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선배들의 이야기는 항상 좋은거 같아요!! 조금 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회사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웹 앱 프론트 백엔드 개발자 부터 시스템 개발자 os 개발자, 임베디드 개발자, 로우 레벨 개발자, 인공지능 개발자 등등, 대기업 부터 스타트업 까지의 분들)

이런 세미나를 자주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면으로 진행하는 세미나보다 접근성이 좋고 질문과 답변, 참가자들과의 자잘한 소통들이 활발히 진행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종종 온라인으로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ㅎㅎ

아주 힘든 일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줌 미팅으로 이렇게 할 기회가 많으면 좋을 것 같다. 현장 강의보다 서로 부담도 덜하고,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질의응답 하는 것도 현장일 때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느낌이다.

오랜만에 학교에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테크세미나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생 피드백 중 일부

< 2020년 42서울 테크세미나 진행 현황표 >

회차	일 자	강연자	소속 및 직책	강연 제목
1회	2020. 5. 13	박민우	LINE 테크 에반젤리스트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리어> https://youtu.be/3xrNhX77tpM
2회	2020. 5. 27	정창훈	당근마켓 CTO	<당근마켓 성장과 개발 스택의 변화> https://youtu.be/ELIQXruFesI
3회	2020. 6. 10	이두희	멋쟁이 사자처럼 대표	<멋쟁이 사자처럼(Like Lion)> https://youtu.be/qanhYMPHFvK
4회	2020. 6. 24	김수보, 이호준, 한현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멘토 & 매니저	<42 학습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https://youtu.be/_kgWKGCPGcE
5회	2020. 7. 8	김영범	콜라비 CTO	<콜라비 CSO, CTO와 함께 하는 "협업과 협업툴 이야기">
6회	2020. 7. 22	남세현	PUBG 플랫폼 프로그래머	<게임 개발은 많이 다르나가요? - PUBG 플랫폼 프로그래머에게 듣는 게임 개발 이야기>
7회	2020. 8. 5	김호	네이버 웨일 Product Owner (네이버 임원)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시스템 프로그래머에서 웨일 브라우저 제품 책임자까지>
8회	2020. 8. 19	김동찬	스타트업 만인의꿈 대표	<프롭테크(Prop Tech), 부동산에 IT를 더하다>
9회	2020. 8. 21	남세동	보이저엑스 대표	<보이저엑스 남세동 대표와 42서울 카뎃과의 수다>
10회	2020. 9. 4	조성규(야곰)	야곰닷컴 대표	<iOS 앱 개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11회	2020. 9. 9	김태훈	네이버웹툰 프론트엔드 테크 리드	<프론트엔드 개발자 로드맵>
12회	2020. 9. 14	전미정	오픈소스 개발자 (케라스코리아 운영진)	<비전공자 개발자가 들려주는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는 방법>
13회	2020. 10. 16	오준환	NHN edu CTO	<개발자 삼촌에서 물어보살> https://youtu.be/hlceBUN5ZHQ
14회	2020. 11. 19	서민성	현대오토에버 CTO	<IT엔지니어로서의 자세>
15회	2020. 11. 24	장상현	42 실리콘밸리 출신 개발자	<42에서의 경험 그리고 개발자로서의 커리어>

(2) 42 Day

재단은 한달에 한번씩 본 과정 교육생들을 위한 이벤트로 '42 Day'를 개최했다. 당초 1기 1차 본과정이 시작하는 2월 24일 이후부터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8월부터 진행하게 됐다.

첫번째 '42 Day'로 'Cadet, Show your speech'라는 이름의 이벤트가 열렸다. 'Cadet, Show your speech'는 교육생 각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을 다른 교육생(Cadet)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발표하는 행사였다. 재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8월 '42 Day'의 첫 코너로 이민석 학장이 '코로나19속 학습 방법'을 발표했다. 이민석 학장은 "코로나19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라면서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생존능력 보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완화되고 하루빨리 오프라인에서 교육생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이민석 학장은 코로나19 속 학습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를 소개했다.

“첫째, 우리 모두는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코로나19로 각 개인별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다. 그동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불편함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에 익숙해져야 하고, 빨리 익숙해지는 사람이 미래로 더 나아갈 수 있다.

둘째, 온라인을 잘 활용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관련기업은 비교적 영향이 적은 편이다. 일례로 소프트웨어 기업 중 업무 메신저를 개발하는 회사는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두 번째 코너는 1년 동안 프랑스 에꼴42에서 교육받고 42서울 스태프로 참여하고 있는 이재석 인턴의 발표였다. 이재석 인턴은 1년 동안 에꼴42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겪었던 경험을 솔직 담백하게 들려주었다. 이재석 인턴이 강조한 메시지는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지금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하다. 에꼴42는 실패를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한민국 교육문화의 특성상 실패라는 것이 상당히 생소하고 두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를 많이 겪어야 성장할 수 있고, 42 교육과정 안에서의 잦은 실패는 교육생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

둘째, 루틴(routine)하게 즉 일상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동안 나는 매일 아침 10시면 무조건 에꼴42에 가서 밤 12시까지 코딩하다 돌아오는 루틴을 반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학습이 가능했다. 모든 개개인마다 개발이 잘 되는 루틴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루틴을 찾아 매일매일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

이재석 인턴의 에꼴42 경험담은 본 과정 교육생들로부터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교육생들이 더욱 힘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재단은 세 번째 코너부터는 본 과정 교육생들의 발표내용으로 꾸몄다. 재단은 교육생들 스스로가 궁금한 것을 찾아가며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트랙1’과 ‘트랙2’ 등 두 트랙으로 운영했다. ‘트랙1’에서는 김은홀 교육생이 ‘맥북을 써야하는 이유’을, 민혁 교육생이 ‘내 인생의 로드맵’을, 한현진 교육생이 ‘랭킹시스템 개발 후기’를, 임지영 교육생이 ‘기술 블로그 쓰는 모든 방법’을 발표했다.

‘트랙 2’에서는 이태혁 교육생 외 4명이 ‘예발자닷컴’을 발표한 데 이어 김민창 교육생은 3차원 구현 프로그램으로 수학을 쉽게 설명했고, 김남형 교육생은 자신의 창업경험을 발표하여 교육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4) 글로벌 네트워크

○ 42네트워크

전세계에 프랑스의 에꼴42 교육시스템을 도입한 교육기관은 31개가 있다. 31개의 교육기관들은 '42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다. 파트너들과 정기적인 컨퍼런스와 워크숍 등을 통한 교류의 장을 만들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재단은 2019년 10월, 에꼴42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42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에꼴42와의 계약문서 중 '헌장(Charter) 42' 문서에서 42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실무에서 지켜야 할 요소들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42네트워크가 추구하는 가치는 아래와 같다.

- 학생은 학교와 그들이 속한 조직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실무에서 365일 24시간 공간을 개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 학생들이 살게 될 사회는 어차피 불공평하다. 42네트워크에서는 사회에
나가기 전의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위의 두가지 가치는 학생과 학업을 돈과 대응하는 상품으로 보지 않게 만든다.

이 외에도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현실성(Secularism), 다양성(Diversity), 교육적 혁신(Pedagogical innovation), 지역사회와의 연결(Connecting to our local ecosystem), 자발적인 커뮤니티 참여(Voluntary and involved community), 정직과 투명성(Honesty and transparency) 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42네트워크의 멤버들이 실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헌장42'에는 다음 내용의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1. 에꼴42와의 파트너십 계약서
2. 에꼴42 상표와 상표권 출원 상태
3. '에꼴42와 에꼴42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문서 및 관련 부록들
4. 핸드북 SI
5. 상표권 및 도메인명에 대한 라이선스
6.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추가규정
7. EU집행위원회의 표준계약조항

재단은 42서울 운영 등에 42네트워크에서 공유된 노하우를 참고하고 있다.

2. Project-X

1) 기획의도와 방향성

○ 추진 배경 - 새로운 소프트웨어 교육시스템 필요성

인공지능(AI)의 등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전 산업계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자 수요가 급증했으나 현재의 공교육기관으로 충분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시장에 존재하는 단기 취업과정으로는 우수한 역량의 인재를 길러낼 수 없었다.

우수한 인재를 보편적으로 길러낼 필요성이 생기면서, 학습시스템을 이용한 인재양성 방식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에콜42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세계 유일의 시스템으로 프랑스와 전 세계 20개국에서 이미 검증된 시스템이었다.

에콜42는 스스로 학습에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보편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과 동료학습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러나 에콜42는 학교단위의 운영방식만 제공하거나 시스템의 변경개발을 허락하지 않아 재단이 주도하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결국 재단은 교육현장과 산업계, 커뮤니티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고 함께 사용하기 위해 한국형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인 'Project-X'를 개발하기로 했다.

○ 핵심 내용 - 우리 산업환경에 맞는 교육시스템 기획

에콜42의 기본 교육방향은 적극성과 자발성을 기르고, 상호소통을 기반으로 협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동료학습 방식은 상호 소통기반을 기반으로 문제풀이 및 평가과정을 통해 선행 학습자와 후행 학습자간 코칭이 일어나는 구조이다. 다만 대면학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대면 환경에는 취약한 구조이다. 높은 역량의 동료들과 함께 할 경우는 학습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역량이 비슷하거나 우수한 동료가 없는 경우 학습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라이선스 비용,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기업 특화형 교육 콘텐츠 수용의 어려움, 오프라인 중심의 긴 과정 등은, 다양하고 규모있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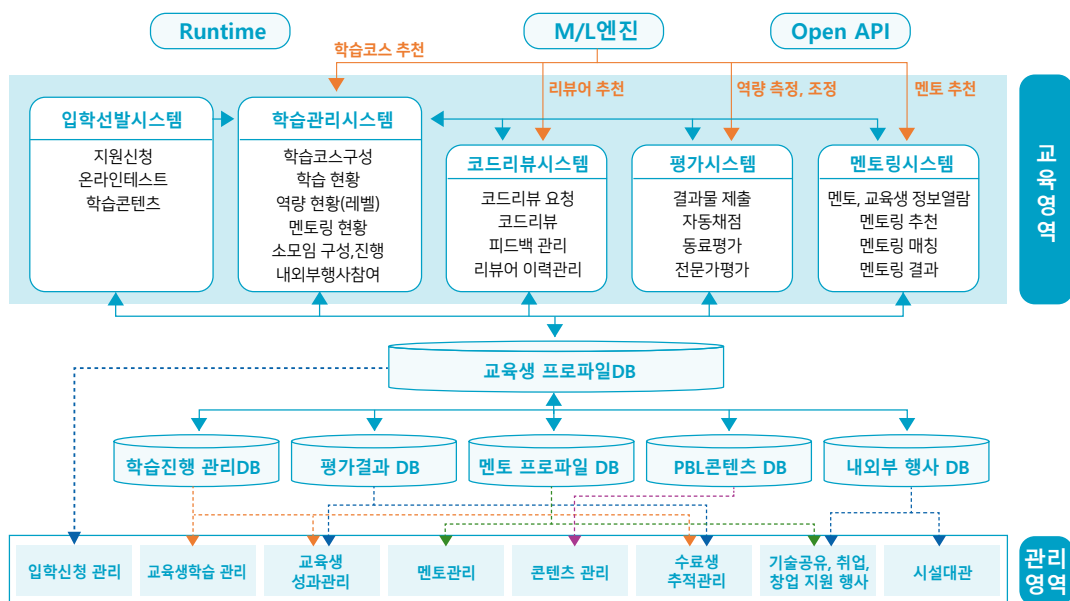
이에 재단은 다른 교육 기관, 나아가 글로벌 환경에서도 경쟁력 있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 개발을 다음 사항에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비대면 환경의 취약점 개선을 목적으로 기존의 프로젝트형 학습 방식(PBL)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시킨다. 이 경우 다소 변화가 느린 교육시장에서 빠른 전파가 가능하고, 시공간적 제약도 쉽게 해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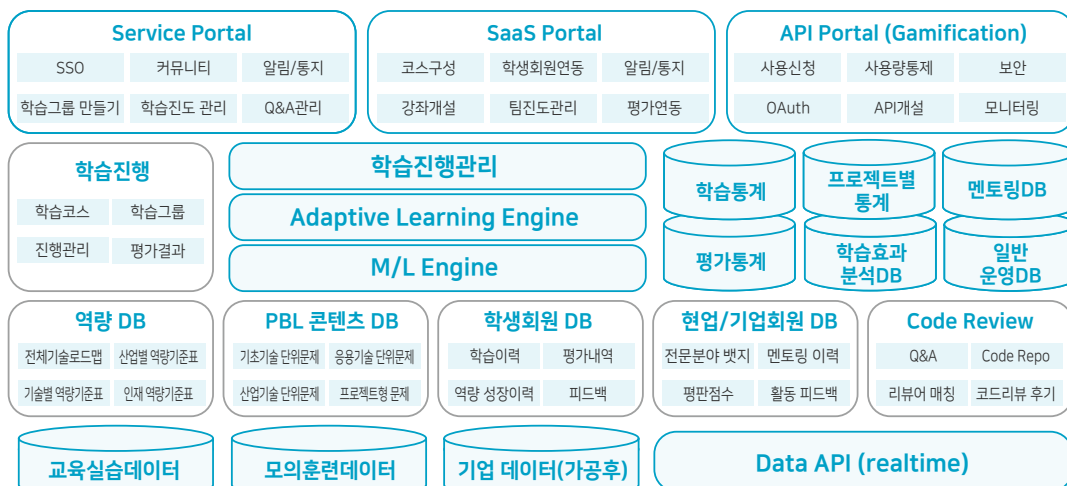
둘째, 오픈소스 기반으로 진행함으로써 범용성과 경제성 문제를 개선한다. 오픈소스 플랫폼은 다양한 개발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폐쇄적 개발방식에 비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이 때문에 'Project-X'는 유연한 개발, 높은 호환성과 유연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서 적용 및 개선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Project-X'의 핵심 교육철학은 교육생들의 참여를 극대화한 능동적인 학습과 동기부여, 기업 현장의 개발과정이 반영된 기업형 프로젝트 교육, 동료학습과 리뷰를 지향하고 있다. 재단은 2021년 내, 우선 파일럿으로 전공자 및 특정그룹을 대상으로 런칭할 계획이다.

< 플랫폼 개요도(안) >



< 최종 업무기능(안) >



2) 간담회

재단은 'Project-X' 시스템 구축에 앞서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기획의도를 소개하고 업계와 상생 협력방안을 찾기 위해 업계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재단의 간담회 담당자는 간담회 개최 날짜가 2020년 6월 26일로 정해지자 누구를 초청해야 하느냐로 고민에 빠졌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Project-X' 시스템을 소개하고, 'Project-X'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은 곳은 있는지, 오픈소스와 오픈데이터로 함께 개발할 업체 여부 등이 우선적 고려 사항이었다. 간담회 담당자는 재단 홈페이지에 간담회 개최를 공고하고 재단 네트워크를 통한 개별연락으로 대상자 선정 및 간담회 홍보를 진행했다

재단은 콘텐츠와 시스템 관점에서 'Project-X' 시스템을 이해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 업체, 학습관리시스템(LMS) 개발 업체, 인프라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최우선 초청 대상으로 정했다. 재단은 가능한 많은

업체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재단 네트워크 업체들 외에도 산업계 내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조사하여 초청 대상을 늘려 갔다.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학계, 재단 협력사를 중심으로 초청 대상을 확대했고, 최종 초청 결과 30여개 기업과 기관에서 참여의사를 밝혀왔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자들에 한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Project-X'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일정상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자에게는 추후 간담회 자료를 보내주기로 했다.

6월 26일 업계 초청 관계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 LG CNS, SK텔레콤(SKT), CJ올리브네트웍스, 신한DS와 같은 유수의 기업 관계자, 서울산업진흥원과 한국능률협회 등 관련 기관 및 협회 관계자, 강남대 및 성균관대 등 학계 관계자, 국내 최대 개발자 커뮤니티 오키(OKKY)와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관계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간담회는 먼저 재단의 김수보 멘토단장이 'Project-X' 시스템의 추진 배경과 목표, 시스템 구상도, 추진 일정 등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 응답 때는 'Project-X'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듯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업계 관계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대체로 시스템 활용 방안과 콘텐츠 수급 방안, 교육 실험에 대한 재단의 입장, 프로젝트 협력 및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었다. 재단에서 이미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었지만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과 같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특히 간담회를 통해 재단은 시스템 추가기능 요구사항을 도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재단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제는 추가 간담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Project-X'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조언을 해 줄 'Project-X자문단'을 모집했다. 자문단 모집을 공지하자 현장에서 즉시 자문단 참여를 신청하는 관계자도 있었고, 추후 논의를 통해 자문단 참여의사를 밝혀온 관계자도 있었다.



Project-X 간담회 현장 모습



Project-X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의 질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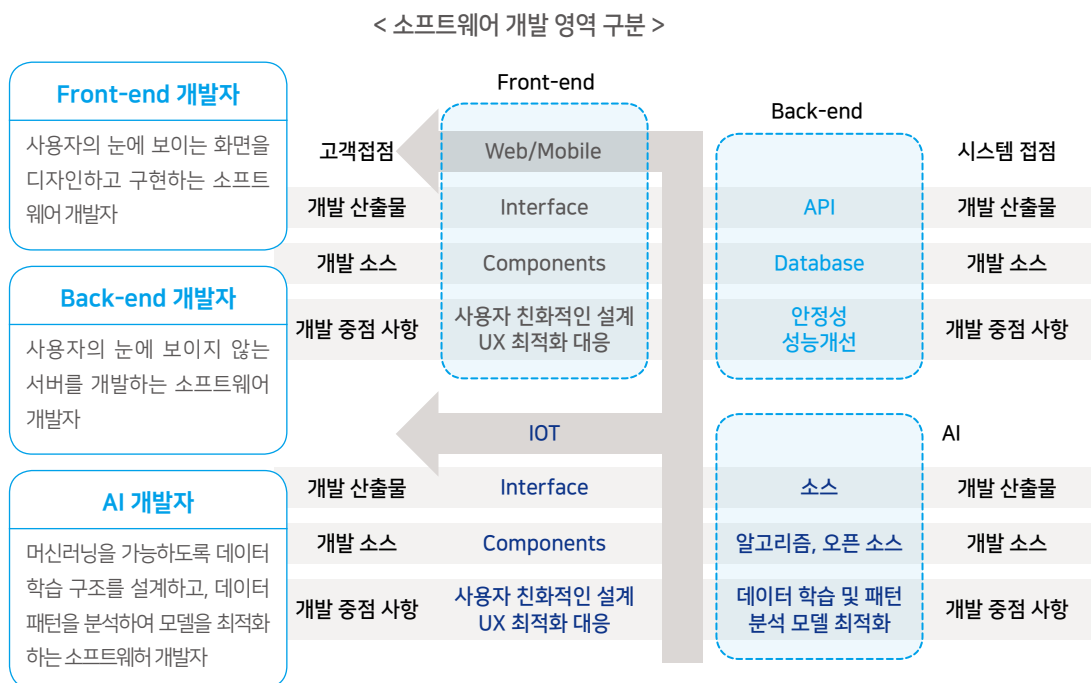
Project-X 간담회에서 김수보 멘토단장의 PT 모습

3. 개발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1) 경험적 역량 정의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산업계 전반에 확대되고 있다. 이제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산업군이나 인프라에 머무르지 않고,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됐다. 소프트웨어 혁신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이러한 산업 흐름에 부응해 소프트웨어 각 분야의 역량을 갖춘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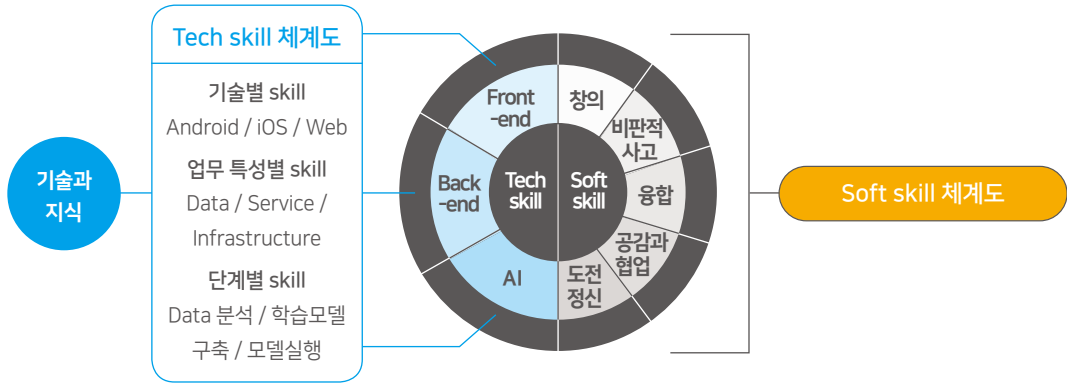
소프트웨어 분야 역량모델 경험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기반 구축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핵심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산업 현장에서 원하는 인재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양성되는 인재의 미스 매칭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재단은 소프트웨어 분야를 인공지능(AI), 프론트 엔드(Front-end), 백 엔드(Back-end)로 나누어 '경험'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행동지표를 정의하였다. 현업 수행에 필요한 재현 또는 구현능력을 기반으로 각 분야의 행동지표를 정의하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개발자를 선발하고 평가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즉 기술 지식 및 스킬(Tech-skill)과 경험 중심의 구체적인 역량 정의를 통해, 현업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험'을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재현 또는 구현해 본 경험을 재단에서 관리함으로써 한 사람의 역량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역량 체계 구성 요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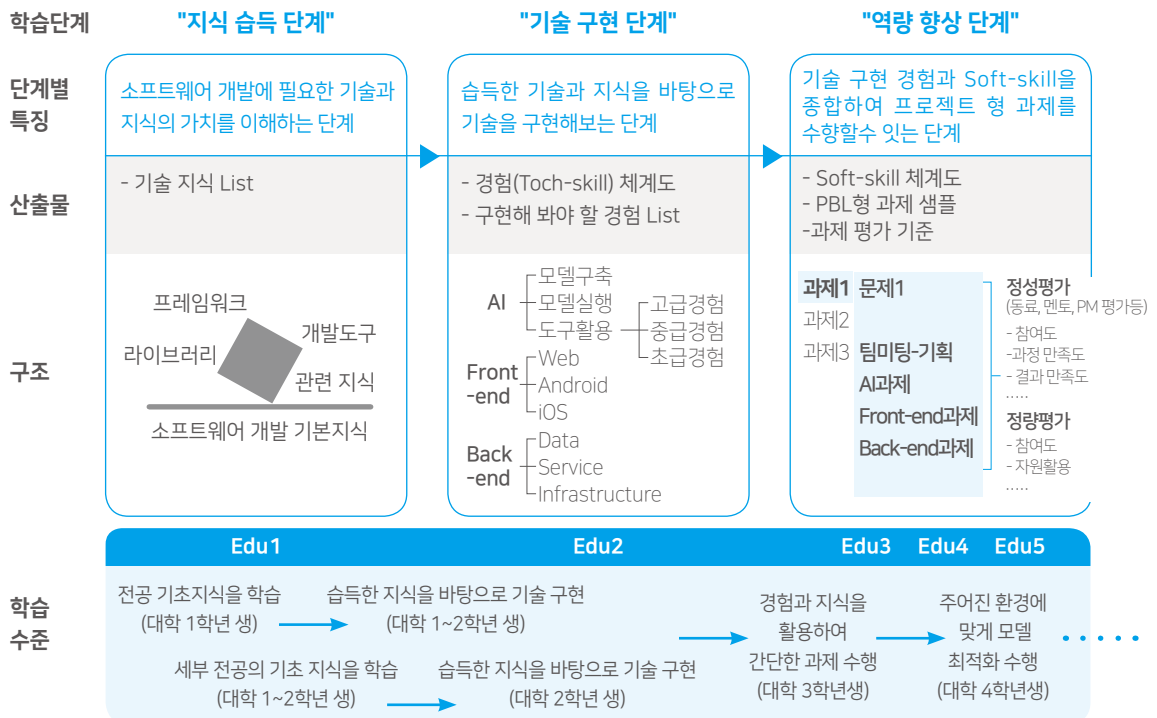
기술과 지식

기본지식 : 언어	개발도구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관련지식(개발 리터러시)
목표하는 인터페이스, API, 소스 개발하기 위해 프로그램 작성시 사용하는 기호 체계	개발 도구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코딩, 디버깅, 컴파일, 배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응용 프로그램의 표준 구조를 구현하는 클래스와 라이브러리의 모임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며, 원하는 산출물을 빠른 시간안에 구현하도록 돕는 부품의 모임	목표하는 결과물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 체제, 네트워크 등 기초 지식

Soft skill 체계도

창의	비판적 사고	융합	공감과 협업	도전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관점으로 결과 해석 -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 혁신적 문제 접근 - 비즈니스 아이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간 관계 분석 - 핵심 정보 파악 - 근본 원인 규명 - 문제 해결방안 모색 - 올바른 대안 제안 및 수용 - 분석결과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학습 - 트렌드 민감성 유지 - 전문 지식의 확장 - 폭넓은 지식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분위기 조성 - 공동의 의사결정 - 의사결정의 질과 속도 관리 - 회의 결과물 명확화 - 체계적 자료 관리 - 계획의 재조정 - 약속 준수 - 정보공유 - 공동의 책임감 발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끈기 있는 노력 - 변화 흐름 모니터링 - 최신 기술 학습 - 주도적 변화 실행 - 도전적 목표 설정

< 단계별 역량체계 구조 >



이를 통해 학습자가 어떤 '경험'의 재현 또는 구현 이력을 갖고 있는지, 이 때 어떤 기술 지식 및 스킬(Tech-skill)을 발휘하며, 그 '기술과 지식'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룰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팀으로 프로젝트형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휘하는 소프트 스킬(Soft-skill) 역량(재단 인재상 5C: '창의', '비판적 사고', '융합', '공감과 협업', '도전정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습자의 수행 능력을 기반으로 한 역량 분석도 가능하다.

재단이 개발하는 역량모델은 기존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에서 정의하는 역량모델과 달리 실천적이며 경험적이어서 산업계에서 활용하기 수월하다. 특히 교육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기 때문에 교육과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단의 역량모델 구축은 '역량체계 방향 설정 → 역량명세서 개발 및 검토 → 역량 평가방식 제언 → 교육 및 산업 연계방안 제시' 등의 4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첫째, '역량체계 방향 설정'은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 및 수요기업의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기술 지식 및 경험(퍼포먼스(Performance) 및 산출물)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둘째, '역량명세서 개발 및 검토'는 수준의 구분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경험(퍼포먼스(Performance) 및 산출물)과 수준 연계가 적합한지, 필요한 기술 지식은 적합한지 등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셋째, '역량 평가 방식 제언'은 핵심 산출물을 문제기반학습(PBL)의 과제로, 퍼포먼스(Performance)를 과제 수행 가이드로, 기술 지식 및 스킬을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평가 방식은 적합한지 등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넷째, '교육 및 산업 연계방안 제시'는 최종 결과물을 갖고 소프트웨어 교육 및 산업 연계방안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다.

현업에서의 '경험'이 역량모델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인만큼, 재단은 인공지능(AI), 프론트 엔드(Front-end), 백 엔드(Back-end)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자문을 받아 개발하고 있다. 재단이 소프트웨어 분야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목적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체계적으로 집중 양성하기 위함이다.



온택트로 킥오프 미팅을 진행하는 모습 (ZOOM 활용)

2) Tech HR

‘Tech-HR’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심의 기술인재들(Tech Talents)에 특화된 HR(Human Resources) 활동을 말한다. HR 활동은 작게 보면 인력채용과 평가, 교육, 조직문화 등과 같은 일반적인 HR 제도 및 활동을 의미하지만 크게 보면 회사 운영과 관련된 대외활동을 비롯한 제반사항 모두를 의미하기도 한다.

HR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수한 인재를 회사에 영입하고 오래도록 머물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외부에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야 하며, 회사를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우수인재들이 들어오고, 회사 안에 계속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HR 활동을 기술(Tech)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Tech-HR 활동 매뉴얼’이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Tech-HR 활동 매뉴얼’을 기획 및 제작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IT 인재들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의 HR 시스템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발자 및 기술 인재들(Tech Talents)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우수한 기술인재를 채용하고도 회사 내에서 갈등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술(Tech) 산업은 이러한 기술인재 수급 불균형과 회사 내 기술인재 갈등상황을 해결해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적 인재양성 기관으로 출범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국내 기술(Tech) 산업의 도약에 지렛대 역할을 하는 ‘Tech-HR 활동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모하고 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도 개발자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따라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디지털 전환 중인 기업들이 ‘Tech-HR 활동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가 한단계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조사항1] Tech-HR의 전반적인 구성 현황

Tech-HR의 전반적인 구성은 ▲채용 ▲평가 ▲구분 ▲기타(보상 → 교육 → 복지) 등으로 되어 있다. 각 단계별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용

(1) 과정 : 채용 홍보 → 이력서 접수 → 기술 테스트 → 기술 인터뷰 → 인성 인터뷰
→ 연봉 협상 → 최종 합격

(2) 주요 사항

- 모든 채용 과정은 매우 친절하고,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
- 채용을 맡아야 할 사람
 - 회사의 비전과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 기술(Tech)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망이 있는 사람.
 - 마케팅 감각이 있는 사람
- 개발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홍보 전략 수립
- 개발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좋은 직무기술서(JD) 작성
- 좋은 개발자 채용을 위한 역량 평가 방안 수립
 - 코딩 테스트
 - 기술 인터뷰

2. 평가

- (1) 공통 기준: 생산성, 안정성, 팀워크, 기술 역량의 안정성, 시스템 및 업무의 이해도
- (2) 역량별 기준
 - 주니어: 태스크, 코드/문서, 일정관리
 - 시니어: 프로젝트, 실질적 성과, 일정 및 리스크 관리

3. 구분

- (1) 개발 조직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 (2) 개발자 역량별 팀빌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4. 기타

- (1) DevRel, 커뮤니티 활동,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 등

[참조사항2] 'Tech-HR 활동 매뉴얼' 예상 목차

『개발자 채용 길라잡이』

프롤로그

개발자가 필요한 이유

- 여러 기업에서 개발자 채용 붐이 일고 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민.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DT)
-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 등 정책 발표- WHY? → 코로나 이전에도 중요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기술진보 가속화.
- 개발자 없는 스타트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존의 기업도 디지털 전환(DT) 고도화를 위해 개발자 추가 채용.
- 타깃 독자층 : 특히 비ICT 기업, 개발자를 채용해 본 적이 없는, 개발조직을 운용해본 적이 없는 기업/채용 담당자
- 책의 흐름 간략하게 설명.

Chapter 1

개발자 채용 전에 알아 두어야 할 것들

- 개발자 채용의 뚜렷한 목적을 파악하라
 - 인터뷰: 홍영훈, 이규원
- 개발자 세계와 산업에 대한 이해.
 - 인터뷰: 홍영훈
- 개발 난이도 파악 및 규모 산정하기.
- '창의적인 개발자가 꼭 필요한가?' 본질로부터 생각하라.
 - 무조건 S급 개발자를 채용하려 하지 마라.
 - 외주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 훌륭한 시니어 개발자의 필요성(?)

Chapter 2

개발자에게 매력적인 회사가 되어라

- 개발자 채용 전쟁
 - 개발자 채용 전쟁
 -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 고용 현황
 - 스타트업 내 인력 구성 비율
- 개발자들을 위한 문화가 조성돼 있는 회사
- 개발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회사.
 - 기회의 종류
-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회사.
- 개발에 대해 잘 아는 회사.
 - 경영진의 개발에 대한 이해
-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는 회사.
 - 좋은 기술 블로그 운영법

Chapter 3

개발자 채용, Tech HR을 이해하라.

- 채용 프로세스

- 나는 누구인가? 우리 기업의 HR 능력 점검하기
- 무엇을 할 것인가? 개발자의 채용 목적 설정하기
-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채용 목적에 맞는 개발 인력 분류 방법
- 어디서 뽑아야 하는가? 기존의 개발팀, 평판 좋은 CTO, 전문 업체
- 얼마나 뽑아야 하는가? 목적 및 규모에 따른 개발 조직 구성
-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가? 기술, 직군 별 급여체계

- 검증

- 이력서 검토하기
- 평판 조회하기
- 코딩 테스트
- 인터뷰 전략

Chapter 4

개발자와 관계를 유지하라.

- 개발자 특성을 이해하라

- 업무 분담법
- 고민할 시간을 주어라
- 프로그래머 이해하기

- 업무 몰입을 유도하라.

- 인터뷰: 신현목
- 동기부여 하기
- 업무환경 조성하기
- 인센티브 관리/복지

- 비전을 공유하라.

- 회의 참여
- 업무 기획 단계부터 참여

- 체계적인 경력관리의 필요성

- 개발자 교육

Chapter 5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

- 성공사례 (국내, 해외 사례)

- 기존 사업에서 디지털 전환(DT) 도입 사례

- 교육 (개발자에게 개발 그 외에 것들)

- 팁

- 인터뷰: 박태웅, 홍영훈, 신현목
- 피해야 할 개발자
- HR 담당자가 필요한 시점

3) DevRel 활동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가 비즈니스를 혁신하면서 뛰어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영입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만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산업계 전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필요로 하면서 본격 떠오른 키워드가 DevRel(Developer Relations)이다.

DevRel은 회사 외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문화와 기술을 알리고, 기술 생태계에서 개발자들을 모으고, 기술 플랫폼을 확산하는 기반활동을 말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활동으로 국내에서도 DevRel팀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DevRel팀은 주로 회사 내부 및 외부 개발자들과 소통, 개발자 교육, 기술 홍보, 컨퍼런스/세미나 및 관련 채널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즉, Dev-Re팀은 외부 기술 생태계와 사내 개발자 간의 가교 활동을 통해 유능한 개발자들이 모여들도록 기반을 닦는 일을 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DevRel 활동은 예비 개발자인 교육생들과 현장에 있는 기업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석 학장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DevRel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교 바깥에서 학생들을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게 기존의 학교들이 가장 못하는 일이고, 교육생들이 우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DevRel에 기대하는 것이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DevRel 활동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원하는 기업들을 만나 기업의 경험을 교육생들과 나눌 수 있게 하고, 기업의 인턴십 및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교육생을 취업으로 연결시키거나 실무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2020년 4월부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DevRel 활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만나 기업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양해각서(MOU) 없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과 42서울 교육생들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했기 때문에 대부분 양해각서(MOU)는 별도의 체결식 없이 문서로만 합의가 되면, 곧바로 실무적인 사항에 집중했다.

재단은 2020년 5월 26일 협업툴 전문업체 콜라비와 첫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재단은 프로젝트 협업도구 할인과 기업세미나 개최를, 콜라비는 자사홍보를 양해각서(MOU)의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그 후 신한DS, 보이저엑스, CJ올리브네트웍스, 라인플러스, KT DS 등 국내 우수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20년 11월까지 재단은 총 34개 기업들과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그 외에도 여러 기업들과 양해각서(MOU) 체결 없이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교육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1. 양해각서(MOU) 체결식 모습
2. 양해각서(MOU) 날인 서류 사진

<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202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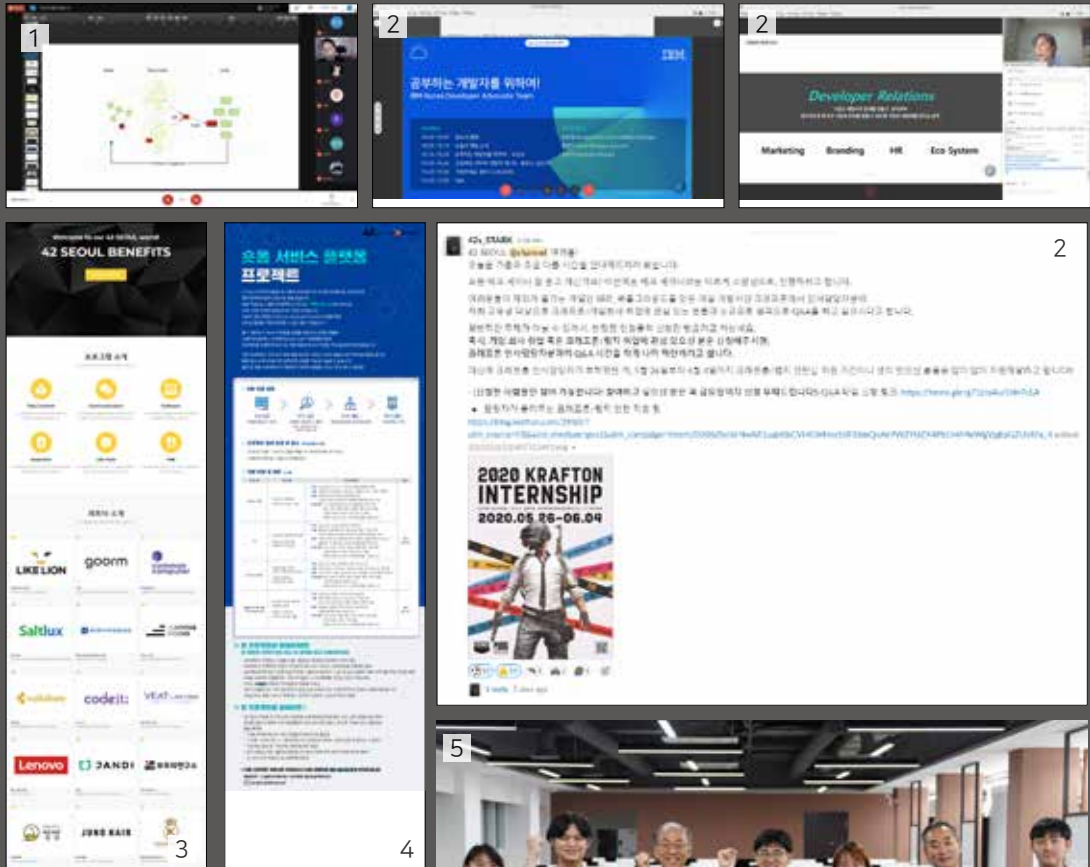
NO.	기업/기관	목적		내용 (베네핏/세미나/ 취창업프로젝트)
		재단	기업	
1	(주)협업툴 콜라비 (20년 05월 26일)	- 프로젝트 협업도구 할인 - 기술세미나	- 자사홍보	베네핏/세미나
2	(주)멋쟁이 사자처럼 (20년 05월 29일)	- 학습 콘텐츠 할인 - 기술세미나	- 자사홍보	베네핏/세미나
3	(주)구름 (20년 06월 01일)	- 코딩테스트 연습 환경 - PBL 콘텐츠 활용	- 자사홍보	베네핏
4	커먼컴퓨터 (20년 06월 08일)	- 클라우드개발 환경 제공 - 기술세미나 - 클라우드 부문 멘토링	- 자사홍보 - 재단 내 기업간 사업기회발굴	베네핏/세미나
5	(주)엔슬파트너스 (20년 06월 11일)	- 스타트업 실무 프로젝트 - 사전 채용기회 확보	- 스타트업 개발자 채용풀 확보	프로젝트/취창업
6	(주) 신한DS (20년 06월 22일)	- 금융권 기업 프로젝트 공동개발 - 은행부문 현업 멘토링 - 금융산업 기술세미나	- 은행권 PBL콘텐츠 독립개발 - 사전채용 - 자사홍보	프로젝트/채용
7	데이콘(주) (20년 06월 22일)	- 데이터분석 해커톤 개최 - 데이터분석 학습콘텐츠 개발	- 해커톤용 PBL콘텐츠 개발 - 사전채용	프로젝트
8	(주)토스랩 (20년 06월 22일)	- 프로젝트 협업도구 할인	- 자사홍보	베네핏
9	(주)보이저엑스 (20년 7월 13일)	- AI 학습콘텐츠 개발 - AI 기술세미나 및 회사견학	- 사전채용	채용/세미나
10	CJ올리브네트웍스(주) (20년 7월 13일)	- 기업 프로젝트 공동개발 - 사내벤처 인턴채용 - 식품, 물류 분야 멘토링	- 사내벤처용 PBL콘텐츠 개발 - 사전채용 - 자사홍보	프로젝트/채용
11	매직에코 (20년 07월 15일)	- 제조 AI 분야 기술 멘토링 - PBL 교육경험 수용	- 자사홍보	프로젝트
12	라인플러스(주) (20년 07월 15일)	- 기업 프로젝트 공동개발 - 채용 - 기술세미나	- 사전채용	프로젝트 /채용/세미나
13	메기존아이티평생교육원 (20년 07월 21일)	- 학습 콘텐츠 할인	- 자사홍보	베네핏
14	코디잇 (20년 07년 27일)	- 학습 콘텐츠 할인 - 기술세미나	- 자사홍보	베네핏/세미나
15	씨엘플러스 (20년 08월 03일)	- 제휴 병원 서비스 할인	- 자사홍보	베네핏
16	(주)만인의 꿈웨어니도 (20년 08월 03일)	- 주거 플랫폼 서비스 할인 - 인턴십 - 기술세미나	- 자사홍보 - 사전채용	베네핏/프로젝트 /채용
17	(주) 앤 앤 컴퍼니 (20년 8월 03일)	- 피트니스 회원권 할인 - 교육생 체력증진 이벤트 개최	- 자사홍보	베네핏
18	모두의 연구소 (20년 08월 04일)	- 콘텐츠 공동개발	- 콘텐츠 공동개발	프로젝트
19	GTN Korea (20년 08월 11일)	- 해외 취업(일본)	- 자사홍보	취창업
20	NHN Edu (20년 08월 13일)	- 채용 - 기업 공동프로젝트 - 기술세미나	- 사전채용	프로젝트 /채용/세미나
21	KTDS (20년 08월 26일)	- 기업 프로젝트 공동개발 - 채용 - 기술세미나	- 자사홍보 - 채용	프로젝트 /채용/세미나

재단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들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이어 나갔다. 재단은 현업의 유능한 개발자들을 추천받아 본 과정 교육생 대상의 테크세미나를 진행하고, 각 기업들은 자사의 특성에 맞는 베네파트(Benefit)을 42서울 교육생들에게 제공하였다.

멋쟁이사자처럼은 자사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학습 서비스인 코드라이언을 교육생들에게 할인해서 제공했고, 커먼컴퓨터는 자사의 클라우드 개발 환경을 교육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이 외에도 재단은 기업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42서울 교육생들이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숏폼 영상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에 42서울 교육생들을 인턴으로 선발, 기획 및 개발과정에 공동으로 참여시켰다.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회사인 크래프톤은 '42서울 교육생 대상 특별 과정'을 신설해 이 과정을 통과한 교육생들을 정직원으로 적극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재단은 DevRel 활동을 통해 각 기업들이 자사의 니즈에 맞게 42서울 교육생들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장을 만들어 왔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DevRel 활동은 수월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42서울을 접한 기업과 임직원(학장, 멘토 등)들과 연결된 일부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과는 협력관계 논의가 쉽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기획팀이 발벗고 나섰다. 조현나 팀장을 중심으로 한현규 매니저와 최가인 매니저가 소프트웨어 기업들 하나하나 맨투맨으로 만나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명하고 협력관계를 논의하고 설득했다. 그 결과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42 서울을 알게 되었다.



1. 온라인 테크세미나 진행 모습
2. 기업-교육생 간 캐주얼한 미팅 주최
3. 42서울 베네파트 페이지(가안)
4. CJ올리브네트웍스 기업협력 프로젝트 포스터
5.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 DevRel 담당자들과 웨비나 개최

4) 블로그

○ 블로그 개설

재단은 교육생들의 동료학습을 장려하고, 기업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채널로 기술 블로그를 개설했다.

핵심 독자층은 '42서울 학생', '현업 개발자', '스타트업과 기업들'이며, 주요 내용은 '학생들의 학습성과', '재단이 수행하는 교육실험', '교육 및 채용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및 기업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 블로그 메뉴 구성 및 내용 >

메뉴	하위메뉴	내용
42서울		42서울에 대한 소개
Cadet	Cadet Story	42서울 교육생에 대한 이야기
	실무 프로젝트	PBL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공유
	멘토링 신청하기	42서울 본과정 교육생들이 멘토단에 멘토링 신청하는 페이지
Labs	교육연구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 내용
	현장기술들	소프트웨어 개발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 소개
	멘토단세미나	개발자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멘토링 세미나 내용
DevRel	기업소개	소프트웨어 산업의 동향 및 관련 기업 소개
	개발자커뮤니티	개발자 커뮤니티 소개
Challenge	인턴	소프트웨어 산업의 인턴 채용 소식 공유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스타트업 기업 소개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 모집, 공모전 등 외부 기업에서 진행하는 이벤트/행사 소식 공유
ABOUT		Contact point



제4장 홍보

3무(교수, 교재, 학비)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1. IA 홍보전략
2. IA 입학홍보 전략
3. 재단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홍보
4. 분야별 홍보전략
5. 홈페이지

제4장 홍보

3무(교수, 교재, 학비)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1. IA 홍보전략

재단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사업의 성공적 진행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우선 재단의 '교육생 모집'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그다음으로 '재단의 역할과 위상'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다.

대외협력팀에서는 홍보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체계를 구축하여 홍보 매체와 콘텐츠를 일관되게 관리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혁신적 및 능동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발자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재단의 노력을 알리고자 했다. 홍보의 핵심 타깃은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이었으며, 타깃에 맞는 온오프라인 통합홍보(IMC) 진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했다.

2019년 8월 재단 설립 이후, 약 3개월간 신문 보도 23건, 신문광고 2회, 페이스북 채널 연계 홍보(스브스뉴스 46만, 대학내일 53만, 버스광고 23개 노선/1개월), 인플루언서 홍보 등을 진행했다. 특히 42서울 교육생 모집을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약 한 달간 집중적인 홍보를 진행한 결과 1만1,118명이 지원했으며, 재단 홈페이지 도달은 170여만 회에 달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2. IA 입학홍보 전략

1) 홍보 타깃 설정

재단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첫번째 교육 프로그램인 42서울의 교육생 모집 홍보전략 수립을 위해 제일 먼저 타깃을 설정했다. 그리고 타깃에 알맞은 매체 선택, 콘텐츠 방향 기획, 홍보 집행 순으로 전략을 세웠다.

타깃 설정을 위해 재단이 42서울을 시작하는 이유와 42서울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재단은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방식을 넘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세계적인 수준의 개발자 양성을 목표로 42서울을 런칭했다.

42서울의 특징은 학비, 교수, 교재가 없는 3무(無) 교육시스템으로 전통 교육기관의 이론 중심적 커리큘럼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진행하여 취업 연계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와 같은 42서울 추진과정을 반영하여 교육생 모집 홍보 타깃을 '전공, 경력과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 설정했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핵심 타깃으로 설정했다.

2) 홍보 매체와 콘텐츠 기획

재단은 타겟 설정 이후 홍보 매체와 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기획 전략을 구성했다. 우선 타겟층이 많이 이용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 중 예산과 홍보 시기, 기간 등을 고려해 집행이 가능한 매체들을 선별했다. 그리고 매체별 광고 담당자와 만나 카드뉴스, 영상, 기획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기획 전략을 세웠다.

3) 타겟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1) 대학생, 취업 준비생 대상 온라인 채널 홍보

대학생, 취업 준비생의 선호도와 인지도가 높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42서울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을 홍보하고 온라인 테스트 지원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홍보를 통해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42서울에 지원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핵심 타겟 대상 42서울 홍보 매체 리스트 >

매체	주요내용	도달수(12/1 기준)
대학내일 페이스북	42서울 홍보, 온라인 테스트 지원 독려	305,888명
취트키 페이스북	42서울 지원기간, 선발절차, 혜택 등 홍보	78,407명
대학내일 잡지	42서울 프로그램에 대한 QnA	35,000부 발행, 53개교 배포
스브스뉴스	42서울 교육 프로그램 특징 소개	1,317,314명
MBC 14F	42서울 교육 프로그램 특징 소개	15,737회 *14F 유튜브 채널 조회수

1. 대학내일 페이스북, 인스타 카드뉴스
2. 취트키 페이스북 카드뉴스



3. 대학내일 지면 내 기획기사
'비전공자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



3. 스브스뉴스,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포스트



3. 스브스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카드뉴스
4. MBC 디지털 뉴스 14F 브랜드 영상



(2) 전국 대학생 대상 옥외 광고

재단은 대학생 대상 홍보를 위해 교육생 모집 시작 일주일 전부터 전국 대학교 내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부착했다. 홍보물에는 모집 기간과 지원 홈페이지 QR 코드를 넣어 42서울 온라인 테스트 지원을 독려했다. 총 285개교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였고, 총 276개교에 현수막을 부착하여 홍보를 진행했다.



전국 대학교 대상 42서울 교육생 모집 안내 현수막, 포스터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대상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대학생, 취업 준비생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개발 분야로 경력 전환을 준비하는 사람들, 경력 단절 여성, 코딩 공부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 등의 선호도가 높은 홍보 채널을 통해 42서울 온라인 테스트 지원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소프트웨어 분야 유튜브 인플루언서 '동빈나'와 연계하여 42서울 교육생 모집 안내 및 개발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장점 및 교육생 혜택 소개를 통해 홍보를 진행했다. 영상은 게시 후 3주 만에 1만3,000회를 기록했다.



소프트웨어 분야 인플루언서(유튜버) '동빈나' 연계 홍보 영상

(4) 언론 홍보

재단은 42서울 교육생 모집 기간, 지원 자격, 선발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총 3회 배포했으며 주요 언론에 총 23건의 기사가 게재됐다. 보도자료를 통해 모집 기간, 지원 자격, 선발 절차 등을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사와 이민석 학장의 인터뷰를 통해 재단의 설립 취지, 기존의 교육 방식과 다른 42서울 프로그램 특징 등을 담은 기획기사가 보도됐다.

42서울 교육생 모집 보도자료
42서울 교육생 모집 관련
기획기사(이민석 학장 인터뷰)



< 42서울 교육생 모집 관련 보도자료 배포 리스트 >

구분	배포일자	주요 내용
1차	2019.10.11	42서울 교육생모집, 프랑스 에콜42의 3無 교육시스템 도입
2차	2019.10.15	42서울 교육생모집 전국 설명회 개최
3차	2019.11.01	42서울 1기 교육생 모집 시작

< 42서울 교육생 모집 관련 주요 언론 보도 리스트 >

연번	언론사	보도일	기사 내용
1	아시아경제	2019.10.11.	42서울 교육생 모집, 프랑스 에꼴42의 3無 교육 시스템 도입
2	세계일보	2019.10.11.	
3	동아닷컴	2019.10.11.	
4	업코리아	2019.10.11.	
5	헤럴드경제	2019.10.11.	
6	서울경제	2019.10.11.	
7	오늘경제	2019.10.11.	
8	인천일보	2019.10.11.	
9	내외뉴스통신	2019.10.11.	
10	경남데일리	2019.10.11.	
11	뉴스1	2019.10.15.	42서울 교육생 모집 전국 설명회 개최
12	헤럴드경제	2019.10.15.	
13	오늘경제	2019.10.15.	
14	아주경제	2019.10.15.	
15	내외뉴스통신	2019.10.15.	
16	매일경제	2019.11.01.	42서울 1기 교육생 모집 시작
17	한경닷컴	2019.11.01.	
18	중앙일보	2019.11.01.	
19	파이낸셜뉴스	2019.11.01.	
20	경향신문	2019.11.01.	
21	아이티데일리	2019.11.01.	
22	블로터닷컴	2019.11.13	42서울 교육생 추가 선발 안내
23	파이낸셜뉴스	2019.11.13	

(5) 커뮤니티 인프라 소외지역 대상 홍보

재단은 소프트웨어 관련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어려운 인프라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42서울 교육생 모집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설명회와 군장병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생 모집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 선발 과정 및 실시간 QnA를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 제3장 모집설명회 참고)



42서울 교육생 모집 전국 설명회 현장스케치

3. 재단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홍보

재단은 소프트웨어 산업계에서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소프트웨어 혁신 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개발자를 육성하는 것이고, 둘째, 소프트웨어 교육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며, 셋째,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단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알리기 위해 브랜드 홍보를 진행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단이 지향하고 있는 철학과 비전인 동료학습과 혁신을 소비자 연상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재단은 보도자료, 카드뉴스,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할 때 항상 동료학습과 혁신 교육 관련 이야기가 노출되도록 했다. 온·오프라인 설명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강조해서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재단이 보유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강연 콘텐츠와 포럼 영상 등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브랜드 콘텐츠(Branded Contents)의 지속적인 연재를 통해 재단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위 항목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한 결과 2020년 5월, 재단 내 교육생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재단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협동'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도전'이었다. 그 외에도 '동료학습', '협력', '협업' 등의 단어를 떠올렸으며 이는 모두 재단이 추구하는 철학과 관련 있는 단어들이었다.

4. 분야별 홍보전략

1) 언론 커뮤니케이션

재단은 재단의 역할과 사업성과를 알리기 위해 언론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언론사 기자들과 정기적인 미팅을 진행했으며, 재단 관련 기사를 스크랩함과 동시에 해당 기자들의 이메일 주소와 소속, 이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꾸준한 언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2019년 6월 26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총 81개의 재단 관련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다.

< 언론 보도 내역 >

보도일	연번	기사 내용	언론사
2019.06.26	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학장에 이민석 국민대 교수	아이뉴스24
	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에 이민석 국민대 교수	전자신문
	3	과기정통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에 '이민석 교수' 선정	뉴데일리
	4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에 이민석 교수	아시아경제
	5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에 이민석 국민대 교수 선정	파이낸셜뉴스
	6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에 이민석 국민대 교수	머니투데이
	7	SW 인재 양성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에 이민석 국민대 교수 선정	이데일리
	8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에 이민석 국민대 교수 선정	이뉴스투데이
	9	'한국형 에콜4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 이민석 국민대 교수 선정	조선에듀
	10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에 이민석 교수	지디넷코리아

보도일	연번	기사 내용	언론사
2019.06.26	1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에 이민석 국민대 교수	UPI뉴스
	12	이민석 국민대 교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 선정	뉴스웍스
2019.08.01	13	"민간 SW교육 실험 지원"...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출범	지디넷코리아
2019.08.04	14	[인터뷰] "SW 동네에선 '어느 대학 나왔나'를 묻지 않습니다"	IT조선
2019.09.09	15	"교사·교재·학비 없는 3無학교 '에꼴42'...게임하듯 과제풀며 창의력 발휘...	아주경제
2019.09.17	16	[인터뷰 소피 비제 프랑스 에꼴42 교장] "스스로 배우고 서로 고쳐주는 교육...	내일신문
2019.10.11	17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4...	아시아경제
	18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42서울'교육생 모...	세계일보
	19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42서울' 교육생 모집	동아닷컴
	20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업코리아
	2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42서울'교육생 모...	헤럴드경제
	2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서울경제
	2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오늘경제
	24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인천일보
	25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내외뉴스통신
	26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경남데일리
2019.10.15	27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교육생 모집 설명회 개최해 눈길	뉴스1
	28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교육생 모집 설명회 개최해	헤럴드경제
	29	[오늘경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교육생 모집 설명회 개최	오늘경제
	30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교육생 모집 설명회 개최	아주경제
	3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교육생 모집 설명회 개최	내외뉴스통신
2019.10.31	32	소프트웨어 인재 250명 키운다...2년간 무상 교육	연합뉴스
	33	교수·교재·학비 없는 3무(無) 소프트웨어 교육... '42서울' 출범	아시아경제
	34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교육생 모집...11월 한 달간 접수	이투데이
	35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교육생 11월 한달 간 접수	일요서울
	36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교육생 모집...11월 접수	뉴시스
	37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교육생 11월 한달 간 접수	뉴스랩
	38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교육생 11월 한달 간 접수	업코리아
	39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교육생 모집	헤럴드경제
2019.10.31	40	[Tech & Biz] "코딩은 AI시대 대화법... 교육 방식 혁신해야"	조선일보
2019.10.31	41	학벌 NO, 강의 NO, 한달에 100만원 줄게 문제만 풀려라...정부가 만든 이런 아...	중앙일보
2019.10.31	42	SW 전문가 키우는 '42서울' 교육생 모집에 각계각층 지원 문의 쏟아져	조선에듀
2019.11.01	4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수·교재·학비 없는 교육 프로그램 '42서울' 교육...	매일경제
	44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비·교수·교재 없는 교육 프로그램 '42서울' 교육...	한경닷컴
	45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재·학비·교수 없는 혁신 교육 프로그램 선보인다	중앙일보
	46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 '42서울' 교육생 모집	파이낸셜뉴스
	47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재·학비·교수 없는 교육 프로그램 '42서울' 교...	경향신문
	48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1기 교육생 모집	아이티데일리
2019.11.04	49	SW 인재, 꼭 공대생이어야 할까? 선임견 거부한 '42서울'	블로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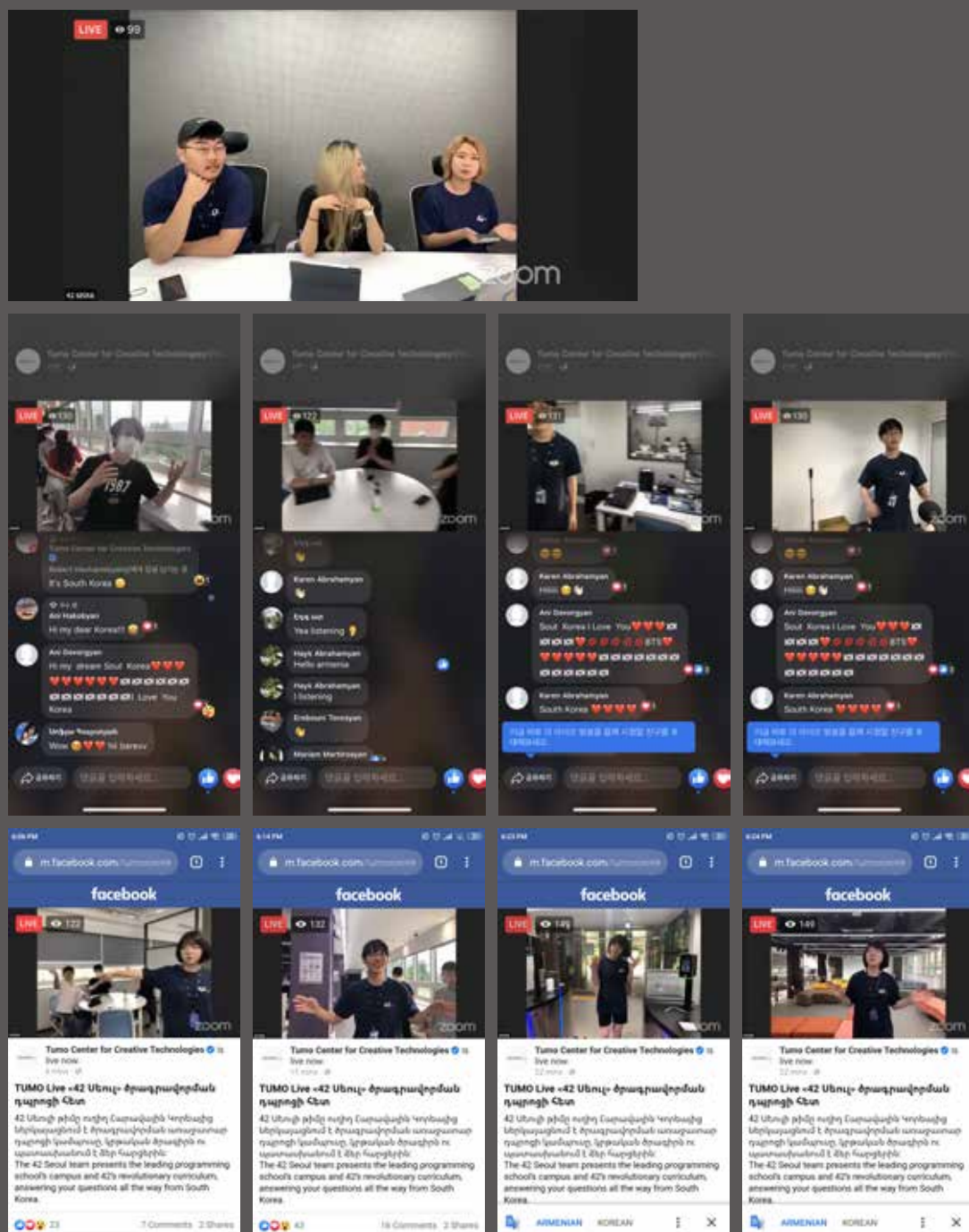
보도일	연번	기사 내용	언론사
2019.11.06	50	'한국판 에콜42' 42서울, 교육생 모집에 뜨거운 관심	조선에듀
2019.11.10	51	"소프트웨어 인력 필수 시대...누구나 코딩 학습할 플랫폼 제공"	한겨레신문
2019-11-13	52	교수도 수업도 학비도 없는데 취업률 100%인 학교가 있다?	SBS뉴스
	53	SW 전문가 키우는 '42서울' 교육생 모집에 각계각층 지원 문의 쏟아져	조선에듀
	54	42서울 참여 기회 확대 ... 지원자들 "선발방식 변화에 혼란"	조선에듀
2019-11-13	55	"SW 인재 되고 싶어요"...'42서울' 지원자 5천명 몰려	블로터
	56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SW교육 인원 추가 선발	파이낸셜뉴스
2019.12.20	57	한국형 에콜42 'SW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	서울경제
	58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보금자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오픈	블로터
	59	과기부·서울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SW 인재 양성	연합뉴스
	60	혁신 SW 인재 양성기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	경향신문
	61	과기부·서울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AI 시대 이끈다	뉴시스
	62	에콜42 기반 SW 전문가 양산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분가동	IT조선
	63	"혁신 IT교육을 서울서"...한국판 '에콜42' 개소	매일경제
	64	과기부·서울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SW 인재 양성	MBC
	65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서 4차 산업혁명 이끌 SW 인재 키운다	파이낸셜뉴스
	66	SW인재 양성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열어	이데일리
	67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SW 인재 양성	tbs 교통방송
	68	과기부·서울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식	문화일보
	69	4차 산업혁명 이끌 소프트웨어 인재 키운다...'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	이데일리
	70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SW 집중 교육	YTN 사이언스
	71	프랑스식 혁신인재 양성' 본딴 SW아카데미, 서울 개소	뉴스1
	72	소프트웨어 인재 키우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	한국경제
	73	서울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교	내일신문
	74	4차산업혁명 SW인재 양성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문 연다	헤럴드경제
	75	과기정통부·서울시'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개소식 개최	미디어리퍼블릭
	76	[현장] SW 인재 양성기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개소	플래텀
	77	(현장+) "교수·교재 없이 프로젝트로 자기주도 학습"...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가...	뉴스토마토
	78	소프트웨어 2년 교육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연 500명 양성	뉴스핌
	79	과기정통부-서울시, AI 시대 이끌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EBN
	80	과기부, 2023년까지 소프트웨어 인재 2천명 키운다	이뉴스투데이
	81	서울시 개포동에 혁신인재 교육시설 열어, 박원순 "인재양성 노력"	비즈니스포스트

2) 재단 투어 프로그램과 포럼운영

재단은 투어 프로그램과 포럼운영을 통해서 재단의 공간과 교육사업에 관심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사업전략을 변경했다. 투어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포럼은 재단의 사업 홍보가 아닌 교육생들의 학습 동기 향상과 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다.

Օնլայն փոխանցումը իրականացվեց ՎԵԲԻՆԱՐ խմբակում՝ 2020 թվականի 7-րդ ամսի 30-ին, ժամը 18:00-ից 20:00-ը։ Փոխանցմանը մասնակցեցին 42 Սեուլի խմբակի 42 անդամները, որոնք մասնակցեցին 42 Սեուլի խմբակի 42 անդամներին։ Փոխանցմանը մասնակցեցին 42 Սեուլի խմբակի 42 անդամները, որոնք մասնակցեցին 42 Սեուլի խմբակի 42 անդամներին։

Օնլայն փոխանցում



포럼은 비대면 학습 시스템의 비전 제시와 학습동기부여 등을 위한 콘텐츠로 기획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생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함이었다. 재단에서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포럼을 진행했다. 1차는 교육생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주제발표로, 2차는 교육기관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먼저 1차 포럼은 '언택트 시대, 어떻게 학습할까?'를 주제로 재단 교육생과 외부인사들이 온라인 비대면 학습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특히 마지막 발표자로 인기 작가이기도 한 엄태웅 ART Lab대표('대학원생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공동저자)가 참여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1차 포럼은 재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되었으며, 100여 명이 동시에 시청해서 많은 질문을 올리고 소통을 하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2차 포럼은 '언택트 시대, 어떻게 가르칠까?'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및 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의미 있는 내용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자로는 매직에코 최재규 대표, 코드스쿼드 김정 대표, NEXT STEP 박재성 대표, Com2us 최흥배 수석 등이 참여했다. 특히 최흥배 차석은 게임 운영에서 유저들의 접속률과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여 교육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했다.

< Innovation Academy Talk 다시 보기 >

1차	언택트 시대, 어떻게 학습할까? / https://youtu.be/ENwkdOVcYAQ
2차	언택트 시대, 어떻게 가르칠까? / https://youtu.be/v5uVKLKSVsl



3) 온라인 매체별 특징에 맞는 다각화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재단은 메시지를 더욱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슈별로 시의성 있게 노출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와 검색광고를 통해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재단의 소식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소통을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여, 재단에 관심이 있는 대중의 문의에 응답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재단은 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대중과 소통했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채널에는 매주 1회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하여 팔로워의 지속적인 유입을 시도했다. 교육생 모집 때는 집중 홍보 기간을 지정(집중교육 2개월 전)하여 이벤트, 인플루언서 연계, 온라인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페이스북의 콘텐츠는 2019년 8월 20일 첫 게시물을 시작으로 2020년 10월까지 총 113개의 게시물을 업로드하여, 105만3,215회의 도달을 달성했다.

검색광고는 재단의 이름뿐만 아니라 연관 검색어가 함께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엔진 최적화(SEO)를 진행했으며, 인벤, 에브리타임, 대학내일 등 재단 타깃이 주로 이용하는 주요 사이트에도 광고 진행 및 브랜드 콘텐츠 게시를 통해 광고효율을 극대화했다. 또한 바이럴 광고를 통해 네이버 카페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취업 관련 주요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업로드 했으며 총 1만1,350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유튜브에는 재단의 홍보 동영상과 자체 제작 다큐멘터리, 개발자 인터뷰 영상 등을 업로드했고, 특히 재단 소개와 42서울 소개, 지원방법 및 선발 절차 등을 자세하게 알릴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지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 있는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 영상을 만들어 많은 시청자에게 재단과 42서울에 대해 알리고, 관심을 제고 했다. 유튜브 채널에는 2019년 9월 27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총 45개의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 했고, 누적 조회 수 11만8,417회와 5,284시간의 시청시간을 기록했다.

4) 뉴스레터

재단은 뉴스레터 구성을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을 전달하는 '함께 만드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채용정보를 전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모집합니다 :)', 행사 및 이벤트 소식을 전달하는 '개발자를 위한 행사' 등으로 하고,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구독자를 모았다.

또한 뉴스레터 하단에는 뉴스 제보와 뉴스레터 추천, 소셜미디어 공유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뉴스레터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였다. 뉴스레터는 2020년 8월 31일 첫 배포를 시작으로 월 1회 발행했으며, 2020년 12월까지 총 5회 발행하고 구독자는 3,000여명을 기록하였다.

5) 4차 산업혁명 대응 융합콘텐츠 제작 및 배포 - 매너가 시를 만든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융합콘텐츠 제작 및 배포 사업은 예비 개발자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교육콘텐츠로서 4차 산업혁명 이후 대두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한 명의 진행자와 두 명의 인공지능 전문가가 대담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으며, 콘텐츠의 제목은 시청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매너가 시를 만든다'로 결정했다.

대담의 주제는 인공지능의 공공성(Publicness), 책무성(Accountability), 통제성(controllability), 투명성(Transparency)의 대분류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대분류별로 현재 가장 화제가 되는 주제를 소분류에 지정하여 대담을 진행했다. 총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세상

10월 뉴스레터
by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도전과 혁신이 만들어갈 변화와 미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소프트웨어로 대한민국을 미래를 준비합니다.

함께 만드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 \$ 코드리뷰와 코딩 테스트의 차이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영상으로 알려주는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
- \$ 2020년 가장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 \$ 직업선택도 달라졌다 "교사 보단 개발자"
- \$ 학생끼리 서로 돕고 평가하는 '42서울'
- \$ 세종시교육원,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스마트 교육 자료' 보급
- \$ 2.2만여개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 일자리 정보 한눈에
- \$ '인공지능 반도체' 강국 실현..2030년 세계시장 20% 선점
- \$ 언택트시대, 어떻게 학습할까?
- \$ 스포티파이, AI 개발을 '물리'로 오픈소스로 공개
- \$ 오픈소스 NOS 소식, 인기 급상승... "네트워킹의 리눅스" 기대
- \$ 엔비디아, 코로나19 환자 산소 요구량 예측하는 AI 모델 개발
- \$ 엔비디아, 엣지 AI 플랫폼 '젯슨' 보급형 개발자 키트로 확대 공급
- \$ [실리콘밸리 리포트] MS 개발자대회 가보니... "인공지능 데이터도 구독"
- \$ 디지털노마드로 남해 한달살기(aka 42 남해)
- \$ SKT, AWS 기반 고객센터 구축 서비스 상용화
- \$ "10년새 헬스케어 IT 프고 산업재 유통유통 지고"...산업 트렌드 지각변동
- \$ [피플] 조종연 대표 "한국 '디지털 뉴딜' 성공하려면 SW가치 보장하는 생태계 시급"
- \$ SW개발 프리랜서도 내년부터 산재 적용
- \$ [경제전망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 \$ B2B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2년 동안 4배 넘게 커졌다
- \$ SW 개발, 노코드와 빅코드로 양분된다
- \$ 'AI 어벤저스' 댄다! 네이버 떠나 스타트업 창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모십니다 :)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상근 연도 모집
- \$ 카카오모빌리티 경력직 공개채용
- \$ ㈜현대IT&E 2020년 하반기 신입/경력 공개채용
- \$ 제로원AI에서 엔지니어/연구원으로 근무할 교육생을 추천받습니다!

개발자를 위한 행사

- \$ 비씨카드, 금융빅데이터챌린지
- \$ 데이콘, 심리상황예측AI경진대회
- \$ 라인, LINE DEV DAY 2020 개최
- \$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노베이션 서밋 코리아 2020 개최
- \$ 인공지능 콘퍼런스: 관대믹 시대, 인공지능(AI)과 교육

친구에게 뉴스레터를 추천해주세요 📧
(뉴스레터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링크 복사하여 전달)
<https://stib.me/mR22>

제보해주세요 📧
(개발자 채용정보, 기술 동향, 행사 소식 등)
innocanews@gmail.com

공유하기 | 팔로우하기

뉴스레터 구독 신청하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Homepage](#) / [Github](#)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6 개포디지털학신파크
소식거북 [Unsubscribe](#)

f | | | B

이 간행물을 온·오프라인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사람투치

6회로 제작된 이 콘텐츠는 60분 내외의 완성본 영상과 20분 내외의 짧은 버전 영상 등 두 종류로 제작해서 시청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모든 영상마다 직접 타이핑하여 정리한 자막 파일까지 업로드하여 장애인들의 접근성까지 고려했다.

재단은 이렇게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바탕으로 블로그 글 연재, 팟캐스트 연재 등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까지 제작하여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Multi Use)를 실현했다. 총 6회에 걸친 촬영에는 경희대학교 김재인 교수, 테크프론티어 한상기 대표, 카카오펀터프라이즈 양기창 개발자, 네이버 이진규 이사, 한빛미디어 박태웅 의장, 모두의 연구소 정지훈 CVO, ART Lab 엄태웅 대표가 참여했다.

< 매너가 AI를 만든다 - 유튜브 >

1회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엑스마키나, 2001스페이스 오딧세이 속 인공지능 https://youtu.be/fmP3oHCepC0
2회	인공지능은 사실 학습하는 것이 아니다 https://youtu.be/1chilQpDj4E
3회	추천 알고리즘이 만드는 편향된 인류 https://youtu.be/L7wMh4q84xE
4회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공정할까? https://youtu.be/aWgAdfOLcsl
5회	코로나시대와 개인정보보호 https://youtu.be/_1WCKC2nHps
6회	인공지능도 생각을 할 수 있을까? https://youtu.be/zMXbb0QmCJM

보고서 <http://asq.kr/innoacaR>

블로그 <http://asq.kr/innoacaB>

애플 팟캐스트 <https://apple.co/2TW0kAJ>

팟빵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1778231>



5. 홈페이지

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및 42서울 홈페이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추진단은 재단의 설립 목적과 설립개요, 연혁, 브랜드 아이덴티티(BI), 3대 핵심사업(42서울, Project-X, 소프트웨어 생태계 지원사업) 등 재단의 비전과 미션을 소개하기 위한 홈페이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홈페이지와 핵심사업인 42서울 홈페이지 제작을 결정했다.

2019년 6월 13일, 재단 설립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혁신인재팀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종합 홍보 용역' 공개입찰 공고를 냈다. 7월 2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혁신인재팀은 공개입찰을 통해 홈페이지 제작 수행업체로 매스씨엔지를 선정했다.

매스씨엔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본 계약을 체결하고 홈페이지 제작에 착수했다. 재단 설립(2019년 8월) 후에는 재단의 대외협력팀이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담당하여, 홈페이지 제작 착수 3개월여 만인 9월 27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홈페이지(www.innovationacademy.kr)와 42서울 홈페이지(<https://42seoul.kr>)를 오픈했다.

2) 프로필(Profile) 홈페이지

재단이 지원하는 지원금 지급 정보를 에꼴42가 제공하는 지원 사이트에서는 담을 수 없었다. 또한 재단에서 필요한 교육생의 개인정보(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가입 확인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관련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채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단의 교육기획운영팀이 프로필 홈페이지를 담당하여 크레이지라이프와 수의계약으로 2주일(2019.12.13~12.27) 만에 프로필 홈페이지를 제작 배포했다.

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및 42서울 홈페이지 리뉴얼과 학사관리시스템

재단 안팎에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영문 홈페이지 제작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에꼴42측은 42서울의 영문 페이지 제작을 직접 요청했다. 또한 기존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홈페이지의 디자인 및 기능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별개로 42서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교육생의 학습추적 분석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학사관리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재단의 대외협력팀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홈페이지와 42서울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해 8,000만원, 학사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분리 발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리 발주보다 통합 발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아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통합 발주하여 수행사 가피아를 선정했다.

수행사인 가피아는 2020년 4월 16일부터 6개월 일정으로 홈페이지 리뉴얼 및 학사관리시스템 개발을 진행했다. 진행 도중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강화 작업이 추가되면서 일정 또한 1개월 추가되어 2020년 11월 16일 최종 제작을 완료했다.



부록_

코로나19 대응

외부 대응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백서
URL모음

부록 코로나19 대응

외부 대응(교육생 중심)

1) 교육 운영 일정 조정 및 방안(2020.3.31. 기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운영 일정도 순연을 거듭했다. 당초 1기 1차 본 과정 교육생의 집합 교육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예정되었으나 2월 23일 교육장 폐쇄가 결정되면서 집합 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되었다.

교육 일정은 1차 변경(3월 16일), 2차 변경(3월 30일), 3차 변경(4월 6일, 제한된 클러스터 운영· 9~18시)에 이어 4차 추가 대응으로 교육부 개학 일정에 맞추어 교육생들에게 원격접속 안내(4월 10일 이후)를 진행했다.

1기 2차 집중교육 과정 또한 2월 24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1차 변경(3월 16일), 2차 변경(3월 30일)에 이어 3차 변경(4월 6일) 이후로는 아예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 1기 교육 일정 변경 현황 >

구분	인원수	기존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	4차 추가 대응
(1기 1차) 본 과정 교육생	204명	2.24(월) 집합 교육 시작	2.24(월) 온라인 교육 대체 및 교육장 출입금지			
			3.16(월) 본 과정 등록 및 집합 교육 시작 예정	3.30(월) 본 과정 등록 및 집합 교육 시작 예정	4.6(월)부터 시작 단, 제한된 클러스터 운영 (9~18시)	교육부 개학일정에 맞추고 원격접속 안내 (4.10일 이후) 단, 시험은 사전신청 후 교육장에서 가능
(1기 2차) 집중과정 교육생	85명	2.24(월) 집합 교육 시작	3.16(월) 집합 교육 시작	3.30(월) 집합 교육 시작	연기	연기

○ 본 과정 교육생 대응책

재단은 본 과정 교육생에게 원활한 소프트웨어교육과 학습동기를 높여주기 위해 원격접속을 통해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4월 10일까지 교육장 내 클러스터(아이맥 63대) 원격접속 및 서버, 네트워크 부하 테스트를 완료하고 교육생들에게 안내했다.

< 1기 교육 일정 변경 현황 >

구분	현재(온라인 교육 대체, 2.24~)	원격접속으로 변경 후
지원금 지급 기준	출입/인트라 접속 시간 적용 대신 학습 리포트 제출 확인	
	주당 학습 리포트 5건 이상, 주별로 과제 5회 이상 커밋(commit)	주당 학습 리포트 5건 이상
가능	인트라 접속 개인과제 오픈가능	인트라 접속 개인과제 / 오픈가능 / 동료 평가 / 과제 채점
불가능	동료 평가 / 과제 채점 / 시험	시험

○ 본 과정 시험 때 대응책

재단은 본 과정 시험을 사전 신청자에 한해 교육장 출석을 허가하고 진행했다. 교육장 출석을 1회 50명으로 제한하고 주 4회 진행 계획으로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본 과정 시험은 다음 써클(Circle)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절차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시험은 교육장에서만 가능하므로 교육부 집체교육 시작 일정을 고려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다음 써클(Circle)의 모든 개인 과제 열람과 학습을 가능토록 했다. 이런 경우에는 첫 시험 이후의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나 채점을 할 수 없어 원격방식이 아닌 현재의 온라인 교육 대체 방식으로 학습을 가능하도록 했다.

< 본 과정 시험 교육장 운영 현황 >

회당제한인원	교육장 출석가능 시간	출석가능요일
50명	- 오전 10:00 ~ 12:00 (2시간) - 오후 14:00 ~ 16:00 (2시간)	매주 화, 목요일

○ 1개월 집중교육 대응책

재단은 4월 6일 이후에 또다시 교육 일정이 연기될 경우, 전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1기 2차 집중교육이 연기된 일정만큼 2기와 3기 집중교육 일정을 순연키로 했다.

< 본 과정 시험 교육장 운영 현황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0월	12월
1기				2차 집중교육 (4.6-5.1)	본 과정(8개월)							
2기					1차 집중교육 (5.4-5.29)	2차 집중교육 (6.1-6.26)	본 과정(6개월)					
3기							1차 집중교육 (7.6-7.31)	2차 집중교육 (8.3-8.28)		본 과정(3개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0월	12월
1기					2차 집중교육 (5.4-5.29)	본 과정(7개월)						
2기						1차 집중교육 (6.1-6.26)	2차 집중교육 (7.6-7.31)	본 과정(5개월)				
3기								1차 집중교육 (8.3-8.28)	2차 집중교육 (9.7-10.2)	본 과정(3개월)		

< 해외 캠퍼스 교육장 운영 현황(2020.3.31.기준) >

캠퍼스	코로나19 현황 (확진자/사망자)	국가 권고 사항	교육장 운영 현황
도쿄 (일본)	1,866 / 54	4월까지 소학교·중학교 고등학교·공립학교 휴업 결정	3월 2일 이후의 모든 피션 중지 및 연기
파리 (프랑스)	40,174 / 2,606	3월 16일부터 탁아소와 초·중·고 대학 등에 무기한 휴교령 내림	원격학습으로 진행 (오프라인 교육일정 미정)
리옹 (프랑스)			원격학습으로 진행 (오프라인 교육일정 미정)
핀란드	1,218 / 9	초·중·고·대학 휴교, 도서관·박물관·극장 휴관 및 요양원 방문 금지	원격학습으로 진행 (오프라인 교육일정 미정)
브뤼셀 (벨기에)	10,836 / 431	영·유아원은 정상 운영,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은 인터넷 강의 활용 권장	4월 6일까지 휴교, 원격학습 방안 논의 중
실리콘 밸리 (미국)	142,537 / 2,510	주 별 대응(워싱턴 주 내의 모든 학교 휴학, 뉴욕 필수 직종을 제외한 모든 회사 직원의 100% 재택근무 의무화 등등)	5월 1일까지 휴교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10,923 / 772	100명 이상 밀집 행사 금지, 외출 자제 권고, 모든 학교 휴교	4월 7일까지 휴교

2) 교육 운영 일정 및 방안(2020.5.25.기준)

재단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교육 일정을 순연하고 동시에 방역 관리 지침을 강화했다.

구분	교육장 출입금지	교육생 출입가능
주요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일정 조정 ● 본과정 온라인학습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구 방역 기능 강화 ● 예방 수칙 강화 ● 한시적 공간 이용 수칙 마련 ● 본과정 온라인(원격)학습 유지
일정	2.24.(월)~5.24.(일)	5.25.(월)~

(1) 교육 운영 등 행정사항**○ 1기 1차 본 과정**

재단은 5월 26일부터 1기 1차 본 과정 단계별 교육을 시작했다. 우선 1단계로 단계별 써클(Circle) 진행을 위해 시험이 필요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통해 지정된 공간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 일 시 : 매주 화요일 1회) 10:00~12:00, 2회) 14:00~16:00
- 장 소 : 새롭관 2층(클러스터 1, 2)
- 인 원 : 50명 이하(교육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시험 인원 제한)

2단계 조치로 교육장 4부제를 통해 주 1회 오프라인 학습을 새롭관 2층에서 병행했다. 주말과 화요일을 제외하고 진행하고 임시부여 번호 부여를 통해 1회당 50명 내외로 제한했다.

< 1기 교육 일정 변경 현황 >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일
1기	1~50번	시험	51~100번	101번~150번	151번~202번	미운영

○ 1기 2차 집중교육

재단은 5월 25일부터 연기되었던 1기 2차 집중교육을 진행했다.

< 시기별 · 상황 발생별 조치사항 검토(안) >

구분	데이터 축적사항	에꼴42의 중단 시 권고사항	확진자 발생의 경우	자가격리자 발생의 경우
1주차	- 개인 과제 결과(1주)	재시작	전원 신규 집중교육 (7월, 8월) 재시작	대상자만 신규 피싱 (7월, 8월)으로 연기
2주차	- 개인 과제 결과(1~2주) - 주말프로젝트 결과(1주) - 시험결과(1주)	집중교육 시작 전에 종료 시점을 추가적으로 늘려서 설정할 경우만 가능하며, 중지된 기간만큼 추가시간 적용 가능 ⇒ 교육생은 교육공간 출입이 가능한 시점부터 이어서 학습이 가능함	중지된 기간 만큼 추가 시간 적용(2주간) *집중교육 시작 전에 종료시점을 2주 늘려서 설정해야 함	
3주차	- 개인 과제 결과(1~3주) - 주말프로젝트 결과(1~2주) - 시험결과(1~2주)			
4주차	- 개인 과제 결과(1~4주) - 주말프로젝트 결과(1~3주) - 시험 결과(1~3주)	① 하루만 교육장에 출석하여 최종시험 실시 ⇒ 누적된 데이터로 교육생 선발 ② 누적된 데이터만 가지고 교육생 선발	최종시험 없이, 누적된 데이터로 교육생 선발	자가격리자 이 외 교육생은 최종시험 실시, 선발 기준에서 최종시험 결과 제외

○ 2기 및 3기 교육 일정

재단은 1기 2차 집중교육이 연기되면서 이후 교육 일정을 순연했다.

< 2기 및 3기 교육 일정 변경(안)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0월	12월
1기					2차 집중교육 (5.25-6.19)	본 과정(6개월)						
2기						1차 집중교육 (6.29-7.24)	2차 집중교육 (7.27-8.21)	본 과정(4개월)				
3기									1차 집중교육 (8.31-9.25)	2차 집중교육 (10.5-10.30)	본 과정(2개월)	

○ 교육 공간 운영 방침

재단은 교육생 간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한 방향 앉기(지정 좌석제 운영) ▲교육생 간 1m 간격유지 ▲학습공간 층별 정원 50명 내 관리 등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교육장 출입 시 발열 체크 및 마스크 필수 착용 점검 등 건물 이용 공통조치 사항을 이행했다. 이 밖에도 교육 기간 내 다수의 인원이 모여서 식사 등을 하지 않도록 휴게실과 자료실 등을 임시로 폐쇄했다.

< 학습공간별 운영(안) >

층별	총 이용좌석	클러스터1	클러스터2	사용 목적
5층	41석/143석	19석/63석	22석/80석	1개월 집중교육과정
4층	41석/143석	19석/63석	22석/80석	1개월 집중교육과정
3층	(멘토상담실)			
2층	50석/143석	24석/63석	26석/80석	본 과정 시험

※ 한 방향 앉기, 교육생 간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한 라인에 2~3명 착석

○ 지원금 지급기준 한시적 변경

재단은 본 과정 교육생의 경우, 교육장 출입기록이 주 40시간 이상, 인트라 접속기록 주 20시간 이상이면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온라인 교육과 원격교육으로 대체되면서 지원금 지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변경했다. 1기 2차 집중교육 대상자는 본 과정 교육생의 기존 지급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 1기 교육 일정 변경 현황 >

구분	기존	한시적 변경	
		온라인 교육(2.24.~4.3.)	원격교육 (4.3.~)
본과정	(교육장 출입기록) 주 40시간 이상 (인트라 접속기록) 주 20시간 이상	주당 학습 리포트 5건 이상, 주별로 과제 5회 이상 DB제출	주당 학습레포트 5건 이상

※ 한 방향 앞기, 교육생 간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한 라인에 2~3명 착석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책

재단은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발령(2020.8.16.)에 따라 교육 일정과 운영방식을 조정했다. 8월 17일부터 1기 본 과정은 예약제로 변경하고, 2기 2차 집중교육은 2부제로 운영을 변경했다. 교육장 폐쇄로 모든 교육은 외부에서 교육장 컴퓨터에 접속 가능한 '과카몰리(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고 동료평가를 하는 온라인 학습으로 변경됐다.

< 1기 본 과정 교육 운영 방안 >

구분	기존	변경
기간	6.29(월) ~	8.17(월) ~
사용 공간	2층 교육장	없음
학습 방법	- 교육장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학습 및 원격접속을 통한 온라인 학습 병행	- 과카몰리를 이용한 온라인 학습 및 동료평가 진행
교육장 출입	예약시스템 사전 신청 인원	불가능
지원금 지급기준	동일	학습리포트 주 5회 이상 제출
시험(EXAM)	매주 금요일 1회 (2시간, 오전)	매주 수요일 1회 진행(2시간)
오프라인 이벤트	온라인 및 거리두기 범위 내에서 오프라인 이벤트 병행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

< 2기 2차 집중교육 2부제 운영 방안 >

구분	기 준	변 경
기간	7.27(월) ~ 8.16(일)	8.17(월) ~ 8.21(금)
인원	264명	264명
사용 공간	4, 5층 해당 좌석(한 방향 앉기)	없음
학습 방법	교육장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학습 및 원격접속을 통한 온라인 학습 병행	온라인 학습
교육장 출입	2부제 운영(해당 날짜에만 교육장 출입 가능)	금요일 하루만 교육장에 출입하여 최종 시험 진행
지원금 지급기준	- 교육장 출입시간 : 주 20시간 이상 - 인트라 접속시간 : 주 10시간 이상 ※홀짝제 시행에 따라 지급기준 완화	인트라 접속시간 : 주 20시간 이상
시험(EXAM)	매주 금요일 1회 진행(4시간, 오후) ※ 최종시험(8시간)	금요일 1회 진행(8시간)
러시(RUSH)평가	팀장에 따라 평가 일정 편성	러시 평가 (생략)
교육생 선발		최종데이터로 교육생 선발

< 시기별 · 상황 발생별 조치사항 검토(안) >

구분	데이터 축적사항	에플42의 중단 시 권고사항	확진자 발생의 경우	자가격리자 발생의 경우
1주차	- 개인 과제 결과(1주)	재시작	전원 신규 집중교육 재시작	대상자만 연기
2주차	- 개인 과제 결과(1~2주) - 주말프로젝트 결과(1주) - 시험결과(1주)	집중교육 시작 전에 종료 시점을 추가적으로 늘려서 설정할 경우만 가능하며, 중지된 기간만큼 추가시간 적용 가능 ⇒ 교육생은 교육공간 출입이 가능한 시점부터 이어서 학습이 가능함	중지된 기간 만큼 추가 시간 적용(2주간) *집중교육 시작 전에 종료시점을 2주 늘려서 설정해야 함	
3주차	- 개인 과제 결과(1~3주) - 주말프로젝트 결과(1~2주) - 시험결과(1~2주)			
4주차	- 개인 과제 결과(1~4주) - 주말프로젝트 결과(1~3주) - 시험 결과(1~3주)	① 하루만 교육장에 출석하여 최종시험 실시 ⇒ 누적된 데이터로 교육생 선발 ② 누적된 데이터만 가지고 교육생 선발	최종시험 없이, 누적된 데이터로 교육생 선발	자가격리자 이 외 교육생은 최종시험 실시, 선발 기준에서 최종시험 결과 제외

(3)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공통 조치사항

● 건물 이용 관리

재단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공통 조치사항으로 교육 공간 진입 시, 사전 예방조치를 시행했다. 모든 직원 및 외부인이 교육장인 새롭관에 진입 시에는 체온을 측정하고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을 실시했다. 건물 입구에 열감지기를 설치해 직접 체온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에는 진입을 금지했다. 체온 측정 결과,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건물 진입을 차단했다. 이상 증상이 없는 경우는 행동요령을 숙지한 후 건물 진입을 허용했다.

교육장 내 행동 요령

- 교육 공간 내 마스크 착용 유지 안내, 특히 동료평가 실시 시 필수 착용
- 교육생 간 신체적 접촉 최소화
- 해외 여행력 알리기
- 의심 상황 발생 시 담당관에게 즉각 통보

재단은 모든 외부인 방문 시에는 건물 내 출입 시각 등 일지를 작성했다. 검역 및 외부인 통제는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진행했다. 아울러 교육 공간 내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예방조치도 시행했다.

교육 공간 내외 예방조치 사항

- 일 2회 이상 주기적 환기 실시
- 코딩룸(클러스터), 세면대, 손잡이, 개수대 등 일 1회 이상 수시 소독 실시
- 새롭관, 마루관 시설 내부 주 1회 이상 방역 실시(매주 토 실시)
- 새롭관 입구 및 주요 공간에 손 소독제, 마스크,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
- 컵 접시 스푼 등 공동사용 금지, 휴게실·자료실 등 공용 공간 임시 폐쇄
- 교육 공간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부착

● 임시 격리공간 운영

재단은 감염 의심자 발생 시, 즉시 격리를 위한 임시 독립 공간을 마련했다. 건물 외부와 연결 동선이 짧고, 사람의 출입이 가장 적은 공간 중에서 1층 회의실 2곳(창덕궁, 덕수궁)을 임시 격리공간으로 지정해 운영했다. 코로나19 의심환자가 격리되었다가 보건소로 이송되면 의심환자가 사용한 임시 격리공간은 환경부 승인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철저히 소독하도록 했다.

● 개인별 협조 사항

재단은 교육생이나 직원에 대한 개인별 협조 사항 조치도 마련했다. 본인 및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를 방문했을 경우 ▲확진자가 나온 장소에 방문했을 경우 ▲가족 중 확진자 또는 의사 환자가 있는 경우 ▲확진자와 같은 시각·장소·동선 내 있었을 경우 즉각 관리관에게 통보하고 자가격리(14일)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재단 인근 지역(서울 개포동 및 강남 일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대중교통 및 인근 상가 내에서 의사 환자 또는 확진자 발생 시, 같은 시간·장소·동선 내 있었는지 개인별 상황을 파악했다. 해외에서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에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검역관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는 해외 여행력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홍보했다. 이 외에도 의심 증상 발생 혹은 인지 시, 개인별 즉각 대응(담담관 및 관내 보건소 신고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홍보 리플릿도 배포했다.

○ 비상 연락망 구축

재단은 관련 부처를 비롯해 전문기관 및 지자체 등과 핫라인 등의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코로나19 의사환자 또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비상연락망으로 연락하도록 조치했다.

< 비상연락망 체계 >

구분	연락기관	연락처
1차 비상 연락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 다산센터	지역번호+120
	강남구보건소	02-3423-7200 02-3423-1799 (야간·공휴일/ 보건소·구청 당직실 연결)
2차 비상 연락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과	윤용수 사무관(044-202-6323)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주상수 주무관(02-2123-5233)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혁신인재팀	민승현 팀장(044-612-8490)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4) 교육생 대상 조치 사항

재단은 교육생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수시로 공지하고, 교내 방송망을 통해 매일 2회(오전/오후) 교육장 안내방송도 실시했다. 아울러 사무실 내 환기를 위한 안내방송도 매일 2회 이상 실시했다.

또한 재단은 교육 공간 내에서 ▲식음료 공통 섭취 및 식기 공통 사용 금지 ▲마스크 착용하고 학습 수행 권고 ▲한시적 지정좌석제 운영 ▲휴게 공간·자료실·수면실 임시 폐쇄 등 교육 공간에 대한 한시적 이용 수칙도 수립해 실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출처 :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 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알리기
- 감염병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상담

개인방역 5대 핵심 수칙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집단방역 5대 핵심 수칙

-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교육장 안내 방송 내용

42서울교육생 여러분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에 대해서 안내방송 드립니다. 개인위생수칙 첫 번째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개인 위생수칙 두 번째 기침할 땐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개인 위생수칙 세 번째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발열, 폐렴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 120으로 전화해야 하며 반드시 관계자에게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상황별 대응조치 방법

○ 의사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재단은 의사환자 발견 시, 증상 유무를 확인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비상연락망에 따라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코로나19 상황별 대응조치 방법을 수립했다.

의사환자

-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
 - *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재단은 의사환자를 관할 보건소로 이송하기 전까지는 임시 격리공간에 격리하고, 해당 의사환자와 접촉한 교육생이나 직원이 있으면 보건소 검사와 역학조사 등이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교육기관 내 격리장소에서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를 착용하고 대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 격리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하고, 보건소 담당자가 도착하기 전에는 의사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의사환자의 보건소 이송 후에는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하고 알코올과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를 철저히 소독하도록 했다.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선정된 교육생 및 직원 또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담당관에게 보고 후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병원 또는 자가 격리토록 조치했다.

○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재단은 교육 시설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설 내 모든 사람(교육장 내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단기 근로자, 용역업체 노동자 포함)에게 안내하고, 비상연락망에 따라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하도록 했다. 확진 환자는 임상 양상과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로서 해당 교육장을 이용하는 교육생·직원, 방문자 등이 확진 환자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재단은 확진 환자에 대한 질병관리청 역학조사반의 심층 역학조사 및 이동동선 소독 등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조치사항에 대해 모든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조치했다.

확진 환자가 노출된 장소는 '질병관리청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붙임4)' 지침에 따라 교육장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해당 장소를 사용하도록 했다.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하루 동안사용을 금지했다. 확진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코딩룸, 휴게실, 라운지, 사무실, 방문자 등이 방문한 장소 등 교육장 내 모든 장소)와 시간 등 이동 동선이 명확히 분리되는 시공간에서 교육장을 이용한 자에 대한 능동감시는 보건소의 조치에 따르도록 했다.

부록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백서 URL모음

Page	내용 / URL
53P	올바로시스템 https://allbaro.or.kr
75P	42서울 홈페이지 https://42seoul.kr
115P	소인수분해 프로그램 대회 수상자 현황 1등 : 김은홀 (eunhkim) / https://github.com/eunhyulkim/ft_factorization 2등 : 김정환 (jeonkim) / https://github.com/kim-jh/42_factorization.git 3등 : 이태혁 (taelee) / https://github.com/taelee42/prime_facto.git 4등 : 장인석 (ijang) / https://github.com/flalini/factorization
121P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리어 https://youtu.be/3xrNhX77tpM 당근마켓 성장과 개발 스택의 변화 https://youtu.be/ELlQXruFesI 멋쟁이 사자처럼(Like Lion) https://youtu.be/qanhYMPHfVv 42 학습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https://youtu.be/_kgWKGCPGcE 개발자 삼촌에서 물어보살 https://youtu.be/hlceBUN5ZHQ
143P	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학장에 이민석 국민대 교수 http://www.inews24.com/view/1189125 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에 이민석 국민대 교수 https://www.etnews.com/20190626000378 3 과기정통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에 '이민석 교수' 선정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6/26/2019062600156.html 4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에 이민석 교수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62616092780379 5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에 이민석 국민대 교수 선정 https://www.fnnews.com/news/201906261619307259 6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에 이민석 국민대 교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62616371224799 7 SW 인재 양성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에 이민석 국민대 교수 선정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96566622525656&mediaCodeNo=257 8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에 이민석 국민대 교수 선정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6054 9 '한국형 에콜4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 이민석 국민대 교수 선정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6/2019062602475.html 10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에 이민석 교수 https://zdnet.co.kr/view/?no=20190626231631

Page	내용 / URL
144P	1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에 이민석 국민대 교수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1906260006?oldid=1065605874780710
	12 이민석 국민대 교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 선정 12.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732
	13 "민간 SW교육 실험 지원"...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출범 https://zdnet.co.kr/view/?no=20190801141518
	14 [인터뷰] "SW 동네에선 '어느 대학 나왔나'를 묻지 않습니다"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1/2019080102153.html
	15 "교사·교재·학비 없는 3 학교 '에꼴42'...게임하듯 과제풀며 창의력 발휘... https://www.ajunews.com/view/20190908121252893
	16 [인터뷰 소피 비제 프랑스 에꼴42 교장] "스스로 배우고 서로 고쳐주는 교육...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5664
	17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4...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1109350363293
	18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42서울'교육생 모...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11503537?OutUrl=naver
	19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42서울' 교육생 모집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11/97827610/1
	20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645707
	2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42서울'교육생 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11000198
	2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HBWVHDN
	2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http://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25
	24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90895
	25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557
	26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http://www.k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349
	27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교육생 모집 설명회 개최해 눈길 https://www.news1.kr/articles/?3743938
	28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교육생 모집 설명회 개최해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15000717
	29 [오늘경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교육생 모집 설명회 개최 http://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78
	30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교육생 모집 설명회 개최 https://www.ajunews.com/view/20191015141549222
	31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교육생 모집 설명회 개최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884

Page	내용 / URL
	32 소프트웨어 인재 250명 키운다...2년간 무상 교육 https://www.yna.co.kr/view/AKR20191030164800004?input=1195m
	33 교수·교재·학비 없는 3무() 소프트웨어 교육... '42서울' 출범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3108123415676
	34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교육생 모집... 11월 한 달간 접수 https://www.etoday.co.kr/news/view/1816093
	35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교육생 11월 한달 간 접수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518
	36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교육생 모집... 11월 접수 https://newsis.com/view/?id=NISX20191030_0000814883&clD=14001&pID=14000
	37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교육생 11월 한달 간 접수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877
	38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교육생 11월 한달 간 접수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657013
	39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교육생 모집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31000045
	40 [Tech & BIZ] "코딩은 AI시대 대화법... 교육 방식 혁신해야"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16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41 학벌 NO, 강의 NO, 한달에 100만원 줄게 문제만 풀어라... 정부가 만든 이런 아...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543
	42 SW 전문가 키우는 '42서울' 교육생 모집에 각계각층 지원 문의 쏟아져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126.html
	4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수·교재·학비 없는 교육 프로그램 '42서울' 교육...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1/897741/
	44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비·교수·교재 없는 교육 프로그램 '42서울' 교육...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018160a
	45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재·학비·교수 없는 혁신 교육 프로그램 선보인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21625
	46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 '42서울' 교육생 모집 https://www.fnnews.com/news/201911011321055189
	47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재·학비·교수 없는 교육 프로그램 '42서울' 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1011025018&code=920100
	48 이노베이션아카데미, '42서울' 1기 교육생 모집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97990
	49 SW 인재, 꼭 공대생이어야 할까? 신입견 거부한 '42서울' http://www.bloter.net/archives/359766
145P	50 '한국판 에콜42' 42서울, 교육생 모집에 뜨거운 관심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6/2019110601360.html
	51 "소프트웨어 인력 필수 시대...누구나 코딩 학습할 플랫폼 제공" http://www.hani.co.kr/arti/science/future/916478.html
	52 교수도 수업도 학비도 없는데 취업률 100%인 학교가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21386
	53 SW 전문가 키우는 '42서울' 교육생 모집에 각계각층 지원 문의 쏟아져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126.html

Page	내용 / URL
54	42서울 참여 기회 확대 ... 지원자들 "선발방식 변화에 혼란"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3/2019111302657.html
55	"SW 인재 되고 싶어요"...'42서울' 지원자 5천명 몰려 https://www.bloter.net/archives/360862
56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SW교육 인원 추가 선발 https://www.fnnews.com/news/201911130921594190
57	한국형 에콜42 'SW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5CIOGNA
58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보금자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오픈 http://www.bloter.net/archives/365081
59	과기부·서울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SW 인재 양성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9136300017?input=1195m
60	혁신 SW 인재 양성기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200930001&code=620100
61	과기부·서울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AI 시대 이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91220_0000866533&cID=13001&pID=13000
62	에콜42 기반 SW 전문가 양산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본가동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0/2019122000848.html
63	" 혁신 IT교육을 서울서"...한국판 `에콜42` 개소 https://www.mk.co.kr/news/it/view/2019/12/1070431/
64	과기부·서울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SW 인재 양성 https://imnews.imbc.com/news/2019/econo/article/5642833_29138.html
65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서 4차 산업혁명 이끌 SW 인재 키운다 https://www.fnnews.com/news/201912201433456791
66	SW인재 양성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열어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59766622720488&mediaCodeNo=257
67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SW 인재 양성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7&seq_800=10370255
68	과기부·서울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식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2001072703009001
69	4차 산업혁명 이끌 소프트웨어 인재 키운다...'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56486622720488&mediaCodeNo=257
70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SW 집중 교육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912201603436858
71	프랑스식 혁신인재 양성' 본판 SW아카데미, 서울 개소 https://www.news1.kr/articles/?3797539
72	소프트웨어 인재 키우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2201413i
73	서울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교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35507
74	4차산업혁명 SW인재 양성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문 연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20000366
75	과기정통부·서울시'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개소식 개최 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08

Page	내용 / URL
	76 [현장] SW 인재 양성기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개소 https://platum.kr/archives/133856
	77 (현장+)"교수·교재 없이 프로젝트로 자기주도 학습"...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가...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41275
	78 소프트웨어 2년 교육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연 500명 양성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225000106
	79 과기정통부-서울시, AI 시대 이끌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https://www.ebn.co.kr/news/view/1014303/?sc=naver
	80 과기부, 2023년까지 소프트웨어 인재 2천명 키운다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6956
	81 서울시 개포동에 혁신인재 교육시설 열어, 박원순 "인재양성 노력"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6225
147P	언택트 시대, 어떻게 학습할까? https://youtu.be/ENwkdOVcYAQ
	언택트 시대, 어떻게 가르칠까? https://youtu.be/v5uVKLkSVsl
150P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엑스마키나, 2001스페이스 오딧세이 속 인공지능 https://youtu.be/fmP3oHCepC0
	인공지능은 사실 학습하는 것이 아니다 https://youtu.be/1chilQpDj4E
	추천 알고리즘이 만드는 편향된 인류 https://youtu.be/L7wMh4q84xE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공정할까? https://youtu.be/aVWgAdfOLcsl
	코로나시대와 개인정보보호 https://youtu.be/_1WCKC2nHps
	인공지능도 생각을 할 수 있을까? https://youtu.be/zMXbb0QmCJM
	블로그 http://asq.kr/innoacaB
	애플 팟캐스트 https://apple.co/2TW0kAJ
	팟빵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1778231
151P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홈페이지 www.innovationacademy.kr
	42서울 홈페이지 https://42seoul.kr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백서_2020

©(재)이노베이션아카데미

발행일 : 2020년 12월 31일

발행인 : 이민석

편집 : 이진열

발행처 : (재)이노베이션아카데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6 개포디지털혁신파크

홈페이지 : innovationacademy.kr

SOFTWARE FOR PEOPLE, FOR WORLD

innovationacademy.kr

2020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백서

INNOVATION ACADEMY WHITEPAPER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416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분당선 개포동역 8번 출구)

